

용인 석성산봉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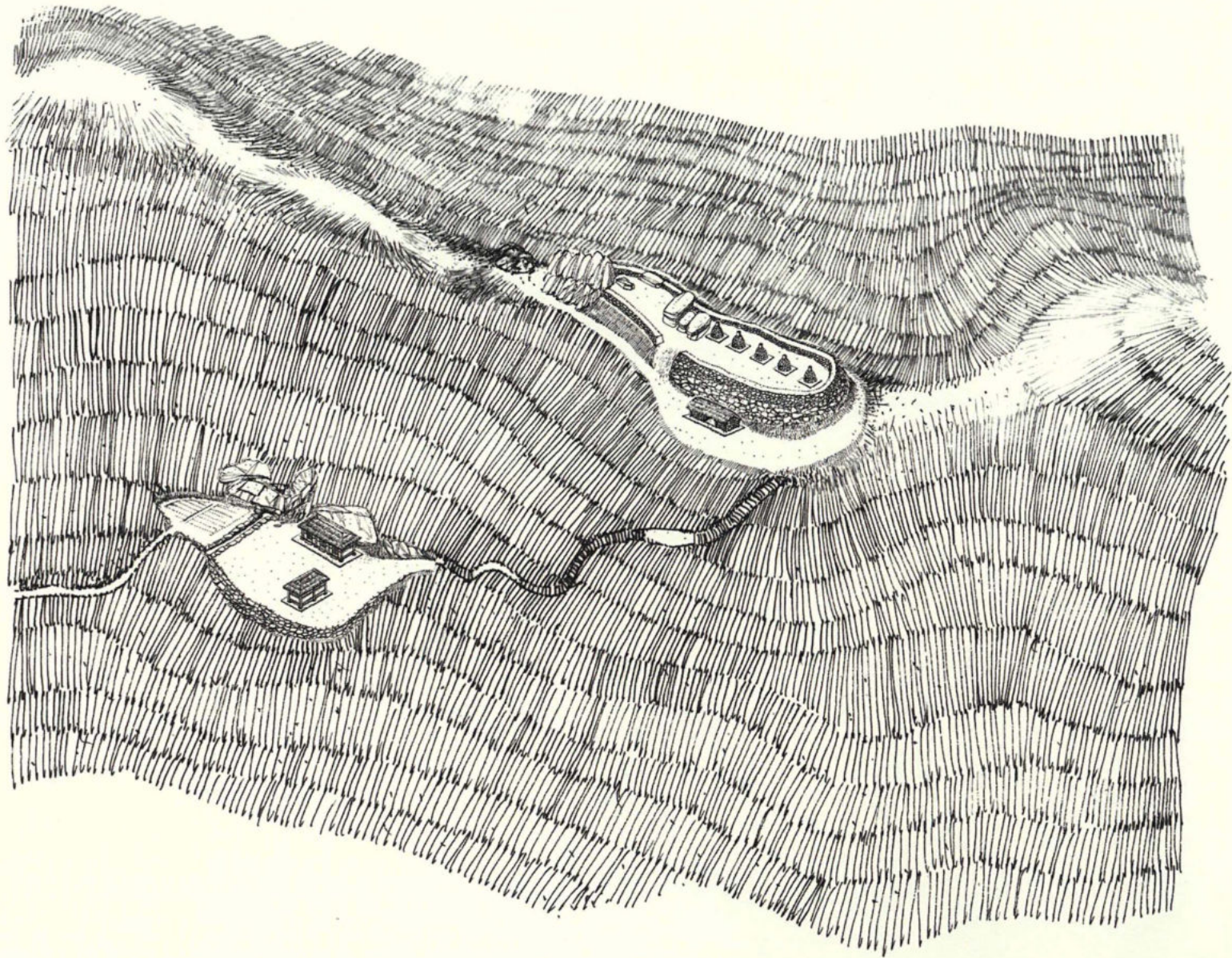
종합정비 기본계획



용인시·용인문화원
충주대학교



용인 석성산봉수 조감도



웅인 석성산동수 추정 복원도 (이철영 교수 작성)



여지대전도(1700)



여지도(1735년)



해동여지도-龍仁(1735년)



해동지도-龍仁縣(175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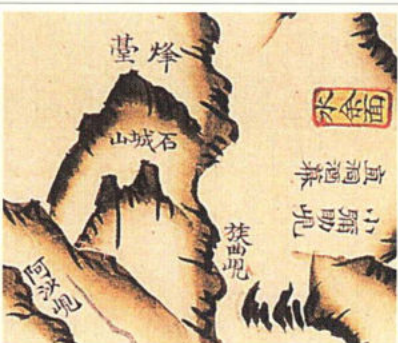
경기도지도-龍仁縣(18세기중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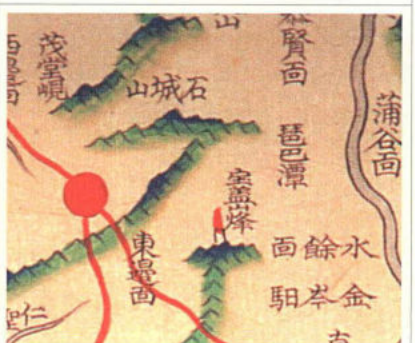
여지도-龍仁縣(18세기중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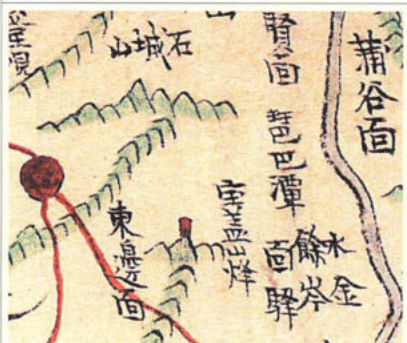
팔도군현지도-龍仁(1760)



광여도-龍仁縣(1767~177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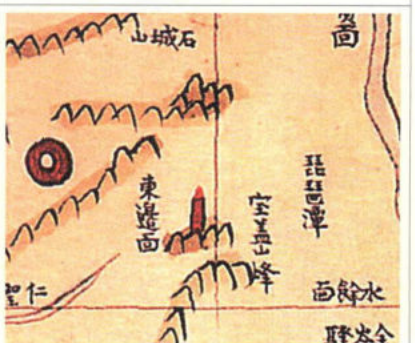
18세기 후반-龍仁



팔도지도-龍仁(1785~1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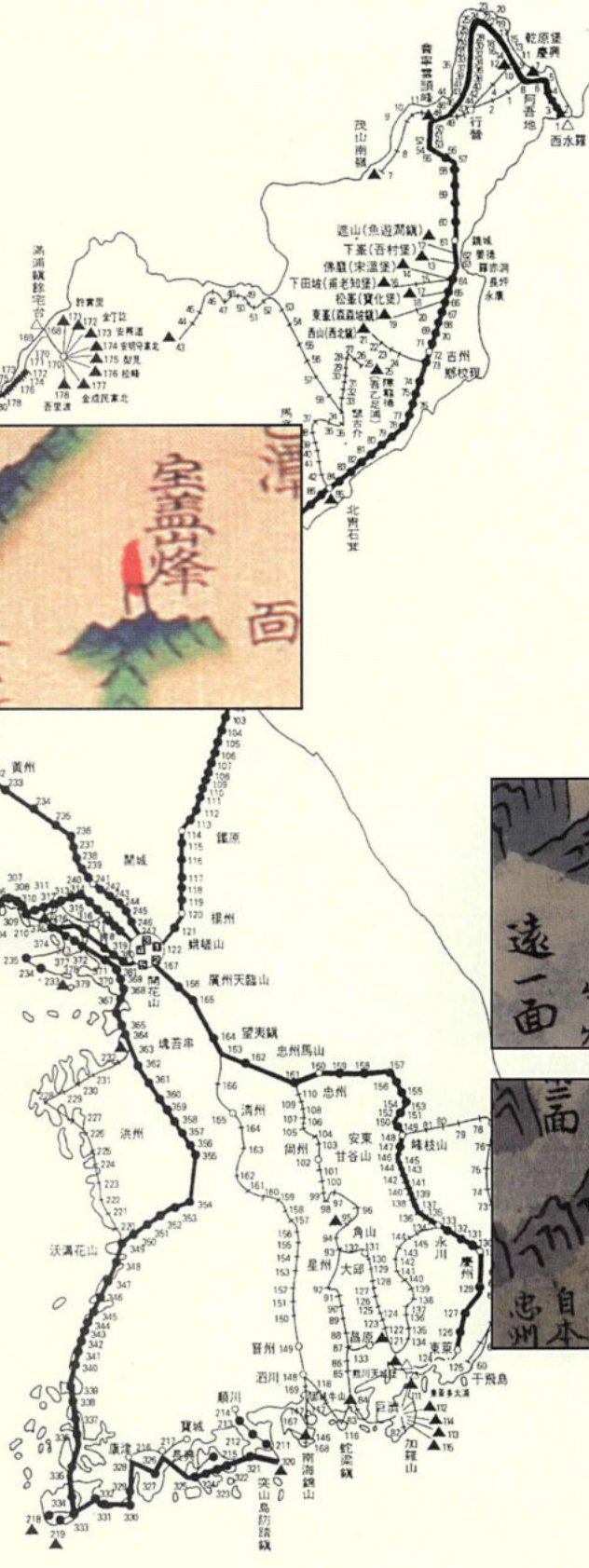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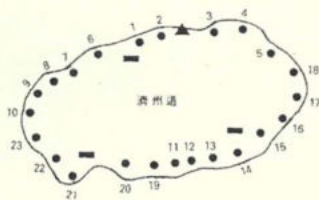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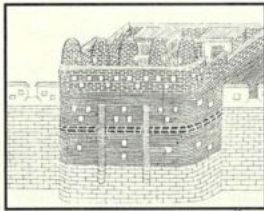


동국여도-龍仁縣(1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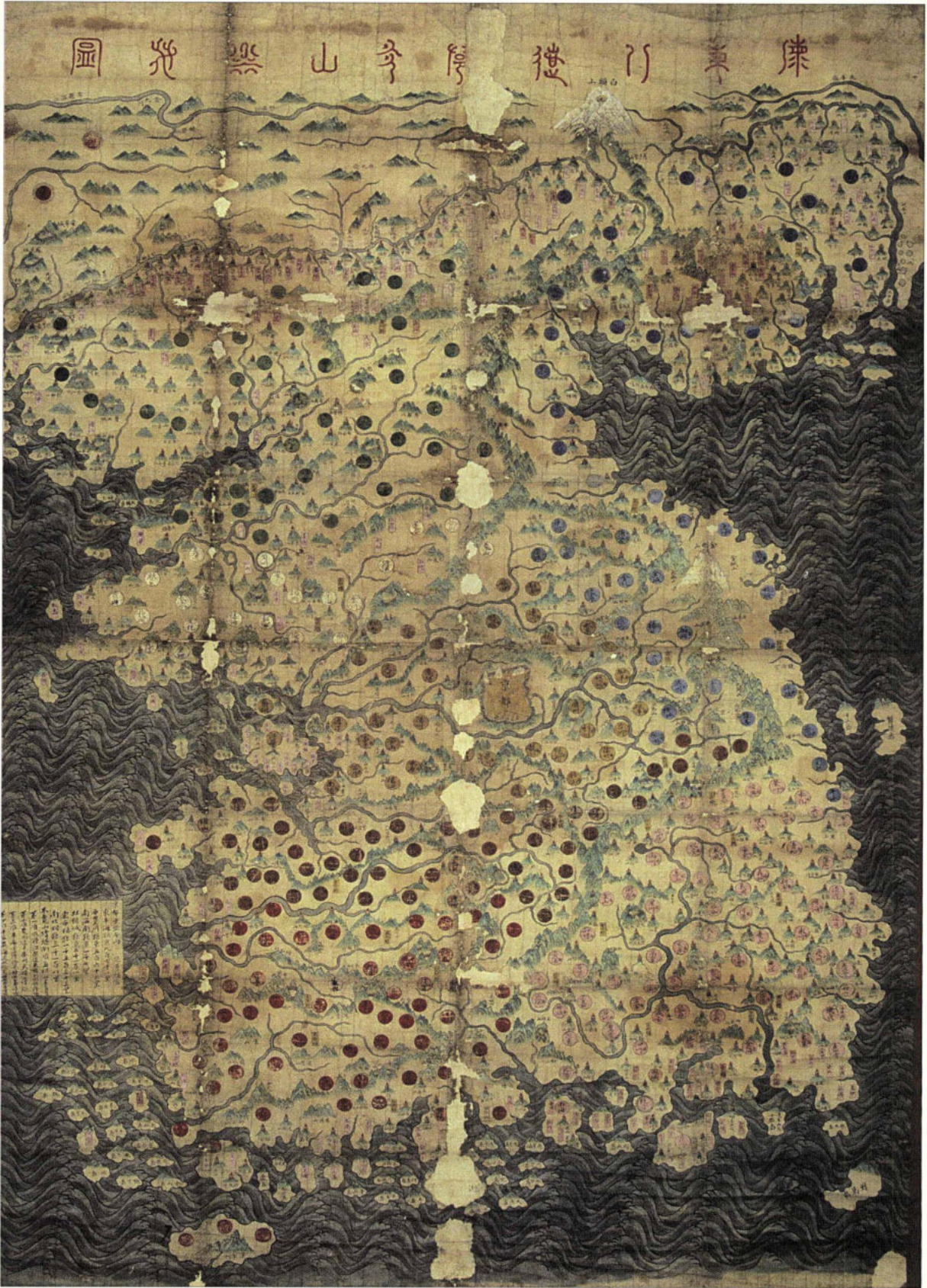


해동여지도-龍仁(1800년)

조선후기 각종 고지도의 석성산봉수



조선 후기 전국 봉수지도



해동팔도봉화산악지도(보물 제1533호, 고려대학교 도서관)



봉수노선지도(국립과천과학관 전시패널)

목 차



과업개요

I. 현황조사

1. 용인시 일반현황.....	15
1) 자연현황	15
2) 인문자연환경	20
3) 역사문화환경	22
4) 문화유적	30
2. 석성산붕수	40
1) 유적지 내부 자연현황	40
2) 유적지 현황.....	42
3) 연계 가능한 관광문화환경 현황조사	45

II. 석성산붕수 현황 및 유사사례 분석

1. 문헌검토 및 조사·연구현황	57
1) 문헌검토	57
2) 조사·연구현황	58
2. 조사내용	59
1) 붕수내부	62
2) 연조	63
3) 방호벽	64
4) 건물지	64
5) 우물	66

3. 유사사례 분석.....	77
1) 평면형태	77
2) 봉수 시설물.....	77

Ⅲ. 여건분석

1. 현황분석	85
1) 석성산봉수의 SWOT 분석	85
2. 유적정비 여건 및 잠재력 분석	86
1) 유적정비에 따르는 문제점	86
2) 기대효과 및 잠재력	88
3) 입지환경 분석.....	89
3. 정비사례검토	90
4. 석성산봉수 정비 및 역사광장 건립의 필요성	99
1) 입지분석	99
2) 역사문화적 측면.....	99
3) 용인시 문화도시 측면	100
4) 봉수박물관 건립의 단서 제공	101
5) 관련정책 및 계획	101

Ⅳ. 기본구상 및 지표설정

1. 기본 방향 구상	103
1) 개념의 정리.....	103
2) 계획의 기본 방향	108

2. 관련계획 및 법규 검토	110
1) 상위 계획 검토	110
2) 관련 법규 검토	114
3. 기본구상 및 지표설정	121
1) 기본 구상.....	121
2) 계획의 지표와 방안	122

V. 종합정비기본계획

1. 방향설정	125
1) 문화재보존과 활용방향.....	125
2) 조사와 정비 방향설정	126
3) 관련계획 및 관련 법규 검토를 통한 적용방향 설정.....	128
4) 주변의 유적 및 관광자원과의 연계방향 설정	128
5) 유적의 보호관리 및 향후 복원계획 방향 설정	129
2. 석성산봉수 종합정비계획	131
1) 시·발굴조사 지역 계획수립 및 시기 반영	131
2) 유적지 내·외부 종합유적정비계획	133
3. 각종시설계획	137
1) 안내판 정비	137
2) 편의시설 정비.....	139
3) 행사시설 정비.....	139
4. 문화자원 연계 계획	139
1) 지역단위 관광계획.....	139
2) 광역단위 관광계획.....	140

VI. 사업계획

1. 사업추진계획	142
1) 기본구상 이후 추진과정	142
2) 실행방안	145
3) 기간별 사업구분.....	145
2. 관리운영계획	148
1) 관리운영의 기본방침	148
2) 관리계획	148
3) 재정관리 방안.....	149
4) 관리운영 조직구성.....	150
3. 자원조달 및 투자계획	152
1) 자원조달	152
2) 투자계획부록	153

부 록

1. 內地烽燧 整備 · 復原事例	157
2. 烽燧略史	166
3. 烽燧用語	170

참고문헌



과업개요

1. 과업명 : 용인 석성산봉수 종합정비 기본계획

2. 위 치 :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 산 78번지 일대

3. 목 적

- 1) 석성산봉수는 건지산봉수와 천림산봉수를 잇는 간선봉수로서 조선 시대 봉수체계를 연계시키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 2) 석성산봉수 복원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 문화재의 원형을 복원하고 할미산성 등 기존 문화관광자원과의 연계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함

4. 과업의 범위

석성산봉수 정비계획과 기존 문화관광자원 연계방안에 대한 효율적 개발과 관리 등의 종합적 계획 수립

5. 과업지침

- 1) 석성산봉수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통한 종합정비 추진체계 설정
- 2) 석성산봉수 정밀현황조사와 병행하여 실제적인 종합정비계획 수립
- 3) 석성산봉수 일원에 대한 보호·관리방안 수립 및 교육의 장으로 활용방안 마련
- 4)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비 기본계획 수립

6. 과업내용

- 1) 고문헌 및 기존 자료 조사·정리
- 2) 유적 인근 현황조사
- 3) 유적의 구조 및 축조방법 등 규명
- 4)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비계획 수립
 - ① 유적의 보호관리방안 마련 및 향후 복원계획안 수립
 - ② 석성산 봉수에 대한 연차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방안 마련
 - ③ 석성산성 내 건물지 정밀현황조사 및 복원계획
 - ④ 정비 후 교육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방안 마련
 - ⑤ 전시관, 편의시설 등 적절한 시설계획 마련
 - ⑥ 주변 유적 및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관광자원화 방안 마련
 - ⑦ 각 항목별 방안 수립에 따른 소요예산 산출
 - ⑧ 예산 확보 및 추진을 위한 방안 수립



7. 연구진구성

- 연구책임자 : 백 종 오(충주대학교 교수)
- 연구보조원 : 강 진 주(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 자문위원
 - 최 몽 룡(서울대학교 교수)
 - 심 정 보(한밭대학교 교수)
 - 차 용 곁(충북대학교 교수)
 - 하 문 식(세종대학교 교수)
 - 이 종 민(용인문화원장)
 - 고 용 규(목포대학교 박물관 특별연구원)
 - 김 상 익(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문화재지원팀장)
 - 김 성 태(경기문화재연구원 조사연구실장)
- 연구위원
 - 이 철 영(울산과학대학교 교수)
 - 양 정 석(수원대학교 교수)
 - 김 주 흥(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문화재조사팀 과장)
- 관계협조
 - 김 장 환(용인문화원 사무국장)
 - 주 인 자(용인문화원 과장)
 - 정 양 화(향토문화연구소장)
 - 김 흥 동(용인시청 문화관광과 과장)
 - 이 봉 숙(용인시청 문화관광과 문화재담당 계장)
 - 정 명 희(용인시청 문화관광과 문화재담당)
 - 이 주 영(용인시청 문화관광과 문화재담당)



I. 현황조사

1. 용인시 일반현황

1) 자연현황

(1)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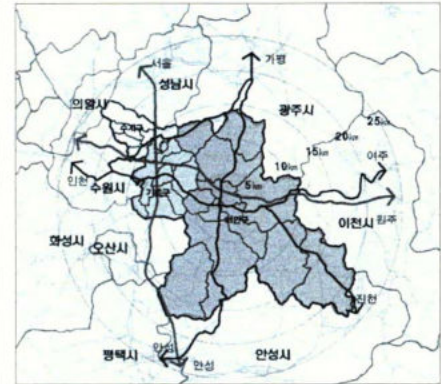


경기도 행정구역도

- 경기 남부의 중앙에 위치하며 서울의 최남단 서초구 신원동으로부터 용인시 최북단 수지출장소 고기동까지는 직선거리로 7km, 서울시청에서 용인시청까지는 약 35km에 불과하여 서울지역으로의 접근도가 양호함
- 동쪽은 이천시 도척면 상림리·추곡리 그리고 공가면 두미리와, 호법면 매곡리와 인접
- 서쪽은 수원시 장안구 하·상광교동과 팔달구 원천동·매탄동·원통동 그리고 의왕시 학의동이 접해 있음
- 북쪽은 성남시 분당구 석운동·대암동·동원동·구미동 그리고 광주시 오포면 능평리·문형리·추백리·매산리와 접함
- 남쪽은 평택시 진위면 청호리·봉남리, 원곡면 성은리·성주리와 안성시 양성면 산정리·장서리·난실리·미산리와 고삼면 쌍지리와 보현면 북가현리와 삼죽면 울곡리·내장리 등과 경계를 이룸



용인시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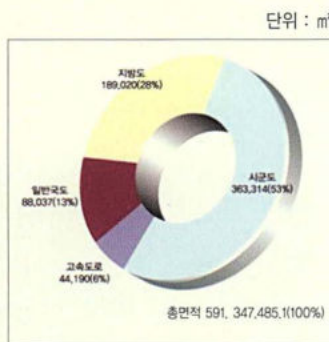




■ 수리적 위치

동 단	백암면 고안리 대우종합기술연구소 동쪽끝
	동경 127° 25' 50", 북위 37° 08' 41"
서 단	수지출장소 고기동 백운산 서쪽끝
	동경 127° 01' 05", 북위 37° 21' 12"
남 단	남사면 원암리 신선봉 남쪽끝
	동경 127° 11' 20", 북위 37° 04' 55"
북 단	수지출장소 고기동 바라산 북쪽끝
	동경 127° 01' 50", 북위 37° 22' 12"

(2)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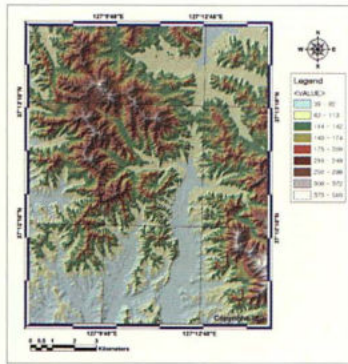


토지지목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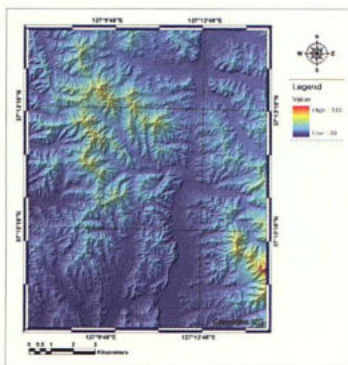
- 전 국토면적이 99,434,56km²(100%)인데 이 가운데 경기도의 총면적은 10,189,24km² 이므로 전 국토면적의 약 10.25%를 차지하고, 용인은 591.62km²이므로 전 국토면적의 약 0.5%를, 경기도 전체 면적의 약 5.8%를 차지함
- 용인은 경기도에서 8번째로 큰 지역이며, 경기도에서 면적이 가장 큰 양평군의 약 67%, 가장 작은 구리시의 약 18배에 달함
- 용인시에서 가장 면적이 큰 지역은 이동면으로 75.64km²이고 그 다음이 백암면(65.79km²), 원삼면(60.23km²), 남사면(58.63km²), 양지면(57.72km²), 모현면(50.37km²), 기흥읍(46.73km²), 수지출장소(42.01km²), 포곡면(41.79km²), 구성읍(35.15km²), 동부동(23.51km²), 유림동(14km²), 역삼동(12.48km²), 중앙동(7.97km²) 순서임
- 최근 지목별 현황은 임야(331,708km²)가 전체 용인시 면적의 56%를 차지하여 가장 많음. 그 다음이 답(79,783km²) 13%, 전(47,106km²) 8%, 체육용지 22,077km², 하천 12,641km², 도로 17,064km², 대지 31,143km², 나머지 기타가 46,803km² 순으로 나타남

(3) 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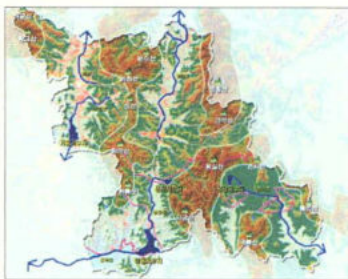
- 용인지역은 산지와 하곡지, 풍화물 침식지와 충적지가 비교적 복잡하게 분포
- 전체적으로 산지와 구릉지의 분포가 넓고 풍화물 침식지형은 그 주변에 비교적 좁게 분포하며, 충적지는 진위천·경안천·청미천·송전천·탄천·오산천 연안 등에 부분적으로 발달



고도분포도



음영기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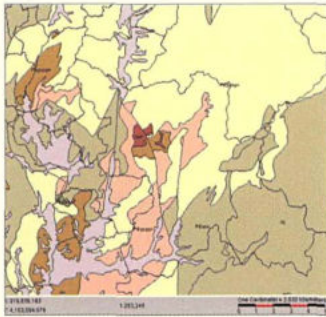


수계 및 경관 현황도

- 용인은 크게 동부와 서부의 지형이 다름. 동부의 원삼면·백암면·양지면 지역은 분지성 지형의 발달이 우세하고, 서북부에는 구릉지와 저산지 그리고 하곡지의 발달이 탁월
- 동부의 침식분지에는 충적지가 넓게 분포하고 있으나 서북부지역에는 경안천·탄천·오산천 등 일부 하천연안을 제외하면 대체로 충적지의 발달이 미약함
- 용인은 경기 남부의 대·소하천의 발원지임
- 동남부에는 유역이 넓은 미평천·대덕천·백봉천·용천천·가장천 등의 지류를 갖는 청미천이 흐르며, 동쪽에는 이천시 마장면으로 흘러드는 북하천 상류 추계천의 좁은 면적이 양지면에 포함되어 있음
- 남쪽에는 안성천의 지류인 한천이 원삼면 고당리에서 발원함
- 황구지천·오산천·어비천 등 3대 지류의 물을 모으는 진위천이 용인에서 발원하여 황해로 유입됨
- 청미천은 독조봉에서 발원하며 맹리천·평대천 등 약 10여개 지류의 물을 거두어 남한강으로 유입
- 북하천은 이천분지를 지나 이포로 해서 남한강으로 유입됨
- 용인단층 북쪽과 신갈단층 북쪽에 흐르는 경안천과 탄천은 한강 본류로 직접 유입됨
- 용인시에는 1급 하천은 없고 2급 하천이 청미천·백봉천·오산천·경안천 등 50개가 있으며, 소하천은 유방천·기천·동진천·묵동천 등 124개가 있음
- 용인지역에 나타는 반폐쇄성 분지성 지형은 대부분 동부지역에 분포함. 양지천 상류의 양지면 지역, 청미천 상류의 원삼면 지역, 청미천 중상류의 백암면 지역 등이 해당됨
- 평야는 대부분 지질구조선의 영향을 받아 발달한 곡저평야들로 계곡이나 하천 연안에 좁고 길게 전개됨
- 청미천 상류의 백암면 분지와 진위천 유역에는 하천 범람에 의한 충적지가 발달하여 비교적 넓은 들이 전개됨
- 용인시가 관리하는 저수지는 기흥읍의 지곡저수지, 이동면의 이동저수지·용덕저수지, 원삼면의 좌항 1·2 저수지 등 56개소임

(4) 지질·토양

- 기흥구의 지질은 선캄브리아기의 반상변경편마암과 규장편마암, 각섬석 흑운모편마암, 흑운모편마암으로 주로 분포됨



지질도

- 양지면의 주요 구성 암석은 선캄브리아기의 흑운모편마암과 쥐라기의 흑운모화강암과 선캄브리아기의 석영운모편암과 제4기의 충적층이 넓게 분포하며 국지적으로 아직 적게 선캄브리아기의 반상변정편마암이 분포함
- 포곡면의 주요 구성 암석은 선캄브리아기의 흑운모 편마암, 규장편마암과 제4기 충적층을 중심으로 분포
- 구성읍은 선캄브리아기의 흑운모편마암 · 규장편마암 · 반상변정편마암과 시대 미상의 각섬암 그리고 제4기의 충적층으로 이루어짐
- 수지구는 선캄브리아기의 흑운모 편마암으로 이 암석이 90%정도를 차지함. 나머지는 규장편마암과 제4기의 충적층, 시대 미상의 각섬암으로 분포
- 유림동은 선캄브리아기의 변상변정편마암과 제4기 충적층 그리고 선캄브리아기의 규장편마암이 분포함
- 역삼동은 선캄브리아기의 흑운모편마암과 규장편마암, 제4기 충적층이 분포. 중앙동 북쪽의 김장량동과 이동면은 선캄브리아기의 흑운모 편마암이 넓게 분포
- 원삼면은 쥐라기의 흑운모화강암이 제4기 충적층으로 이루어진 하천변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을 차지함
- 백암면은 쥐라기의 흑운모 화강암과 제4기의 충적층이 분포하며, 흑운모편마암도 일부 분포함
- 남사면은 선캄브리아기의 규장편마암 · 우백색편암 · 석영운모편암 · 함전기석편마암 · 제4기 충적층 등으로 이루어짐

(5) 기후

■ 용인시 평균 기상 개황

시점	평균기온	평균최고	극점최고	평균최저	극점최저	강수량	상대습도 (평균)	일조시간	바람 (평균풍속)	최대순간 풍속
2000	12	17.6	-	6	-	1782.1	49.7	2112.4	2.9	-
2001	11.5	18.2	-	6.1	-	1187.8	68.5	2360.7	2.8	-
2002	10.3	16.5	-	5.1	-	1752.5	74.2	2058.8	2.3	-
2003	11.7	17.8	32.7	6.8	-19.5	2199.5	66.2	1508.8	0.5	12.1
2004	12.2	18.8	37.6	6.7	-18	1722	81.25	1976.6	0.84167	12.5
2005	11.2	17.5	37.3	6	-18.9	1623	76.6	1745	0.9	13.2
2006	11.5	23.8	35.3	0.1	-16.9	1514.5	72	1753.5	0.9	13.8



① 기온 및 강수량

- 용인지역은 하계에는 북태평양 상에서 발달한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받고, 동계에는 시베리아 대륙에서 발달한 한랭 건조한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아 기온의 연교차가 크게 나타남
- 평균 30℃정도의 연교차가 나타는 것으로 보아 전형적인 대륙성 기후의 특징을 보여줌
- 북서쪽에 병풍 역할을 할 높은 산들이 없어 동계에 한량한 북서계절풍의 영향을 크게 받고 하계 역시 고온 다습한 남서풍·남동풍의 영향을 받음.
- 용인은 계절풍 강우대에 속하고 있어서 남동 계절풍이 탁월한 여름철에 강수량이 많고 동계에 적음
- 하우동건(夏雨冬乾)의 강우형으로 연평균 1,400~1,500mm 내외의 분포를 보임



연도별 평균기온 및 강수량

② 바람 및 습도

- 온대 계절풍 지대에 속하고 있어서 계절풍이 주풍으로 대체로 여름철에는 남서풍이 많으며 겨울에는 북서풍이 많음
- 봄철과 가을철에는 뚜렷한 방향으로 없으나 산맥 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아 나타남
- 평균 상대습도는 내륙 산간지방보다 높는데, 이것은 북서계절풍이 서해의 습한 공기를 가져오기 때문이며 가장 습한달은 7·8·9월이고 가장 건조한 달은 3·4월 달임

③ 일조시간

- 일조시간은 평균 2,240시간으로 주변의 지역보다 낮게 나타남. 이는 주변이 500m 내외의 산지에 둘러싸인 지형적 영향에서 기인된 것임
- 5월이 240시간으로 가장 높고, 3·4·5·6·7·8월이 200시간 이상이며 9·10·11·12·1·2월은 200시간 미만으로 봄·여름은 일조시간이 많고, 가을과 겨울은 적은 것으로 나타남



2) 인문자연환경

(1) 행정구역 및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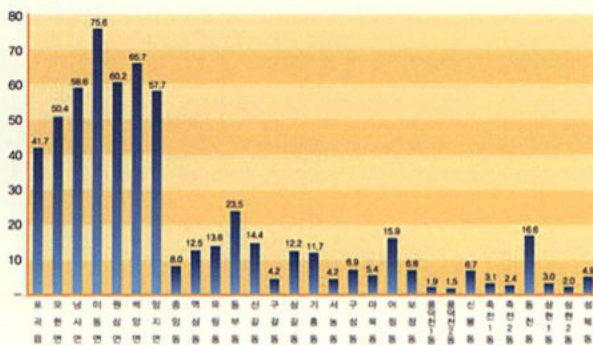
- 면적 591.32km²에 83만명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는 용인은 1996년 용인 시로 승격되었으며 이후 2005년에는 처인구·기흥구·수지구 등 3개 구청이 설치됨
- 2007년 동백동이 설치된 것을 기점으로 현재 3개구 1개읍 6면 23동 행정체제로 이루어져 있음



용인시 행정안내도 (2009년 1월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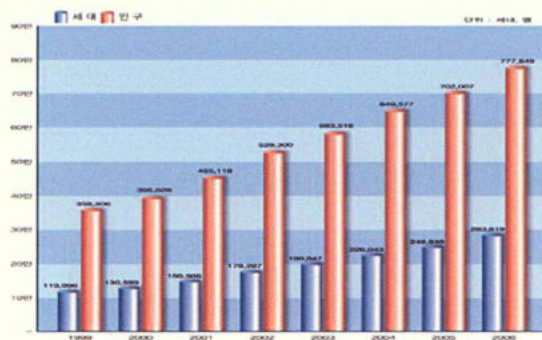
행정구역

단위 : km²



연도별 인구추이

단위 : 세대,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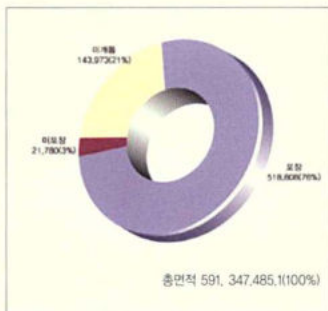
■ 행정구역 현황 (2006년)

행정명	면적	구성비	시군	비자 치구	읍	면	동 (행정)	법정	통	리 (행정)	법정	반-동	읍·면		
합 계	591.4	100	1	3	1	6	22	35	636	297	72	5144	704		
용 인 시	치안구	소 계	467.6	79.1	-	1	1	6	4	109	297	72	598	704	
		포곡읍	41.74	7.1	-	-	1	-	-	-	45	9	-	159	
		모현면	50.36	8.5	-	-	-	1	-	-	35	8	-	102	
		남사면	58.64	9.9	-	-	-	1	-	-	34	11	-	75	
		이동면	75.64	12.8	-	-	-	1	-	-	41	9	-	125	
		원산면	60.23	10.2	-	-	-	1	-	-	42	12	-	76	
		백암면	65.69	11.1	-	-	-	1	-	-	59	13	-	85	
		양지면	57.69	9.8	-	-	-	1	-	-	41	10	-	82	
		중앙동	7.97	1.3	-	-	-	-	1	2	25	-	-	114	-
		역삼동	12.46	2.1	-	-	-	-	1	2	27	-	-	172	-
		유림동	13.62	2.3	-	-	-	-	1	2	31	-	-	196	-
		동부동	23.51	4	-	-	-	-	1	4	26	-	-	116	-
기흥구	소 계	81.7	13.8	-	1	-	-	9	18	267	-	-	2200	-	
	신갈동	14.41	2.4	-	-	-	-	1	3	50	-	-	417	-	
	구갈동	4.21	0.7	-	-	-	-	1	1	23	-	-	176	-	
	상갈동	12.16	2.1	-	-	-	-	1	3	35	-	-	301	-	
	기흥동	11.7	2	-	-	-	-	1	2	13	-	-	85	-	
	서농동	4.23	0.7	-	-	-	-	1	2	8	-	-	47	-	
	구성동	6.9	1.2	-	-	-	-	1	2	18	-	-	183	-	
	마북동	5.38	0.9	-	-	-	-	1	1	23	-	-	257	-	
	어정동	15.89	2.7	-	-	-	-	1	3	67	-	-	438	-	
	보정동	6.82	1.2	-	-	-	-	1	1	30	-	-	296	-	
수지구	소 계	42.1	7.1	-	1	-	-	9	7	260	-	-	2346	-	
	풍덕천1동	1.93	0.3	-	-	-	-	1	1	26	-	-	285	-	
	풍덕천2동	1.47	0.2	-	-	-	-	1	-	29	-	-	318	-	
	신봉동	6.7	1.1	-	-	-	-	1	1	17	-	-	197	-	
	죽전1동	3.09	0.5	-	-	-	-	1	1	65	-	-	498	-	
	죽전2동	2.44	0.4	-	-	-	-	1	-	19	-	-	182	-	
	동천동	16.59	2.8	-	-	-	-	1	2	26	-	-	158	-	
	상현1동	2.96	0.5	-	-	-	-	1	1	32	-	-	261	-	
	상현2동	1.97	0.3	-	-	-	-	1	-	29	-	-	260	-	
	성북동	4.94	0.8	-	-	-	-	1	1	17	-	-	18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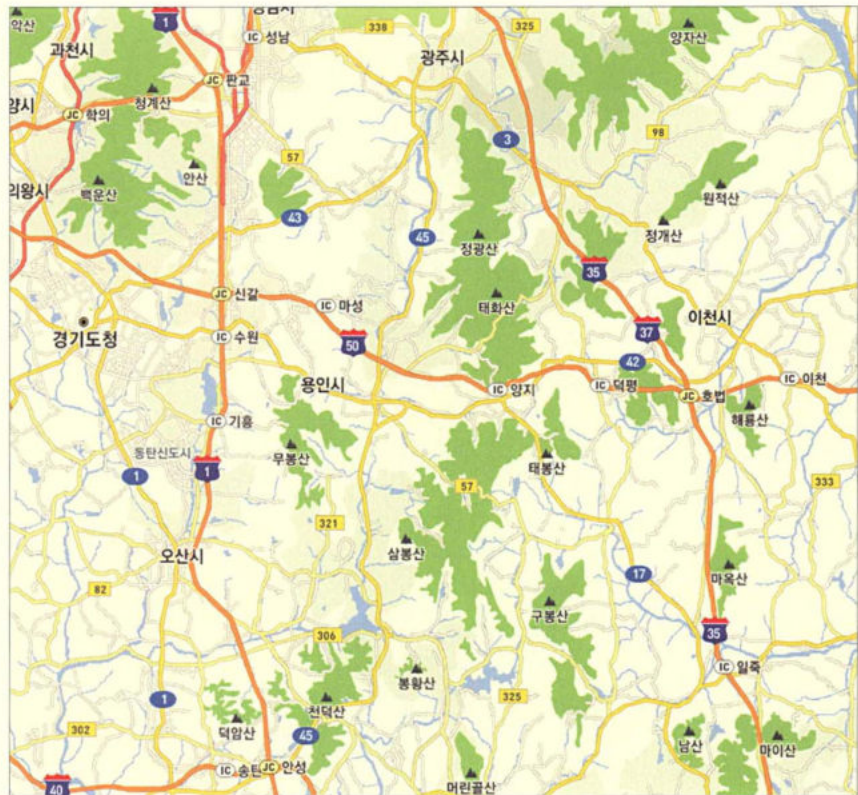


(2) 교통현황

- 신갈분기점을 중심으로 경부고속도로 및 영동고속도로가 각각 남북축 및 동서축을 이루고 있음
- 국도 17·42·43·45호선과 지방도 304·343·387호선, 국지선 23·57호선 등을 중심으로 주변지역과 유기적인 연결체계 형성
- 주변지역과의 지역간 간선도로를 형성하고 있는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함



도로현황



용인시의 교통체계

3) 역사문화환경

- 용인은 경안천과 탄천이 북류하여 한강에 유입되고 동류하는 신갈천이 진위천의 상류를 형성하는 등 소규모 하천들이 발달함
- 이 하천을 따라 충적평야 또는 침식평야가 형성되었으며 그 언저리에는 해발 100m 내외의 야트막한 구릉이 발달
- 사람이 살기좋은 지리적 환경으로 선사시대부터 많은 수의 고고유적이 자리하였으며 1996년과 2003년에 걸친 광역지표조사를 통해 많은 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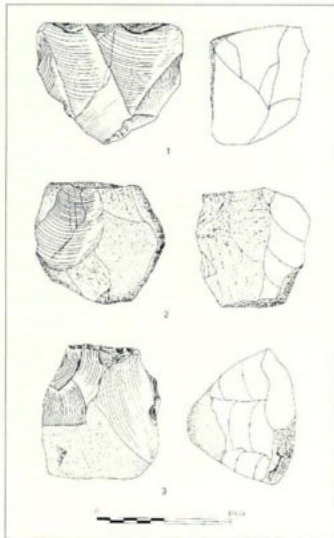


유적이 조사됨¹⁾

- 1990년 후반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대규모 택지개발공사 등의 개발과정에서 많은 수의 유적이 확인되고 있음

(1) 선사시대

① 구석기시대



남사면 봉무리 도장골 출토
구석기시대 석기류

- 구석기시대유적은 1996년 서울대학교에 의해 지표조사된 모현면 갈담리 유적에서 몸돌과 뎀석기 등의 유물이 확인되어 처음으로 구석기인들의 흔적이 보고됨²⁾
- 평창리유적의 하층 문화층에서는 상층에 비해 세석인석기의 출토예가 많지 않아 상·하문화층의 유구구성에 차이가 있어 층위간 시간적 순서 배열의 단서를 제공함³⁾
- 남사면 봉무리와 원삼면 목신리, 천4리, 이동면 덕성리, 동백유적, 수지읍 죽전1리, 구성면 보정리 등에서 구석기가 채집되어 현재까지 조사보고된 유적은 15개 지점임⁴⁾

② 신석기시대

- 구석기시대에 비해 적은 수가 조사되었으나 구성읍 보정리와 기흥읍 신갈리에서 출토된 유물과 용인지역의 자연지리적 환경을 고려해볼 때 좀 더 많은 수의 유적이 확인될 여지가 있음
- 보정리에서 약간의 인공을 가한 타제석기 3점과 날만 갈아 만든 2점의 반마제석기가, 신갈리에서 유구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빗살무늬토기편이 다수 출토됨⁵⁾
- 토지박물관의 광역지표조사에서 빗살무늬토기 산포지 3곳이 확인됨⁶⁾

1) 서울대학교박물관에서는 85개 유적을 조사하였고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에서는 신규조사 유적 135개를 더해 총 577개 유적을 조사하였다.

최몽룡·이현중·오세연, 1996, 『용인시의 문화유적-용인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서울대학교박물관, 토지공사 토지박물관, 2003, 『용인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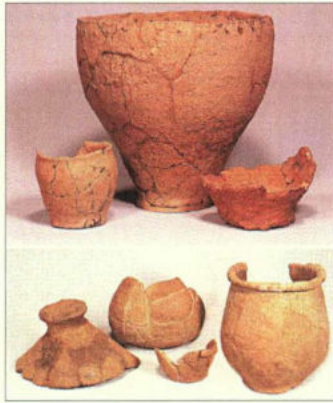
2) 최몽룡·이현중·오세연, 1996, 앞의 책.

3) 이성복·유용욱·성춘택, 2000, 『용인 평창리 구석기유적 발굴조사보고서』, 경기도박물관·서울대학교고고미술사학과.

4) 김기태, 2002, 「서울·경기도지역 구석기유적 조사의 현황과 과제」, 『고고학』 1, 서울경기고고학회, 7~37쪽.

5)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2003, 앞의 책, 259·654·705쪽.

6)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2003, 앞의 책, 259·654·705쪽.



용인 대덕골 유적 출토
청동기시대 토기류

③ 청동기시대

- 청동기시대유적은 용인의 전지역에서 고르게 조사되었는데, 특히 경기남부지역 중에 비교적 많은 수의 고인돌과 선돌이 확인되는 특징이 있음
- 고인돌은 15개 지역에서 37기가 조사되었으며 북방식과 남방식이 혼재된 양식임
- 선돌은 5곳에서 10기가 조사됨
- 풍덕천의 임진산성⁷⁾과 남사면 봉명리유적⁸⁾ 그리고 죽전동 대덕유적⁹⁾ 등에서 수혈식 주거지가 확인됨. 이들 주거지는 모두 나지막한 구릉의 사면에 위치하며 방형 또는 장방형의 평면형태를 보이고 있음. 유물구성은 공렬문 토기, 원형점토대토기, 팽이형토기와 석촉, 방추차, 반달돌갈 등
- 구성읍 보정리·포곡면 전대리·내사면 정수리 등에서 마제석부 출토
- 남동 옥현부락에서 반달 돌갈이, 포곡면 유운리·남사면 창리 등에서 마제석검이, 남동과 원삼면 두창리에서는 마제석촉이 발견됨¹⁰⁾
- 모현면 초부리에서는 세형동검의 용범이 3개 출토

(2) 고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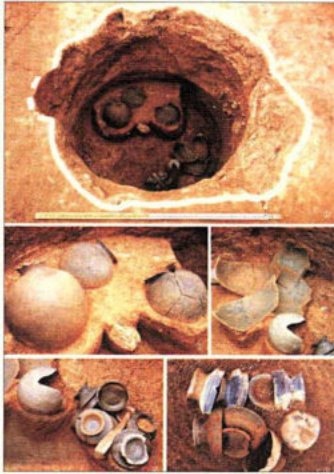
- 백제가 서울 일대를 중심으로 한강 하류유역에 국가를 세우기 이전에 선주 토착세력이 나름의 정치적 발전을 이루고 있었음
- 이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한강하류 일대의 청동기-무문토기 출토 유적을 통해서 확인
- 철기가 본격적으로 사용되면서 한반도 중남부 일대에 수많은 소국이 성립되고 이들이 마한·변한·진한의 삼한을 구성하게 되는데, 그중 용인 지역은 마한에 속함
- 『삼국지』 기사에 마한의 인구가 1만여가를 넘는다고 하였는데, 마한의 맹주국인 마한이나 백제국이므로 서울지역과 남쪽으로 가장 근접해 있는 광주 일대와 용인이 일찍부터 백제의 세력권안으로 편제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큼

7) 이인숙·백종오, 2000, 『용인 임진산성』, 경기도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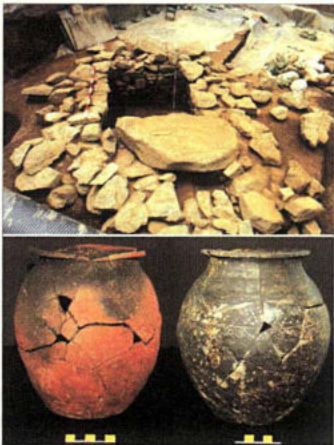
8) 기전문화재연구원, 2000, 『용인 봉명리 공장부지 시굴조사약보고서』.

9) 기전문화재연구원, 2001, 『용인 죽전 택지개발예정지구 죽전리대덕골 및 도기가마유적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

10) 국립중앙박물관, 1998, 『용인군 지표조사』, 『신암리』 1.



청덕리 백제 수혈유구



용인 보정리 고구려 석실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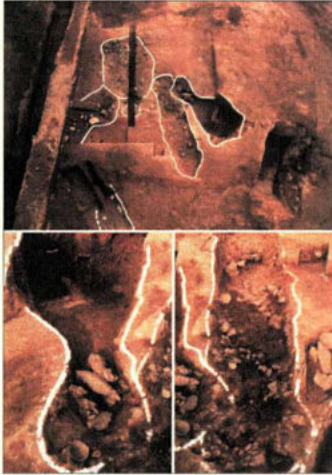


함미산성 출토 신라토기류

- 백제가 기원전 전후한 시기에 한강유역에 건국되는데, 지리적으로 가까운 용인이 건국의 중요한 기반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음
- 용인지역과 백제와의 관계에 대한 자료를 미진한 실정이나, 고고자료가 확보됨에 따라역사상이 보다 풍부해지리라 예상됨
- 백제와 관련된 유적은 풍덕천동에서 4세기 후반~5세기 전반으로 편년되는 수혈지와 토광으로 구성된 소규모 취락이, 구갈리에서는 3~4세기대의 주거지와 토실유구가 발굴됨. 임진산성에서도 파괴된 주거지 일부가 조사되었는데, 3세기 말정도로 추정. 보정리에서는 백제~조선시대까지의 복합유적이 확인됨. 죽전동에서는 20여기의 토강묘가 조사되었으며 마북리에서는 4세기 후반~5세기 전반으로 편년되는 환두대도가 부장된 주구목관묘가 확인됨. 이밖에 언남리·청덕리 등지에서도 백제토기편들이 수습되고 있어 유적의 수가 증가추세에 있음
- 4세기에 접어들어 고구려가 남진을 시작면서 한강유역의 세력판도가 달라지게 됨. 『광개토태왕비』에 의하면 396년에는 광개토태왕이 백제를 정벌하여 58성 700촌을 공파한 후, 백제 아신왕의 항복을 받아냄. 이후, 472년 장수왕이 한성백제를 함락함으로써 백제는 사비로 천도를 하게됨. 이 동안 용인은 고구려의 세력권에 들어가게된 것으로 추정되며, 『삼국사기』 지리지에 한산군의 영현인 구성현이라는 지명이 등장하는데 이것이 최초의 용인 지방의 명칭으로 추정됨
- 고구려에 있어 구성현 즉 용인지역은 남하의 중요 거점으로 기능하였으리라 보이며, 婁肖라는 지방관을 파견하여 다스려졌던 것으로 추정됨
- 551년 백제와 신라가 동맹을 맺어 고구려에 대항하여 백제는 한강 하류의 6군을 수복하였으며, 신라도 죽령 이북 한강 이북의 한강 상류 10군을 차지함. 그러나 553년 신라가 백제를 배신하고 한강 유역을 탈취하였으며 이후, 분개한 백제가 신라와 벌인 554년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 성왕이 전사함
- 한강유역을 차지한 후 맨처음 신주를 설치하였는데, 이때 용인지역은 신라의 신주 소속이었을 것임
- 그러나 군사적 정치적 정세에 따라 주의 치폐가 거듭되었는데, 이 변화속에서 용인도 신주에서 북한산주로 그리고 남천주를 거쳐 다시 북한산주로 변화되었을 것임. 신라가 북진하던 시기의 용인은 교통로상의 중간 거점으로서의 기능했을 것으로 추정



(3) 남북국시대



용인 성북동 통일신라 요지

- 신라는 확대된 영역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신문왕대에 9주 5소경제가 정비됨
- 9주 중 고구려의 옛 땅에 설치한 한산주의 치소는 지금의 광주지역으로 황해도·경기도·충청도일부를 포괄하는 가장 넓은 지역에 해당됨
- 용인은 경덕왕대까지 고구려 때 설치된 구성현이 지속되다가 경덕왕의 한화정책에 따라 거서현으로 바뀌게 됨
- 이 때 새로 정비된 군사조직인 9서당·10정·5주서는 9주 5소경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개편됨. 이중 10정은 지방에 배치된 가장 중요한 군사조직으로써 지방행정구역인 9주와 관련 되어 각 주에 하나의 정이 설치됨. 그러나 한산주는 지역이 넓고 국방상의 요지였기 때문에 남천정과 끝내근정이 배치됨. 구성현은 이때 남천정과 깊이 연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
- 이 시기 용인지역의 불교유적은 이동면 목리의 용덕사, 외사면 박곡리의 박곡사, 포곡면 가실리의 백연암 등의 절터가 있으며, 통일신라 양식의 불상으로는 원삼면 목신리 신촌부락의 석조여래 입상, 박곡사지 석불입상, 이동면 천리 적동 저수지입구의 석조여래입상, 기흥면 공세리 탑안부락의 석조여래좌상, 백련암 석조여래좌상 등이 있음. 또 1984년 원삼면 학일리에서 금동여래입상이 용인지역에서는 유일하게 확인됨
- 고분유적은 운학동·유방동·식금리·언남리·죽전동·보정리·동백리·전대리 등에서 다수의 석실분과 석곽묘가 확인됨. 이중 보정리에서는 6세기 후반부터 해당되는 석곽묘 25기 등 총 100여기의 고분이 소설봉의 남쪽과 북쪽 사면에서 조사됨
- 이외, 통일신라의 건물지와 유물산포지가 다수 확인되었으며 성북동에서는 도기가마가 발굴되기도 함

(4) 고려시대

- 918년 송악의 호족 출신인 왕건이 궁예를 내쫓고 왕위에 올라 고려를 건국하면서 용인은 고려의 영토가 됨
- 왕건은 호족과 연합하여 정권을 운영하는데, 용인지방의 유력한 호족으로는 이길권이 있음
- 고려초 각 지방의 군현 명칭이 바뀌는데, 용인은 940년(태조 23)에 거서현에서 용구현으로 개칭됨



용인 보정리 청자요지



서봉사 현오국사탑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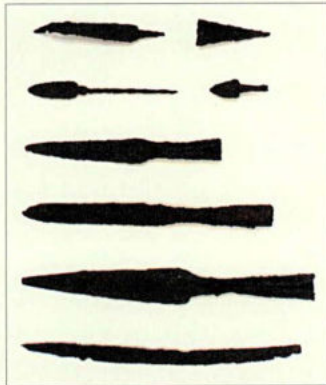
- 그뒤 1018년(현종 9)에 4도호·8목·56지주군사·28진장·20현령으로 지방제도가 개편되어사실상의 고려 지방제도가 완성됨. 당시, 모든 속군과 속현에 지방관이 파견되지 못하였었으며 주군이나 주현에 속하여 간접적인 통제를 받음, 이때 용구현은 광주목의 임내 속현이 됨
- 1172년(명종 2)에 용구현에 감무가 파견되었는데, 이는 용구현의 지위가 올라갔음을 의미. 뒤에 다시 현령으로 승격되어 비로소 용인이 독립된 현의 면모를 갖추게됨
- 몽고의 2차 침입시 처인성(남사면 마곡리)에서 적장 살리타이를 김윤후가 사살하여 몽고군을 퇴각시켜 대몽항쟁 중 가장 큰 승리를 거둠
- 고려 말에는 왜구의 침입이 잦았는데, 용인의 왜구 침구 기사는 1378년(우왕 4)기사가 유일함. 이해 5월에 수원·용구 등을 침입하여 10여명을 사로 잡았다고 함
- 고려시대 문화유적은 대부분 분묘유적으로 내산면 식금리 야산에 고려시대 석실분이 산재해 있으며, 구성면 마북리에서도 고려시대 분묘가 조사되고 원삼면 좌항리에서는 고려시대 분묘 16기와 숯가마 1기가 발굴 조사됨
- 불교유적은 수지구 신봉동의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보물 제9호)와 골세리 5층석탑, 탑안 마을의 석불좌상, 어비리 4층석탑, 가창리 부도, 미평리 약사여래입상 등이 있음
- 서리 중덕마을에 고려백지요지가 확인되는데, 이곳은 고려백지 발생 및 전개 상황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음. 또 서리 상반 고려백지요지 역시 초기백자의 생산지로써 찾아보기 힘든 몇 안되는 중요한 유적임

(5) 조선시대

- 조선 건국직후 현재의 용인을 형성하는 영역은 각기 용구현, 처인현, 양지현, 죽산현은 충청도에 소속함
- 한양으로 천도하면서 현재의 경기도 권역을 개편하여 광주·수원·양근·쌍부·용구·처인·이천·천녕·지평 등을 경기도에 귀속함
- 이후, 태종대에 들어와 종래의 경기 좌·우도를 경기도로 합쳐부름으로써 1414년에 8도 체제가 완성됨. 8도 밑에는 약 350개군·현을 두었으며, 각 군·현에는 왕명을 대행하는 수령을 파견하여 행정·사법·치안의 책임을 지고 직접 주민을 통치하게 함
- 용인현은 1413년(태종17)에 용구현과 처인현을 병합하여 재편된 행정구



임진산성 출토 총통



임진산성 출토 각종 무기류

역. 용구현에 읍치가 설치되고 처인현의 관리와 노비가 용구현으로 이주되면서 수령의 통치를 직접 받게되는 직촌으로 개편됨

- 군사적으로는 용인현의 수원진영에 소속되었으며 남양부에서 관할함
- 수원진에서 부속된 당시에는 16개 면의 관원을 다스리는 현령, 종5품으로 보하였으며, 이외에는 훈도 1명을 둠
- 임진왜란이 발발하여 충주에서 승리한 왜군은 북상하여 한성을 점령하게 됨. 이때 기승청정군이 서쪽으로 진출해 죽산, 양지와 용인을 거쳐 한성에 침입함
- 서울 수복하기 위해 하삼도 관군이 북상하여 왜군사이에 치열한 격전이 벌어짐
- 왜군이 광교산 일대에서 준둔해있던 하삼도 삼군을 기습하여 크게 승리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한 유적으로 수지 풍덕천동의 임진산성¹¹⁾이 있음. 이외에 인근의 마북리¹²⁾와 보정리¹³⁾에서 총통이 출토됨
- 1789년(정조13)에 작성된 『호구총수』에 의하면 당시 용인현에는 16개면 54개리로 편제되었는데, 고종9년에 작성된 『용인현읍지』에도 그대로 이어짐
- 명성황후 시해 이후, 1896년(건양1)에 8도제에서 강원도를 제외한 가도를 남북으로 나누어 관할 구역을 13도제로 재종하고 각 군의 등급도 재조정함. 용인군은 경기도 관할로 편성되고 4등군으로 지정됨
- 이후 1906년(광무10) 1수부, 13도, 11부, 332군으로 개정된 후 한일합방까지 유지됨

(6) 근대

- 1910년 8월 조선을 강제로 병합한 일본은 1913년 12월 29일에 공포되고 이듬해 3월 1일에 시행한 조선총독부 부령 제111호 '도의 위치 관할구역 및 부군 명칭 위치 관할구역'에 따라 각도의 관할 구역과 부군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이 대폭정리되었는데, 대체로 오늘날의 지방행구역의 명칭과 규모가 이 때 만들어진 것임

11) 경기도박물관, 2000, 『용인 임진산성』.

12) 한신대학교 박물관, 1998, 『용인 구성면 마북리 삼호건설 아파트사업부지 문화유적 시굴조사요약보고서』.

13) 문화재관리국, 1989, 『중요발견매장문화재도록』 2.



- 일제강점기하의 행정구역 개편의 주된 내용은 부군의 구역을 개편하고 군의 수를 대폭 감축하는 것으로 용인은 크게 확장되어 내사면·원삼면·외사면이 편입됨
- 1914년의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용인군은 수여면·포곡면·모현면·읍삼면·수지면·기흥면·남사면·이동면·내사면·고삼면·외사면·원삼면 등 12개 면으로 구성
- 일본에 의한 행정구역 개편은 식민지와 수탈의 편리를 위한 것으로 용인을 동서로 관통하는 수원~용인~이천 간 신작로를 건설함
- 1938년 수여면을 용인면으로 개칭하고 읍삼면을 고구려 때의 초명이던 마성면으로 개칭함

(7) 현대

- 해방이후 1963년 고삼면이 안성군으로 편입되어 11면을 줄어 들고 1979년에는 군청소재지가 있던 용인면이 용인읍으로 승격됨
- 1983년에는 수지면의 하리와 이의리가 수원시로 편입되고, 남사면 진목리의 월경마을이 평택시로 편입됨
- 1985년에는 기흥면이 읍으로 승격되고, 1996년 용인읍이 없어지고 4개의 동으로 나뉘어짐
- 2000년에는 구성면이 읍으로 승격되고, 2001년에는 수지읍이 출장소 승격됨
- 2005년에 처인구·기흥구·수지구 등 3개의 구청이 설치되고 2007년에는 동백동이 설치되어 현재 3개구 1개읍 6면 23동 행정체제로 이루어져 있음



4) 문화유적

■ 지정문화재 현황 1

국가지정			소계	도지정					소계	시지정	합계
무형 문화재	보물	사적		유형 문화재	무형 문화재	기념물	민속 자료	문화재 자료		향토 유적	
1	9	1	11	11	1	13	1	13	39	50	100

■ 지정문화재 현황 2

번호	지정 주체	명칭	유형 및 지정번호	시대	종류	소재지	지정일
1	대한민국	한지장	무형문화재 제117호	·	기능	수지구 신봉동 54-1	2005.9.23
2		서봉사 현오국사탑비	보물 제9호	고려	비갈	수지구 신봉동 산111	1963.1.21
3		쇄미록	보물 제1096호	고려	서책	처인구 모현면 오산리 98-1	1991.9.30
4		유수영정병함	보물 제1176호	조선	회화	경기도박물관	1992.11.17
5		오명항영정병함부양 무공신교서	보물 제1177호	조선	회화	기흥구 마북동 245	1993.11.5
6		남은유서분재기 부남재왕지	보물 제1173호	조선	서지	처인구 모현면 갈담리 521	1993.9.10
7		청원군심대호성공신교서	보물 제1175호	조선	서지	경기도박물관	1993.11.5
8		이십삼상대회도 및 김종신 교지	보물 제1406호	조선	서지	경기도박물관	2004.5.7
9		송언신 영정	보물 제941-2호	조선	회화	경기도박물관	2004.5.7
10		이중로 영정	보물 제1174-2호	조선	회화	경기도박물관	2004.5.7
11		서리 고려백지요지	사적 제329호	고려	요지	처인구 이동면 서리 산23-1	1989.1.10
12	경기도	용인 화운사 목조여래(아미타, 약사) 좌상	유형문화재 제200호	조선 후기	목조	처인구 삼가동 33-1	2006.6.19
13		용인 할미산성	기념물 제215호	신라	산성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 산23-1	2006.8.25
14		심곡서원	유형문화재 제7호	조선	서원	수지구 상현동 203-2	1972.5.4
15		충렬서원	유형문화재 제9호	조선	서원	처인구 모현면 능원리 118-1	1972.5.4
16		체제공선생 뇌문비	유형문화재 제76호	조선	비갈	처인구 역북동 산3-12	1978.11.10
17		문수산 마애보살상	유형문화재 제120호	고려	마애불	처인구 원삼면 문촌리 산 25	1984.9.12
18		현수제송법수	유형문화재 제169호	조선	서책	경기도박물관	1978.11.10
19		이인엽 영정	유형문화재 제191호	조선	회화	경기도박물관	2003.9.9
20		요지연도	유형문화재 제192호	조선	회화	경기도박물관	2003.9.4
21		어비리삼층석탑	유형문화재 제194호	신라	석탑	처인구 이동면 어비리 산99-2	2004.11.29
22		군포당정옥로주	유형문화재 제12호	·	기능	백암면 박곡리 169	1994.1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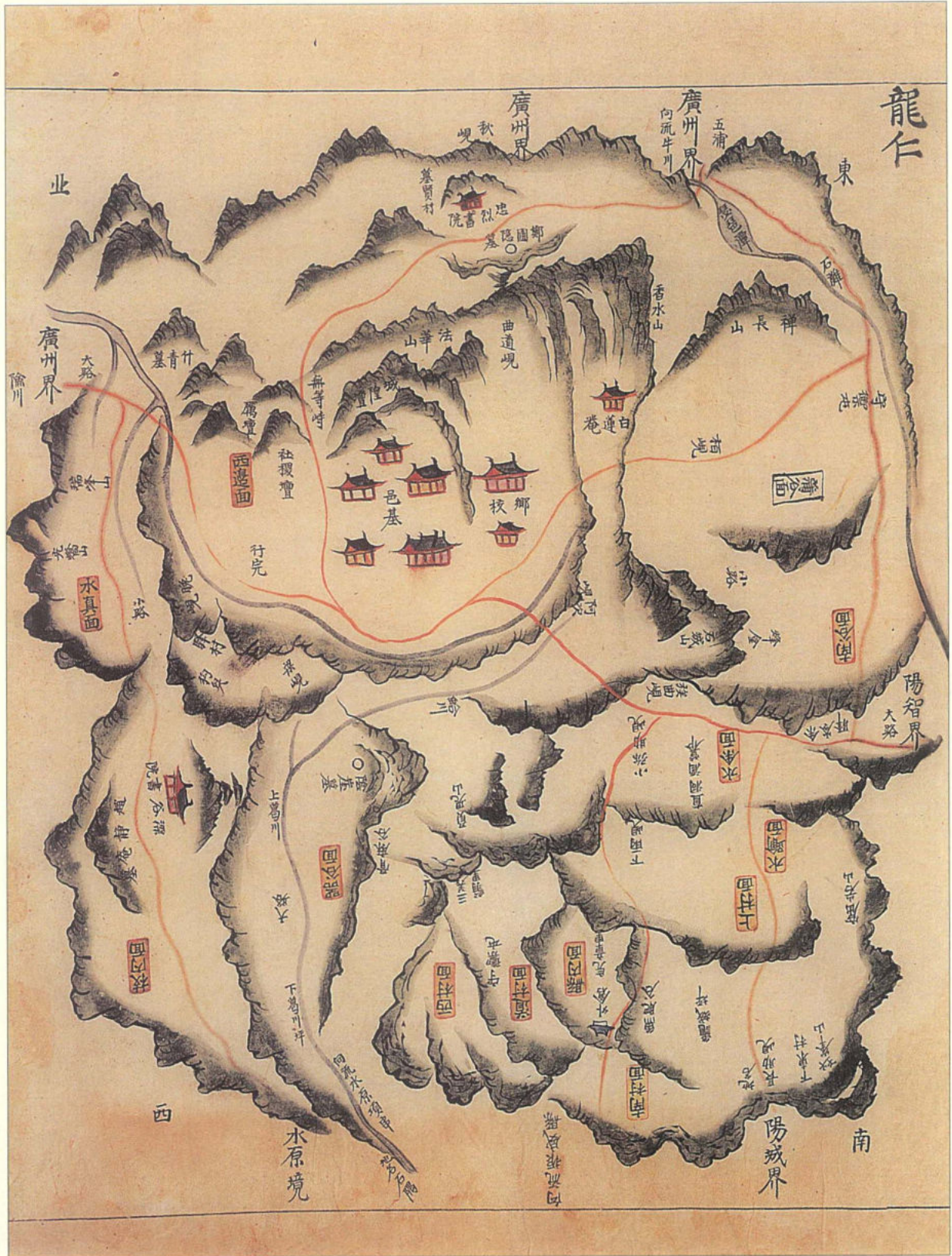
번호	지정 주체	명칭	유형 및 지정번호	시대	종류	소재지	지정일
23	경 기 도	약기장	무형문화재 제30호	·	기능	기흥구 보라동 271-4	
24		정몽주 선생 묘	기념물 제1호	고려	분묘	처인구 모현면 능원리 산3	1972.5.4
25		심대장군 묘	기념물 제3호	조선	분묘	처인구 남사면 완장리 산119-1	1972.5.4
26		채제공 선생 묘	기념물 제17호	조선	분묘	처인구 역북동 산5	1974.7.10
27		민영환 선생 묘	기념물 제18호	대한 제국	분묘	기흥구 마북동 산36	1974.7.10
28		모현 지식묘	기념물 제22호	청동기	분묘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498	1974.9.26
29		이종무 장군 묘	기념물 제25호	조선	분묘	수지구 고기동 산79	1975.9.5
30		유형원 선생 묘	기념물 제32호	조선	분묘	처인구 백암면 석천리 산28-1	1976.8.28
31		처인성	기념물 제44호	고려	산성	남사면 아곡리 산43	1977.10.13
32		오윤겸 선생 묘	기념물 제104호	조선	분묘	처인구 모현면 오산리 산5	1988.3.1
33		문정공 조광조묘 및 신도비	기념물 제169호	조선	분묘	수지구 상현동 산55-1	1999.10.18
34		저현 이석형묘 및 신도비	기념물 제171호	조선	분묘	처인구 모현면 능원리 산3	2000.6.12
35		음애 이자 묘역	기념물 제172호	조선	분묘	기흥구 지곡동 산11-17	2000.6.12
36		전음애 이자 고택	민속자료 제10호	조선	건물	기흥구 지곡동 297-2	1997.12
37		양지향교	문화재자료 제23호	조선	건물	처인구 양지면 양자리 379	1975.2.5
38		공세리 5층석탑	문화재자료 제42호	고려	석탑	기흥구 공세동 264	1983.9.19
39		미평리 약사여래입상	문화재자료 제44호	고려	석불	처인구 원삼면 미평리 66-4	1983.9.19
40		주북리 지식묘	문화재자료 제49호	청동기	분묘	처인구 양지면 주북리 825	1983.9.19
41		창리 선돌	문화재자료 제61호	청동기	선돌	처인구 남사면 창리 487-1	1985.6.28
42		목신리 석조여래입상	문화재자료 제62호	미상	석불	처인구 원삼면 목신리 7	1985.6.28
43		분청사기 도요지	문화재자료 제65호	조선	요지	처인구 백암면 고안리 산53-2	1985.6.28
44		맹리 지식묘	문화재자료 제68호	청동기	분묘	처인구 원삼면 맹리 234	1985.9.21
45		공안공정옥형 · 충정공정응두 신도비	문화재자료 제91호	조선	비갈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 산37-1	1996.12.12
46		문간공 김세필 묘역 일원	문화재자료 제92호	조선	분묘	수지구 죽전동 산22,23,26~7	1999.4.2
47		이주국 장군 고택	문화재자료 제96호	조선	건물	처인구 원삼면 문촌리 414-4	2000.4.11
48		용덕사 석조여래입상	문화재자료 제111호	신라	석불	처인구 이동면 묵리 산57	2002.9.16
49		최유경 묘역	문화재자료 제120호	조선	분묘	기흥구 공세동 산1-1	2003.4.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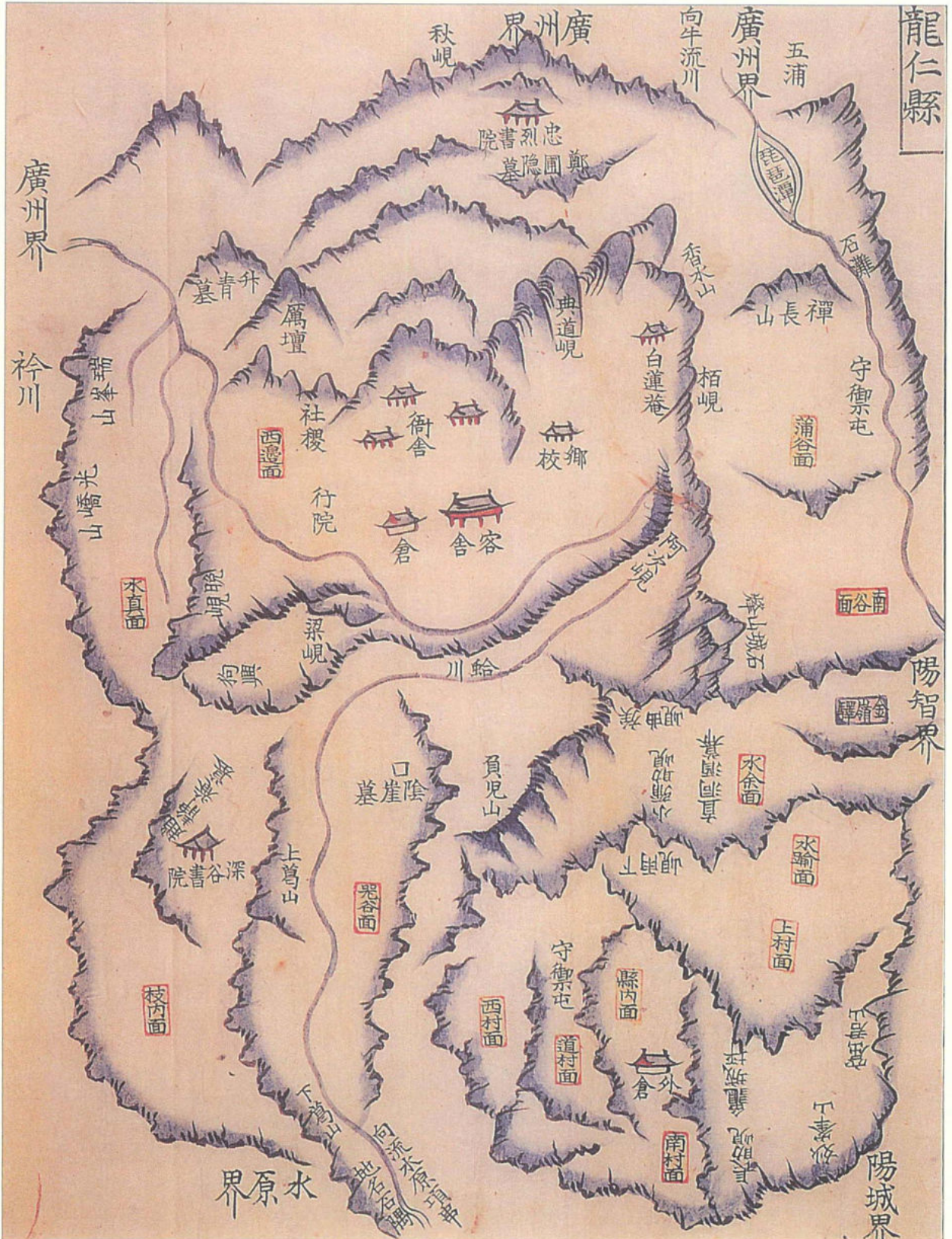
번호	지정 주체	명칭	유형 및 지정번호	시대	종류	소재지	지정일
50	용 인 시	용인향교	향토유적 제1호	조선	건물	구성읍 언남리 335	1986.5.31
51		오달제선생묘 및 대낭장비	향토유적 제3호	조선	분묘	모현면 오산리 산45-14	1986.5.31
52		이주국 묘 및 신도비	향토유적 제4호	조선	분묘	원삼면 문촌리 산35-1	1986.5.31
53		남구만선생묘	향토유적 제5호	조선	분묘	모현면 초부리 산1-5	1990.11.22
54		남구만초상	향토유적 제6호	조선	회화	모현면 갈담리 552	1990.11.22
55		조중회묘	향토유적 제7호	조선	분묘	원삼면 학일리 산49-1	1990.11.22
56		풍창부부인 조씨묘	향토유적 제9호	조선	분묘	구성읍 상하리 산46-32	1990.11.22
57		오명항선생묘	향토유적 제12호	조선	분묘	모현면 오산리 산5	1990.11.22
58		정몽주 영정	향토유적 제13호	고려	회화	모현면 능원리 118-1	1990.11.22
59		오도일 영정	향토유적 제14호	고려	회화	모현면 오산리 39	1990.11.22
60		유순정 영정	향토유적 제15호	조선	회화	모현면 일산리 276	1990.11.22
61		유홍 영정	향토유적 제16호	조선	회화	모현면 일산리 276	1990.11.22
62		연안부부인 전씨묘	향토유적 제18호	조선	분묘	구성읍 마북리 산2-4	1990.11.22
63		두창리 삼층석탑	향토유적 제19호	고려	석탑	원삼면 두창리 1447-2	1990.11.22
64		이일장군 묘	향토유적 제21호	조선	분묘	모현면 매산리 산108-1	1990.11.22
65		사암리 선돌군	향토유적 제22호	청동기	분묘선돌	원삼면 사암리 753-2	1990.11.22
66		가창리 부도	향토유적 제23호	여말	선초부도	백암면 가창리 산56-2	1990.11.22
67		허계·허선 초상	향토유적 제24호	조선	회화	원삼면 맹리	1992.10.12
68		허적 초상	향토유적 제25호	조선	회화	원삼면 맹리	1992.10.12
69		충렬서원중수록	향토유적 제26호	조선	서책	모현면 능원리 118-1	1992.10.12
70		충렬서원선생안	향토유적 제27호	조선	문서	모현면 능원리 118-1	1992.10.12
71		진화 묘	향토유적 제31호	조선	분묘	남사면 원암리 산38	1992.10.12
72		이에·경신공주 묘	향토유적 제32호	조선	분묘	포곡면 신원리 산40-11	1992.10.12
73		오희문 묘	향토유적 제34호	조선	분묘	모현면 오산리 산5	1992.10.12
74		이재 선생묘	향토유적 제35호	조선	분묘	이동면 천리 산58	1992.10.12
75		양천 허씨 노비분재기	향토유적 제36호	조선	문서	원삼면 맹리 294	1992.10.12
76		홍계희 묘	향토유적 제37호	조선	분묘	모현면 일산리 산2-1	1992.10.12
77		두창리 선돌	향토유적 제39호	청동기	선돌	원삼면 두창리 1444	1997.12.10
78	황림 묘	향토유적 제40호	조선	분묘	수지구 고기동 산14	1997.1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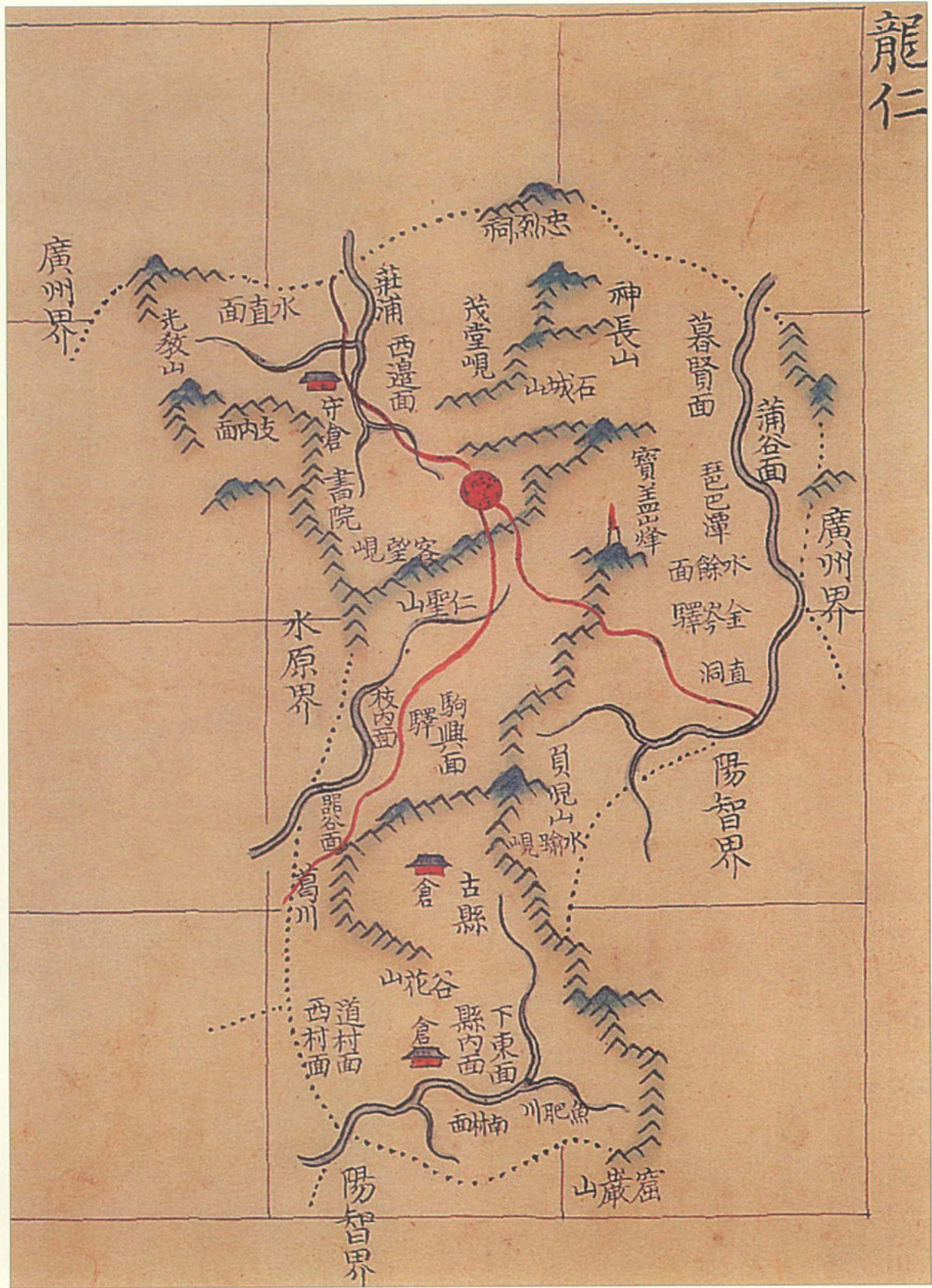
번호	지정 주체	명칭	유형 및 지정번호	시대	종류	소재지	지정일
79	용 인 시	유복립 정려각	향토유적 제41호	조선	건물	양지면 송문리 452-4	1997.12.10
80		운학동 돌무지	향토유적 제42호	미상	석축	운학동 141	1997.12.10
81		운학동 돌방무덤	향토유적 제43호	삼국	분묘	운학동 산11-1	1997.12.10
82		운학동 돌무지군	향토유적 제44호	미상	석축	운학동 산11-1	1997.12.10
83		서리 상반백자요지	향토유적 제45호	고려	요지	이동면 서리 산163	1997.12.10
84		이경증 신도비 및 묘	향토유적 제46호	조선	분묘	기흥읍 영덕리 산68-16, 21	1997.12.10
85		정윤복·정호선 묘 및 신도비	향토유적 제47호	조선	분묘	포곡면 전대리 산21-3	1999.1.21
86		남양 흥씨 시정공파 무관묘역	향토유적 제48호	조선	분묘	구성읍 중리 산16	1999.7.14
87		이한응 열사 묘	향토유적 제49호	대한 제국	분묘	이동면 덕성리 산70-1	1999.7.14
88		사은정	향토유적 제50호	조선	건물	기흥읍 지곡리 산45-1,2	2001.3
89		이완 묘 및 정려각	향토유적 제51호	조선	분묘	수지구 고기동 산20-1	2001.4.18
90		마북리 석불입상 및 석탑	향토유적 제52호	조선	석조	기흥구 마북동 330-1	2001.4.18
91		약천선생 별묘	향토유적 제53호	조선	분묘	처인구 모현면 갈담리 521	2001.12.20
92		의령남씨 문중고문서 일괄 9건	향토유적 제54호	조선	문서	처인구 모현면 갈담리 521	2001.12.20
93		목신리 보살	향토유적 제55호	·	석조	처인구 원사면 목신리 147-2	2001.12.20
94		이숙기 묘	향토유적 제56호	조선	분묘	처인구 남사면 마곡리 산6-1	2004.1.19
95		이백지 묘	향토유적 제57호	조선	분묘	처인구 포곡읍 가실리 산12-3	2006.7.31
96		치성광 여래도	향토유적 제58-1호	1938	회화	처인구 백암면 근곡리 331-5	2007.3.30
97		신중탱화	향토유적 제58-2호	1938	회화	처인구 백암면 근곡리 331-5	2007.3.30
98		목계 유복립 묘	향토유적 제59호	조선	분묘	양지면 송문리 산16	2007.8.17
99	이중인 선생 묘	향토유적 제60호	조선	분묘	기흥구 영덕동 산8	2007.8.17	
100	소조 독존 나한상	향토유적 제61호	조선	소조	처인구 김량장동 산33-25	2007.8.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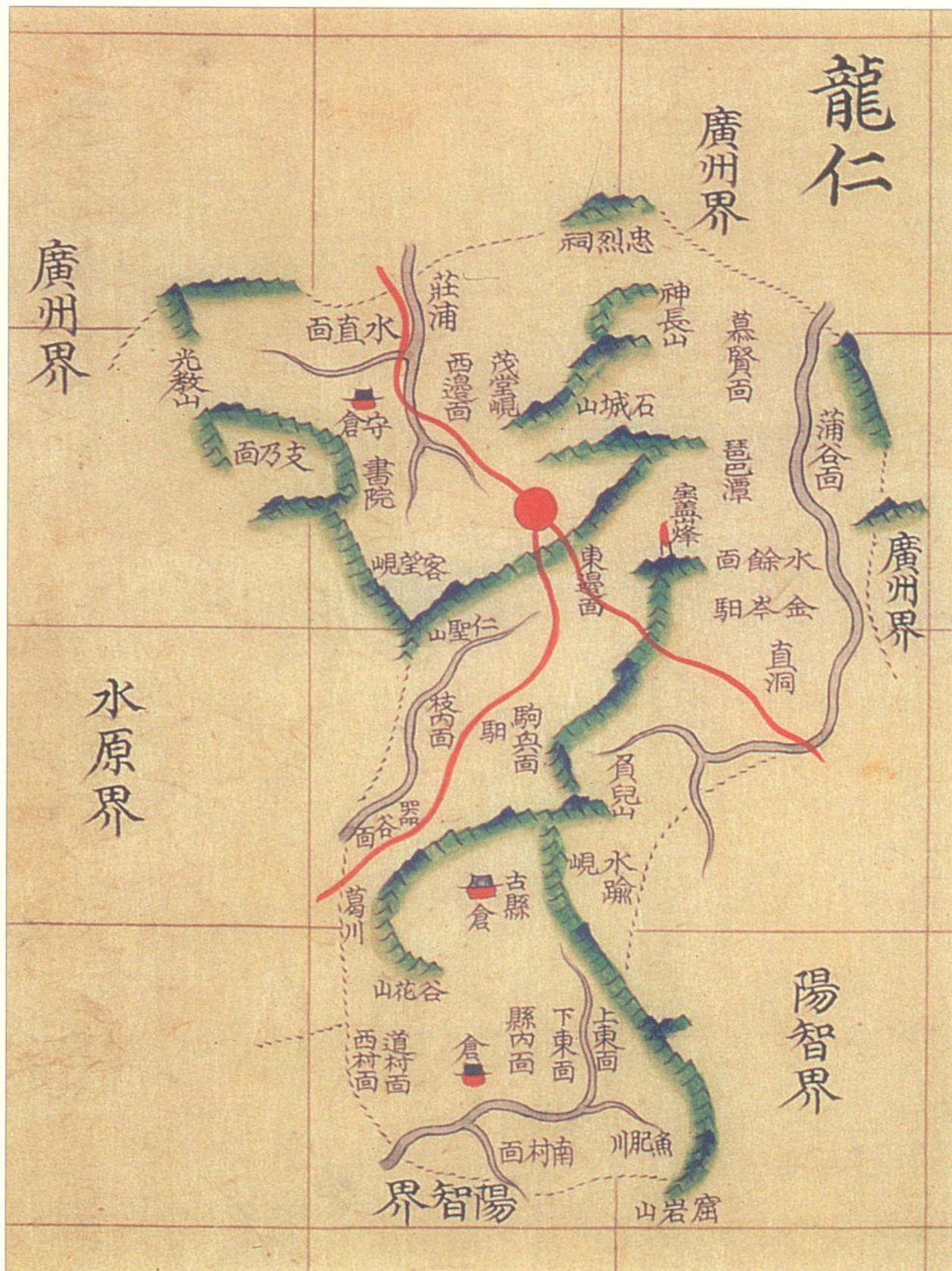
해동여지도(17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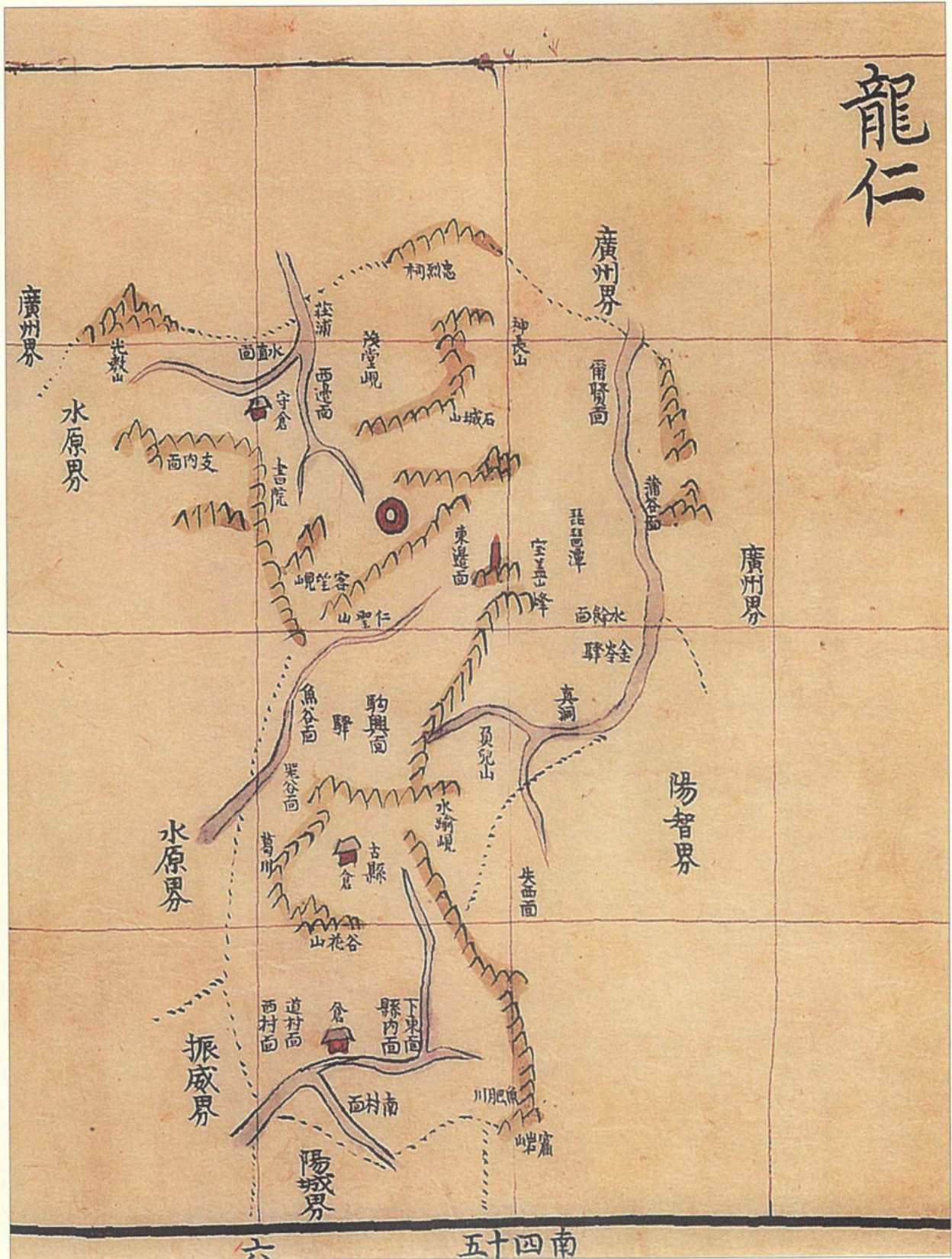
경기도지도(18세기중엽)



팔도군현지도



18세기 후반 용인지도



해동여지도(1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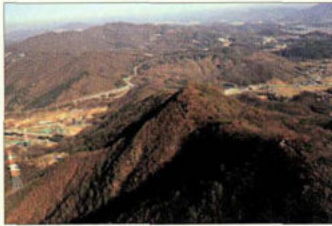
구한말지도



2. 석성산봉수

1) 유적지 내부 자연현황

(1) 지형



석성산이 포함된 광주산맥

- 석성산은 용인시의 중앙부에 위치하며 주변지역에서 가장 높음
- 석성산은 광주 남한산에서 법화산·무푸레고개·보개산·부아산·함봉산으로 이어진 광주산맥의 지맥에 해당
- 석성산의 능선은 동쪽의 경안천과 서쪽의 오산천 및 탄천의 분수계를 이룸
- 석성산은 기흥구 중동과 포곡면 마성리의 경계가 됨
- 용인시의 지질은 경기도의 지질적 특성에 포함되며, 지체구조상으로 경기지괴(京畿地塊)라고 일컫는 고기층(古期層)이 대부분을 점유
- 석성산일대는 연천계 화강암질 편마암류가 기반암을 이룸
- 석성산은 기반암인 연천계 화강암질 편마암이 넓게 노출되어있으며 기반암위에 기반암 풍화토와 적갈색·명갈색 사력층과 암갈색 니질층이 퇴적됨



석성산봉수 인근 위성사진



(2) 수계



수계분포도

- 석성산은 오산천의 발원지 이고 탄천과 또한 석성산의 서쪽에서 발원함
- 오산천은 석성산에서 발원하여 용인을 가로질러 신갈저수지에서 모인 후 남류하여 평택에서 진위천과 합류하고 안성에서 안성천과 합류하여 아산만을 통해 황해로 흘러 듬
- 탄천은 석성산의 서쪽 청덕동에서 발원하여 성남시와 서울시 강남구를 거쳐 한강에 유입됨
- 경안천은 이동면 어비리저수지에서 발원하여 능원천과 합류한 후 남한강으로 유입됨
- 석성산 주변의 하천들은 지세의 영향으로 남류 또는 북류 함

(3) 수목분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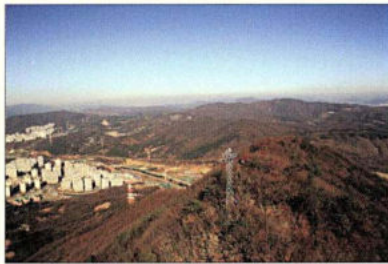
등산로 주변 참나무 숲

- 석성산 전체의 수목은 참나무, 갈참나무, 떡갈나무, 신갈나무 등 참나무류가 주종을 이루고 있음
- 참나무류는 주로 산북부에서부터 산 정상까지 골고루 분포하며 여러 가지 참나무류가 섞여있는 혼합림을 이루고 있음
- 단일종으로는 참나무가 우세한 편임
- 소나무는 참나무와 어울려 혼합림을 이루는 경우가 많으며 남쪽보다는 북쪽에서 우세하며 석성산의 북쪽에서 군락을 이루며 자생하는 지역도 관찰됨
- 참나무와 더불어 산벚나무와 같은 장미과 교목도 일부 관찰되지만 개체수는 매우 적은 편임
- 느티나무류들은 수령 약 70~80년가량의 노령목으로 석성산의 자연환경이 느릅나무과가 주종을 이루다가 참나무과 교목으로 전이되어 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음
- 석성산봉수 주변은 30~40년생 아가위나무가 소군락을 이루고 있어 수목 분포상의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석성산봉수 건물지 주변에는 직경 50cm 가량된 고령의 아가위나무도 일부 분포하고 있어 봉수대 정비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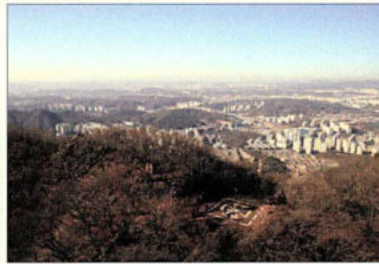


(4) 경관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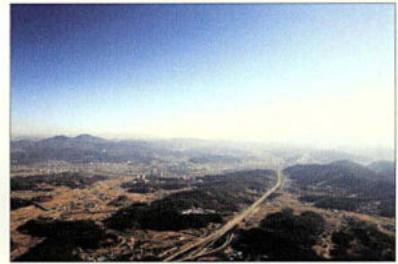
- 석성산봉수에서 주변지역을 바라보면, 북쪽으로 할미산성이 위치하는 할미산너머로 성남 천림산 봉수를 비롯한 성남과 강남일대가 조망됨
- 서쪽으로는 수원일대와 화성 그리고 그 너머로 서해안지역이 한눈에 들어옴
- 남쪽으로는 용인시가지가 자리하고 있으며 부아산·함봉산 너머로 오산방면이 조망됨
- 서쪽으로는 영동고속도로를 따라 포곡읍일대가 펼쳐짐



북쪽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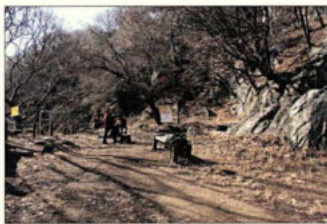
서쪽전경



동쪽전경

2) 유적지 현황

(1) 토지이용현황



약수터에 조성된 휴식시설



정상부 휴식시설

- 봉수지는 산림청이 소유한 마성리 산78-1의 70,㎡와 용인이씨사맹공파의 종중이 소유한 마성리 산77-33의 224,424㎡ 등 임야 2필지로 이루어짐
- 봉수의 최남측 봉돈이 위치한 부분을 경계로 남쪽은 산림청, 북쪽은 용인이씨사맹공파로 구분
- 모두 녹지로 이용되고 있으나 최북단에 위치한 봉돈 상면에는 군부대에서 사용하였던 철제 간이 초소가 위치하고 그 하단에는 헬리포트가 조성되어있음
- 봉수대에서 남동쪽으로 약 50m 떨어진 곳에는 예부터 사용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약수터와 함께 평탄지가 조성되었으며 이 평탄지는 현재 벤치와 가벼운 운동기구가 시설되어 등산객들의 휴식 공간으로 이용됨
- 아울러 봉수대에서 북쪽으로 약 100m 지점에는 등산객들이 쉴 수 있게 평상과 벤치가 놓여있으며 북으로 천림산봉수와 동으로 건지산봉수를 비롯하여 주변지역을 조망할 수 있게 망원경을 설치한 휴식처가 조성되어있음



■ 석성산봉수 토지소유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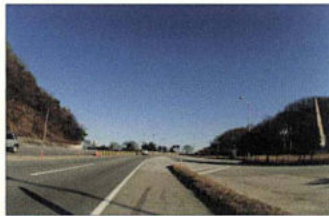
지 번	지목	지적(㎡)	지정구역	문화재구역	보호구역	소유자	
마성리	산77-33	임야	224,424	·	·	·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578-1 (용인이씨사맹공파종중)
	산78-1	임야	70,413	·	·	·	국 (산림청)
계		294,837		·	·	·	

(2) 동선체계

① 유적지까지 달는 교통로



유적 주변 교통망



작고개 전경(영동고속도로)

- 수원에서 이천·여주방면으로 이어지는 42번 국도가 주요 접근도로임
- 42번 국도 용인 방면으로 향하다가 강남대학교를 지나 용인시청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시청사 뒤편의 등산로를 따라 석성산성으로 진입
- 강남대학교를 지나 동백택지구 방향으로 좌회전한 후 초당마을내 초당중학교 맞은편 등산로를 따라 진입하면 성내 통화사에 다달음
- 강남대학교를 지나 동백택지구 방향으로 좌회전한 후 백현마을로 진입하여 백현중학교 뒤편의 등산로를 이용
- 용인시청을 지나 용인법원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유방리방향으로 진행하여 백령사에 뒤편의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면 석성산 북쪽의 전망대에 이름
- 영동고속도로 마성 I.C 앞 터키군참전비 동쪽의 마가실 서낭당 옆의 등산로를 따라 오르면 성산 북쪽의 전망대로 진입함
- 위의 5개 주요 등산로외에도 작은 등산로가 석성산을 주위에 다수 존재함

② 진입로



서쪽 진입로 샹터

- 봉수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등산로를 이용해야 함. 등산로는 석성산에 그물망처럼 짜여져 있는데 주로 이용되는 길은 용인시청과 초당마을 방향에서 석성산을 올라 석성산성내로 진입한 후 통화사를 거쳐 오르는 길임
- 남쪽의 용인시청에서 오르는 등산로는 석성산에서 남쪽으로 완만하게 뺨은 능선을 개설되어있어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나 쉽게 오를 수 있음
- 남서쪽 초당마을방향에서 시작되는 등산로는 콘크리트 도로가 성내



북쪽 진입로

군부대와 통화사까지 이어지고 있는 등 차량을 이용하여 성내로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노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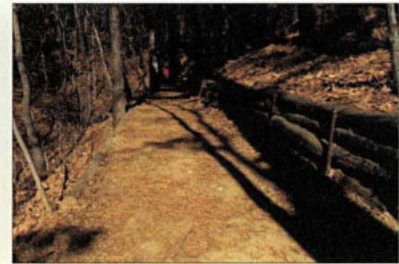
- 북쪽으로는 영동고속도로변 터키군 참전비에서 마가실 서낭당을 지나 오는 길에서 올라오면 석성산 북쪽의 전망대를 거쳐 봉수대 북쪽 헬리포트로 진입하나 음지에 해당되어 겨울에는 길이 얼어 위험하므로 주의를 요함



석성산 등산로 안내도



등산로 남쪽 입구



정비된 남쪽 등산로

③ 봉수대 내 탐방로



봉수대-건물지 연결등산로

- 통화사에서 시작되는 길은 북쪽으로 전망대를 향하여 봉수대 남쪽 봉수군의 주둔지로 추정되는 약수터를 지나 봉수대 건물지에 이른 후 전망대에 이르고 이길은 터키군 참전비와 백현중학교 방향으로 이어짐
- 봉수대 건물지에서 서쪽으로 봉수의 방화벽안으로 들어간 후 다시 남쪽에 우뚝 솟은 바위에 오르는 작은 소로길이 있음
- 봉수대 건물지 남쪽으로 가파른 경사소에 좁은 길을 따라 가면 군 부대 철조망을 따라 위병소까지 이르고 이곳에서는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따라 내려가면 초당중학교에 이름

(3) 시설현황

- 방호벽 안쪽에 철제 군용 초소가 있으나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어 허물어져 있음
- 봉수대의 북쪽 방화벽에 잇대어 헬리포트가 조성됨
- 봉수군의 주둔지로 추정되는 약수터는 가벼운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기구와 벤치가 설치되어있어 등산객의 휴식처로 이용되고 있음
- 봉수대 북쪽 석성산 북단의 정상봉우리에는 망원경과 벤치를 설치하는 등 전망대를 조성함



봉수대 상면에 설치된 폐기된 군용 임시 초소



봉수대 북쪽 헬리포트



석성산정상상의 전망용 망원경

3) 연계 가능한 관광문화환경 현황조사

(1) 주변 유적지 등 역사문화환경 현황

① 석성산성



석성산성(북쪽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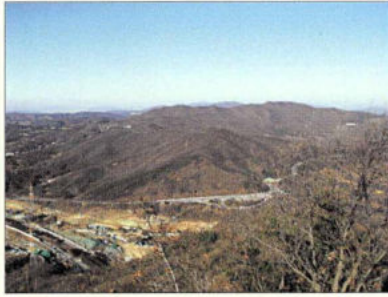
- 용인시 기흥구 중동과 포곡면 마성리 경계의 석성산정 위치
- 보개산성이라고도 불림
- 「大東地志」에 한양의 남쪽 성남 남한산성과 오산 독산성의 가운데에 자리한 교통의 요충에 자리잡은 성이라고 기록됨
- 성내 봉수가 자리하여 교통의 요지뿐만아니라 통신의 요충도 겸함
- 초축은 언제인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조선 성종대 퇴락하기 시작하였으나 임진·병진 양란때 잠깐 다시 운영된 것으로 추정됨

② 할미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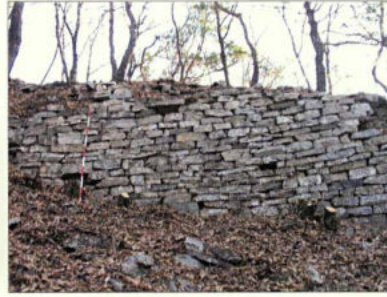


할미산성 항공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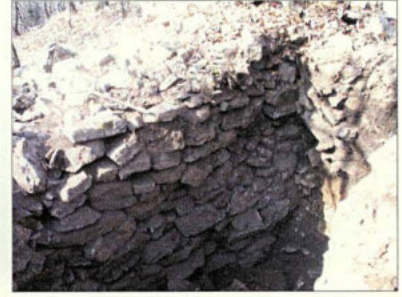
-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과 포곡면 마성리 경계에 솟은 할미산정상부에 위치
- 경기도기념물 제215호
- 할미산성의 한자식 표현인 老姑城이라고도 불림
- 지난 2004년 시굴조사를 통해 6세기 중반에서 7세기 초반 신라에 의해 경영되었던 것이 확인됨
- 정상부에서는 인위적인 타격에 의해 구연부와 대각이 훼손된 부가구연대부장경호와 대부완 등이 출토되어 의례 또는 제사가 이루어졌던 지역임을 확인함
- 신라 진흥왕의 북진기의 유적으로 인근의 보정리고분군과 연계하여 신라의 북진과정의 지역적 특성을 밝힐 수 있는 복합유적으로 평가됨



석성산성에서 본 할미산성



할미산성 서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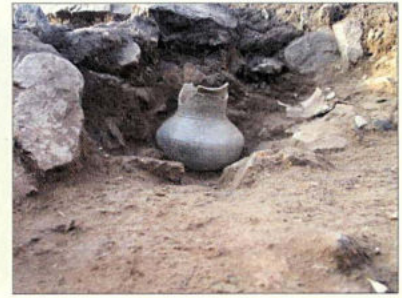
할미산성 내벽



할미산성 동벽



할미산성 기저부 축조상태



할미산성 정상부 부가구연대부장경호 출토상태

③ 처인성



처인성

- 남사면 아곡리에 위치
- 경기도기념물 제45호
- 고려시대 水州(수원)에 속해 있던 處仁部曲의 토성
- 1232년 몽골의 침입때 몽골 장군 撤禮塔을 승장 김윤후가 격전 끝에 사살하여 승리로 이끈 대몽항쟁의 전승지로 유명
- 처인성 북쪽 들판은 지금도 승장 김윤후가 적장을 사살하였다 하여 射場터로 불림
- 조선시대에 토축되어 둘레가 3리에 이르렀으나 이미 성으로서의 기능은 상실하였고 다만 군창만 남아 있었음

④ 서봉사 현오국사탑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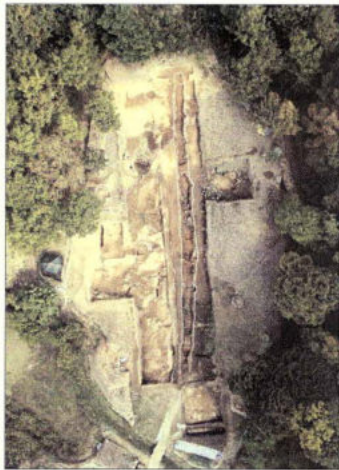


서봉사 현오국사탑비

- 수지읍 신봉리 산11번지에 위치
- 보물 제9호
- 서봉사는 창건에 대한 기록이 없으나 임진왜란 때 절에서 떠나려오는 쌀뜨물이 10리나 흘러내려와 왜적이 물을 따라 올라가서 절을 불태웠다는 전설이 있음
- 명종 15년(1185)에 세워진 이 탑비는 현오국사(玄悟國師)의 행적을 후대에 알리고자 만들어졌음



- 비문에 의하면, 현오국사는 15세에 佛日寺에서 승려가 된 후 부석사의 주지를 거쳐 명종 8년(1178) 53세의 나이로 입적함
- 탑비는 화강암의 비발침위에 점판암으로 만들어진 비몸돌이 놓여있는 단출한 모습으로 비발침부분의 윗면은 4변을 비스듬히 잘라내었고, 비문이 새겨지는 비몸에도 윗부분의 양 귀끝을 사선으로 접듯이 잘라서 마무리하는 등 전체적인 조형이 간략한 고려 후기 석비의 새로운 양식을 보여줌



서리상반고려백자요지

⑤ 서리 고려백지요지

- 이동면 서리 산23-1일대
- 사적 제329호
- 함박산에서 뺀 내린 산줄기의 끝에 있는 고려시대 가마터
- 가마는 벽돌로 된 가마와 진흙으로 지은 가마가 2기다 확인되었는데, 벽돌가마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밝혀진 것이고 진흙가마는 길이 83m로 출입구가 27개나 확인된 대형가마임
- 출토유물로는 해무리굽을 가진 대접이 대부분으로 제작시기는 10세기 후반부터 12세기 전반까지로 추정됨.
- 거대한 퇴적층과 벽돌·진흙가마의 존재, 다양한 모양의 백자 조각 등의 발견은 고려백자의 발생과 변천과정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역할을 하며, 한국도자사 연구에도 큰 도움을 줌



화운사 목조아미타불좌상

⑥ 용인 화운사 목조여래(아미타, 약사)좌상

- 처인구 삼가동 33-1 화운사
-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00호
- 화운사의 대웅전과 선원에 본존불로 봉안되어 있는 아미타불과 약사불
- 화운사 중창주 월조 지명스님이 1960년대 금산사에서 이운해 옴
- 높이 101cm, 어깨폭 50cm, 무릎폭67cm, 불상밑면 74.5×61.5cm



심곡서원

⑦ 심곡서원

- 수지구 상현동 203번지
- 경기도유형문화재 제7호
- 효종 1년(1650) 조광조의 학덕과 충절을 추모하기 위해 지방 유림의 공론에 의거, 설립하고 위패를 모심
- 모현면의 정몽주를 배향한 충렬서원에 입향하였다가 심곡서원이 설립되면서 위패를 옮겨왔으며 양팽손을 추가 배향한 후 '심곡'이라는 사액을



받음

-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 당시 훼손되지 않고 존속한 47개 서원의 하나로 서 해마다 2월과 8월에 향사를 지냄 (심곡서원사진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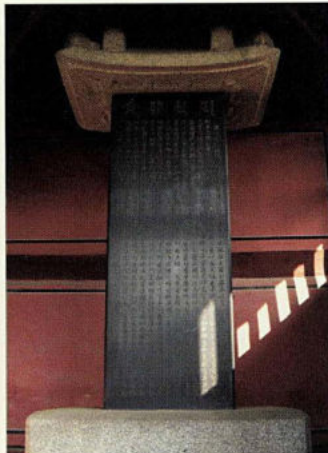
⑧ 충렬서원



충렬서원

- 모현면 능원리 118번지(정몽주 묘역 아래)
- 경기도유형문화재 제9호
- 선조 9년(1576)에 정몽주와 조광조의 덕망과 충절을 추모하기 위하여 건립함
-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으나 선조 38년(1605)에 경기도 관찰사로 있던 이정구가 현감 정종선, 이시윤 등과 함께 중건함
- 광해군 1년(1609)에 사액되었으나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없어졌다가 1924년 복원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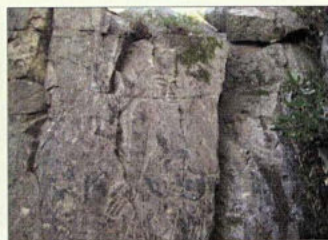
⑨ 체제공선생 뇌문비



체제공 뇌문비

- 처인구 역삼동 산3-12번지(체제공 묘역 우측)
- 경기도유형문화재 제76호
- 이 뇌문비는 영의정 체제공의 장례일에 정조가 친히 지어 보낸 제문을 새김
- 비문의 맨 끝에 [乙未三月 二十六日]이라는 명문 있어 정조 23년(1799) 3월 26일에 지어 새긴 것임이 확인됨
- 비신의 재료는 오석이며, 화강암으로 된 방형의 비좌와 팔각지붕형의 옥개를 올려 놓았으며 비신 머리 부분에이라는 전액이 쓰여져 있고, 본문은 해서로 쓰여져 있음
- 비신은 높이 144cm, 너비 54cm, 두께29cm

⑩ 문수산 마애보살상



문수산 마애보살상

- 원삼면 문촌리 산 25번지
- 경기도유형문화재 제120호
- 라말려초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2구의 마애보살상
- 바위를 잘 다듬어 양쪽으로 대칭되게 선 두 보살상을 얇게 부조한 후 선각기법을 함께 사용함하는 등 조각수법이 뛰어남
- 대담하게 단순화한 형태 묘사가 돋보이며, 신체의 비례에 견주어 큰 얼굴, 어깨가 올라간 움추린 자세, 손과 발의 섬세한 표현 등은 앞 시대의 선각마애불상을 계승한 것으로 보이며 두 보살상만이 새겨진 희귀한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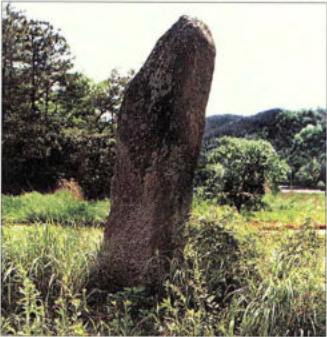
상으로 도상학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됨



어비리삼층석탑

⑪ 어비리삼층석탑

- 이동면 어비리 산 99-2번지
- 경기도문화재자료 제43호
- 단층 기단에 3층의 석탑으로 고려시대 제작된 것으로 추정됨
- 단층 기단의 지대석은 2단의 면석으로 괴어 있고 면석은 4매의 판석으로 짚는데 그중 1매가 복원할 때 우주(隅柱)의 표현이 잘못된 듯하다. 판석 위에 놓인 갑석은 부연과 옥신괴임이 있고, 3층으로 된 탑신의 옥신은 각각 1개의 돌로 우주가 모각되었으며 옥개석의 옥개받침은 모두 4단이고 2단의 탑신받침을 두었음
- 전각의 반전이 예리한 편이며, 전체적으로 경쾌한 모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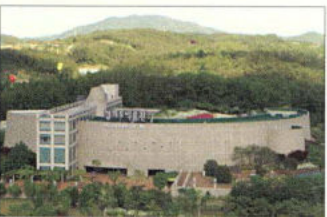
창리선돌

⑫ 창리 선돌

- 남사면 창리 487번지(창말마을)
- 경기도문화재자료 제61호
- 돌의 형태가 장검을 세워 놓은 모양이라 검바위라고도 불림
- 선돌이 쓰러지면 마을에 재앙이 온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토속신앙의 대상물임
- 높이 210cm, 너비 65cm, 두께 30cm

(2) 주변 관광사업지, 문화 등 관광문화환경 현황

① 경기도박물관



경기도박물관

- 기흥구 상갈동 85번지
- 1996년 경기도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개관함
- 전시실은 자연사실·고고미술실·문헌자료실·민속생활실·서화실·기증유물실 등 6개의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 야외전시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국보 제256호로 지정된 초조본대방광불화엄경주본 권1과 천태사교의(보물 1052), 진언권공(보물 1053), 청원군 심대호 성공신교서(보물 1175), 조영복영정(보물 1298)를 비롯하여 6종의 경기도유형문화재 등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각종 전적·회화·석기유물·청동기유물·철기유물·금속공예·도자기류 3,500여 점의 유물과 4,000여 권의 연구 도서가 전시되어 있음



호암미술관

② 호암미술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가실리 204번지 에버랜드 내
- 1982년 삼성그룹의 창업주인 호암 이병철이 30여 년에 걸쳐 수집한 한국미술품 1천 2백여 점을 바탕으로 개관한 사립미술관임
- 수려한 자연 경관 속에 자리하고 있는 호암미술관은 전통한옥 형태의 본관 건물과 전통정원 '희원', 프랑스 근대 조각의 거장 부르델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부르델 정원', 호수가의 '수변광장', '석인의 길'로 이루어져 있음
- 전시실은 기획전시실과 불교미술과 산수화·인물화 및 도자기등이 전시된 상설실이 있음



한국민속촌

③ 한국민속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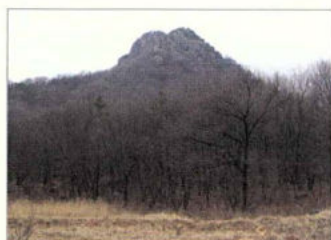
- 기흥구 보라동 107번지
- 고유의 민속전시장으로 1974년 개장
- 옛날 官家·民家·班家 등 지방별로 구조를 달리하는 건축물이 산재하며, 그 속에는 우리 조상들의 생활 모습을 재현하고 각종 생활기구·농경기구·각종 공예품 등을 전시함
- 아울러 각종 민속놀이·민속공예를 공연함



에버랜드

④ 에버랜드

-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310번지
- 1976년 4월 국내 최초의 가족공원인 용인자연농원으로 문을 연 종합 리조트임
- 세계 각지의 주요도시를 테마로 한 '글로벌 페어'를 비롯해 각종 놀이시설과 공간의 특성에 따라 '아메리칸 어드벤처' '매직랜드' '유러피언 어드벤처' '주토피아' 등 5개의 테마 지역으로 분류되고 튜립, 장미 등 계절 별로 전시되는 꽃 정원과 국내 최장의 눈썰매장인 '스노우버스터,' 이솝우화를 주제로 한 테마존 '이솝빌리지' 등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초식동물과 맹수가 공존하는 세계 유일의 복합 사파리 '사파리 월드'가 유명함
- 대규모 워터 파크 '캐리비안 베이'와 모터 파크 '스피드 웨이' 숙박시설 '홈브리지' 종합 스포츠 잔디구장 '액티바 파크'와 함께 에버랜드 리조트를 구성하고 있으며, 호암 미술관·삼성 교통 박물관 등의 문화·체육 시설도 갖추고 있음



조비산봉수 전경

⑤ 조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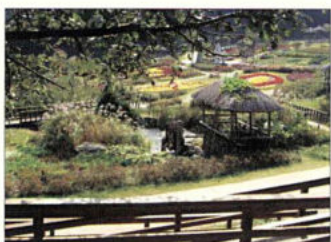
- 처인구 백암면 용천리·석천리·장평리에 접해 있는 정배산의 지맥
- 새가나는 형상이라 조비산이라고 이름이 붙었으나 주변의 산들이 모두 서울이 위치하는 북쪽을 향하는데 반하여 조비산은 머리를 남쪽을 두고 있다고 하여 역적산이라고도 불림
- 황금들판 가운데 한 봉우리가 돌연히 우뚝 솟아 돌을 이고 있는 형상으로 산이 높고 가파라서 빼어난 모양이 기이하게 보임
- 용인에서 제일 아름다운 산으로 용인 8경에 들



한택식물원

⑥ 한택식물원

- 백암면 옥산리 산 153-1번지
- 1979년부터 백암면 옥산리 일대 부지를 조성하고 시설을 갖추어 1984년 정식으로 개원한 국내 최대의 사립 식물원임
- 1만 평의 수생식물원을 포함한 전체 면적이 20만 평에 이르며, '야생식물의 보고'라고 부를 만큼 복수초·깽깽이풀·한라구절초·삐죽나리 등 희귀식물을 많이 보유하고 있음
- 현재 식물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식물종은 남한의 자생 초본류 1,250종, 목본류 500종과 북한의 자생식물 150종을 비롯하여 외래 초본류 1,700종, 목본류 600종 등 총 9,000여 종에 이르며, 시설로는 자생식물원을 비롯하여 상록·양치·약용·염료식물원 등이 있음



용인농촌테마파크

⑦ 용인농촌테마파크

- 원삼면 사암리 산174-4번지
- 도시민들이 농촌 생활을 직접 체험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주말농장을 분양하고, 자연학습포, 유실수단지, 들꽃광장, 농기계 및 곤충 전시관 등의 휴식 공간을 운영하는 전원형 가족공원임
- 체험농장, 자연학습포, 유실수단지, 들꽃광장, 잔디광장, 농기계 및 곤충 전시관 등으로 구성됨



김대건 신부 유적지

⑧ 김대건 신부 유적지

- 처인구 양지면 남곡리 골짜기
- 1821년 충청도 솔피에서 태어난 한국 최초의 사제 김대건신부가 소년시절을 보낸 유적지
- 김대건 신부와 가족들이 1827년 박해를 피해 용인으로 이주하여 한국 교회를 이끌 사제가 되기 위해 마카오로 유학을 떠나기 전까지 지내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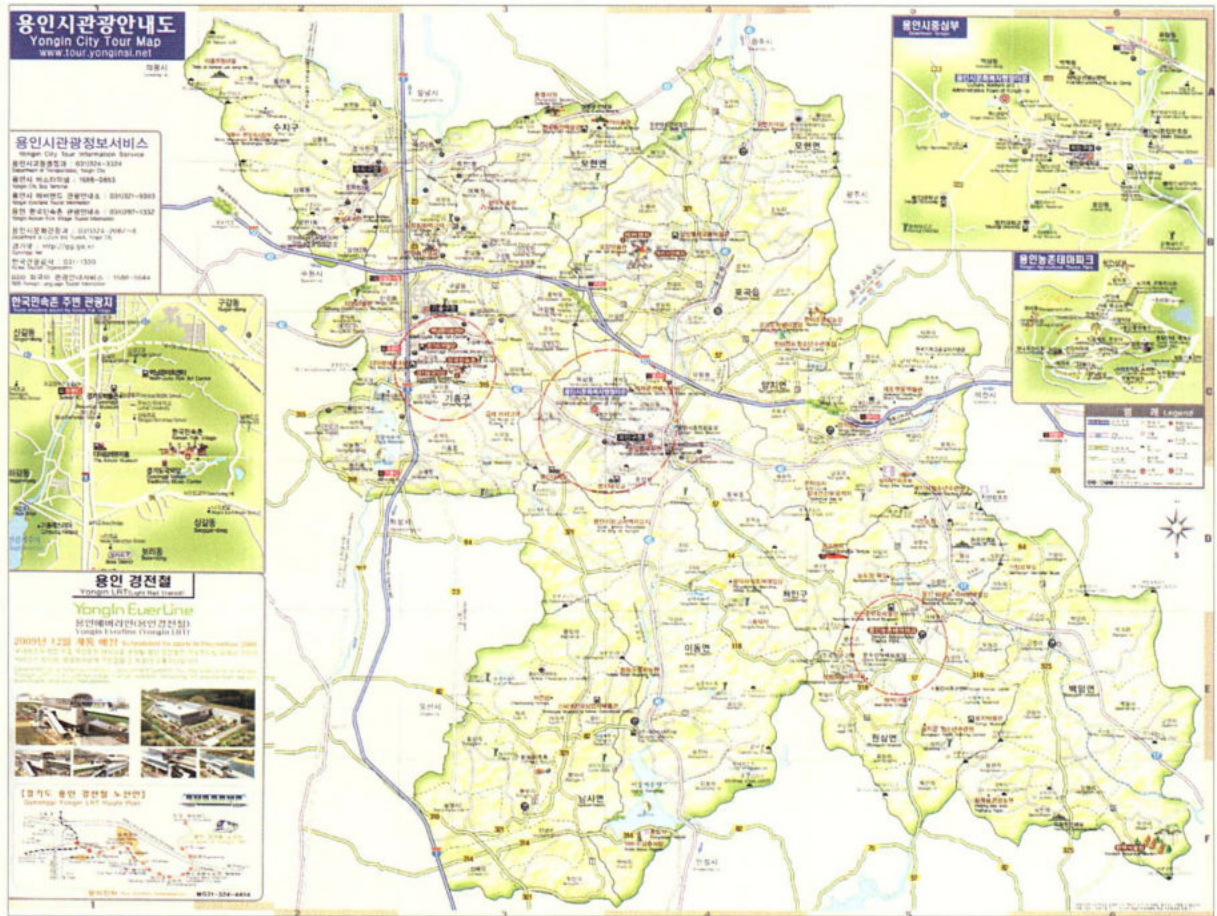
곳으로 골배마실로도 불림

- 옛날부터 김대건 신부의 집터가 있던 곳으로 전해오다 1961년 발굴하여 성지로 가꾸었고 1997년 새롭게 단장함
- 김대건 신부가 살던 집터와 신부가 가꾸던 고욤나무를 그대로 보존해놓았고 신부의 석상과 제대, 초가집과 어머니 고씨의 모습을 새긴 부조(浮彫)를 설치함. 앞으로 김대건 신부의 생가를 복원하고 신부의 가족상도 설치할 계획 임

(3) 관광코스 운영 현황

- 시민들에게 용인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함
- 내 고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전통이 살아있는 유서 깊은 고장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여 용인시민으로서의 향토애와 자긍심을 느끼게 함
- 특히, 수지구 및 기흥구 지역에 새로 유입된 주민들에게 산자수려한 용인의 자연과 환경친화적인 도·농의 모습을 소개함
- 난개발 등의 부정적 이미지를 일소하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지역이라는 긍정적 인식을 갖게 함
- 현재, 역사문화유적과 주변 관광지를 엮어 북부·남부·서부·중부·동부 등 5개의 권역을 나누어 시행중

제1코스 (북부지역)	정몽주선생묘소 - 등잔박물관(or 충렬서원) - 왕산리고인돌 - 남구만선생묘소 - (중식) - 호암미술관(월요일휴관) - 용인향토사료관
제2코스 (남부지역)	용인향토사료관 - 서리백자요지 - 처인성 - 상업사박물관 - (중식) - 세종옛돌박물관 - 양지향교
제3코스 (서부지역)	조광조선생묘소 - 심곡서원 - 용인향교 - 민영환선생묘소 - (중식) - 경기도박물관 - 사은정
제4코스 (중부지역)	채계공선생묘소 - 용인향토사료관 - 양지향교 - (중식) - 허균 등 허씨5문장묘소 - 미평리약사여래불
제5코스 (동부지역)	용인향토사료관 - 와우정사 - 용인농촌테마파크 - 미곡처리장 - (중식) -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 임옥여 의병장 동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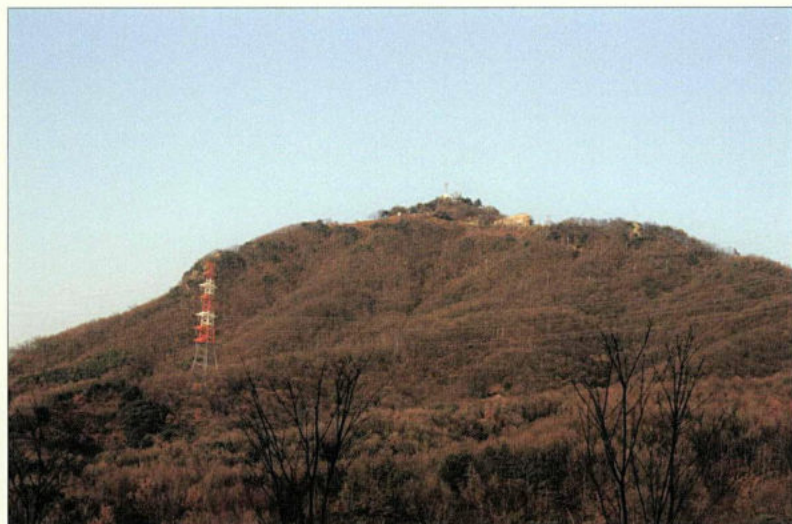
용인시 관광지도



터키군 참전비 및 석성산봉수(북서쪽에서)



석성산봉수(서쪽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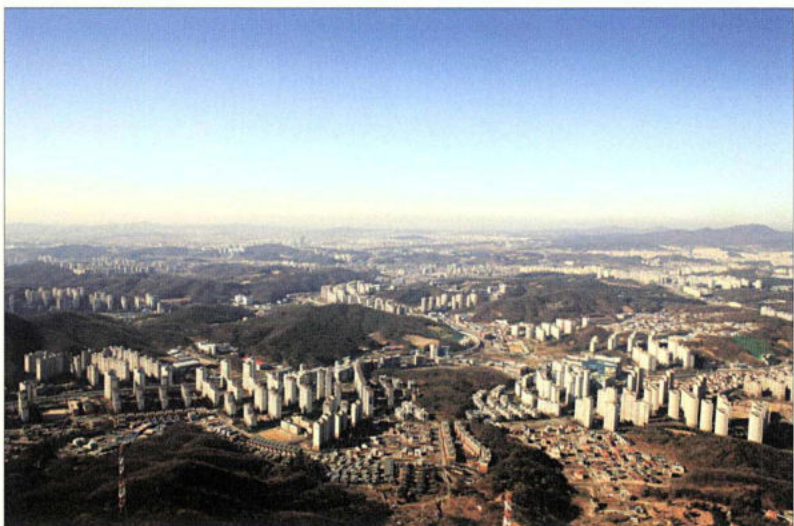
석성산봉수(남쪽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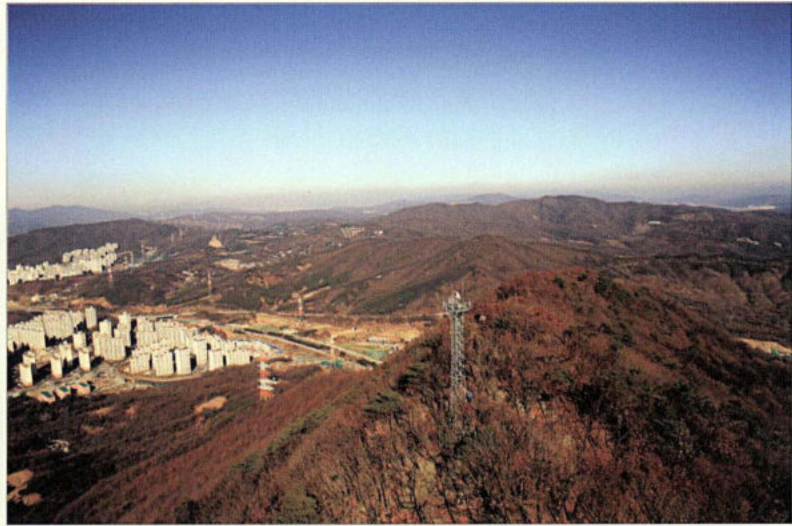
석성산에서 본 동쪽(포곡읍 일대)



석성산에서 본 남동쪽



석성산에서 본 남서쪽(용인시까지 일대)



석성산에서 본 북쪽(천림산 방향)



석성산에서 본 북동쪽(에버랜드 방향)



석성산에서 본 동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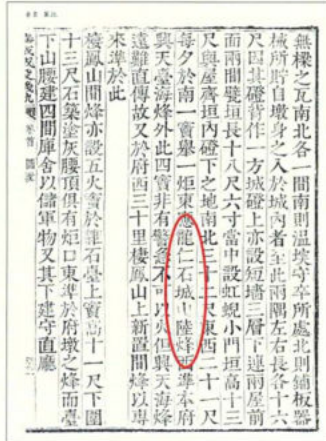


II. 석성산봉수 현황 및 유사사례 분석

1. 문헌검토 및 조사·연구현황

1) 문헌검토

- 석성산봉수는 조선 순 시기에 발간된 지지서에 동과 북으로 응하는 대응 봉수노선의 변동이 없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음
- 지지서의 기록을 보면 石城 → 寶蓋山 → 石城山 등으로 시기에 따라 명칭의 변동이 있었으나 이는 동일한 봉수를 지칭하는 명칭임
- 또한 『輿圖備志』에 石城山이 卽 寶蓋山古城내에 있다고 한 기록이나, 이후 1899년 발간된 『始興郡邑誌』에 “寶蓋山烽燧 一名 石城山”이라 한 기록을 통해 석성산과 보개산은 동일하게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음



화성성역의궤

■ 석성산봉수 문헌 자료

文 獻	內 容	備 考
『世宗實錄』卷 148 地理志 京畿 龍仁縣	烽火一處 石城 在縣東 東淮竹山中之山 北淮廣州穿川山	
『新增東國輿地勝覽』卷10 京畿 龍仁縣 烽燧 條	寶蓋山烽燧 東應竹山縣中之山 北應廣州穿川縣	
『東國輿地志』卷2 京畿道 龍仁縣 烽燧 條	寶蓋山烽燧 東應竹山縣乾至山 北應廣州穿川峴	
『輿地圖書』京畿道 龍仁縣 烽燧 條	寶蓋山烽燧 東應竹山府中之山 北應廣州府穿川縣	
『華城城役儀軌』	海夕於南一寶舉一炬東應龍仁石陸烽西準本府興天臺海烽	
『京畿誌』第4冊 「龍仁縣邑誌」烽燧 條	寶蓋山烽燧 東應竹山府中之山 北應廣州府穿嶺峴	
『輿圖備志』京畿道 左道 龍仁縣 烽燧 條	石城山 卽 寶蓋山古城	
『大東地志』卷4 京畿道 20邑 龍仁 烽燧 條	石城山 古城內	
『京畿邑誌』第5冊 龍仁縣邑誌」烽燧 條	寶蓋山烽燧 在東邊面距官門十五里 東應竹山府中之山 北應廣州府穿嶺山	
『始興郡邑誌』(1899)	寶蓋山烽燧 一名石城山 在東邊面距官門十五里 東應竹山府乾止山 北應廣州穿嶺山	
『龍仁郡誌』(1899)	寶蓋山烽燧 在東邊面距官門十五里 自乙未年廢棄	
『增補文獻備考』卷124 兵考16, 烽燧2	木覓山烽燧 自東至西五炬 --(中略)-- 第二準慶尙忠清京畿來廣州天臨山烽 --(下略)-- 第2炬 天臨山 石城山 中之山 望夷城	



2) 조사·연구현황



조선봉수연락약도

- 현재 용인시 소재의 봉수는 건지산·석성산 등 2개소로서 유지가 일부 멸실되거나 유구형태가 뚜렷하지 못한 상태임
- 따라서 이들 봉수에 대해서는 그동안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구조·형태가 어떠한지 알 수 없는 상태였음
- 심지어 석성산봉수는 통신탑의 남쪽 봉우리 바위 암반에 균 초소가 놓여져 있는 곳이 원래 봉수터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기도 하였음
- 용인시 소재 2개소의 봉수 중 전 단계의 건지산봉수는 과거 일제강점기 발간의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1942)¹⁴⁾와 이후의 『文化遺蹟總覽』(1977)¹⁵⁾ 및 『韓國의 城郭과 烽燧』(1990)¹⁶⁾에 간략한 조사내용이 소개되어 있음
- 반면, 석성산봉수는 위의 문헌에 일체의 내용이 없다가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에 의해 용인시 소재 산성조사의 일환으로 간략한 지표조사가 실시되어 봉수의 현황이 정리됨¹⁷⁾
- 그후 김주홍은 학위논문을 통해 경기지역 54개소 전체 봉수와의 연관속에서 석성산봉수의 문헌고증 및 비교검토를 시도하였음¹⁸⁾
- 이를 통해 용인시 소재 2개소 봉수의 조사 및 연구현황은 다음과 같이 다섯가지로 정리됨
 - 첫째, 봉수노선과 성격에 의한 분류상 모두 조선시대 전체 5炬제의 봉수노선 중 제2거 직봉노선의 내지봉수로 제2거 노선의 봉수는 과거 부산 동래 다대포진 응봉에서 초기한 봉수가 음성 망이성봉수에서 합쳐진 후 용인시 소재 건지산봉수와 석성산봉수를 거쳐 성남시 소재 천림산봉수에 신호를 전달토록 하였던 봉수노선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컸음
 - 둘째, 봉수명칭에 모두 “山”명을 빌어 표기하고 있으며 이러한 ‘山’명 봉수는 경기지역 54개소의 봉수 중 35개소로서 봉수명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노선별로는 제1거 4개소, 제2거 4개소, 제3거 4개소,

14) 朝鮮總督府, 1942,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 15쪽.

15)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1977, 『文化遺蹟總覽』(上卷), 279쪽.

16)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1990, 『韓國의 城郭과 烽燧』(下), 64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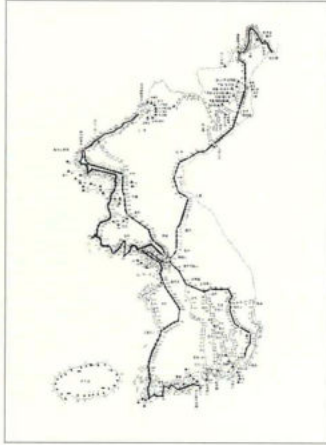
17) 忠北大學校 中原文化研究所, 1999, 『處仁城·老姑城·寶蓋山城』.

용인시사편찬위원회편, 1999, 『용인의 옛성터』, 116~118쪽.

18) 金周洪, 2000, 『京畿地域의 烽燧研究』, 祥明大學校 碩士學位論文.



제4거 2개소, 제5거 18개소, 권설 3개소로써 노선의 봉수어미에 '山'자가 붙어 있음



「증보문헌비고」 봉수도

- 셋째, 위치상 경기지역의 봉수는 대부분 해발 100~300m 내의 나지막한 높이에 분포하는데, 용인지역 2개소의 봉수는 모두 해발 400m가 넘는 고지에 분포함. 현재 경기지역내에서 해발 400m가 넘는 고지에 분포하는 봉수는 위 두 개소 봉수를 포함하여 인천시 강화군의 진강산봉수(443.1m)와 안성시의 망이산봉수(472m) 등 4개소임. 이 4개소의 봉수를 노선별로 분류하면 제2거 3개소, 제5거 1개소임. 이를 통해 경기지역내의 고지대에 분포하는 봉수는 제5거 노선의 해로 연변봉수인 진강산봉수를 제외하면 모두 내지봉수로서 숫자가 적은편인데 그중 2개소가 용인시에 집중되어 있음이 주목됨
- 넷째, 산성과의 관련성에서 경기지역의 봉수는 전략적으로 중요하거나 과거 행정치소의 중심지에 위치할 경우 산성내 혹은 산성과 인접하여 설치됨¹⁹⁾ 이중 석성산봉수의 경우 보개산성내에 설치되어 산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
- 마지막으로 이들 봉수는 비록 유지가 온전하지 않지만 장축방향을 남북으로 하는 공통점이 있음

2. 조사내용



항공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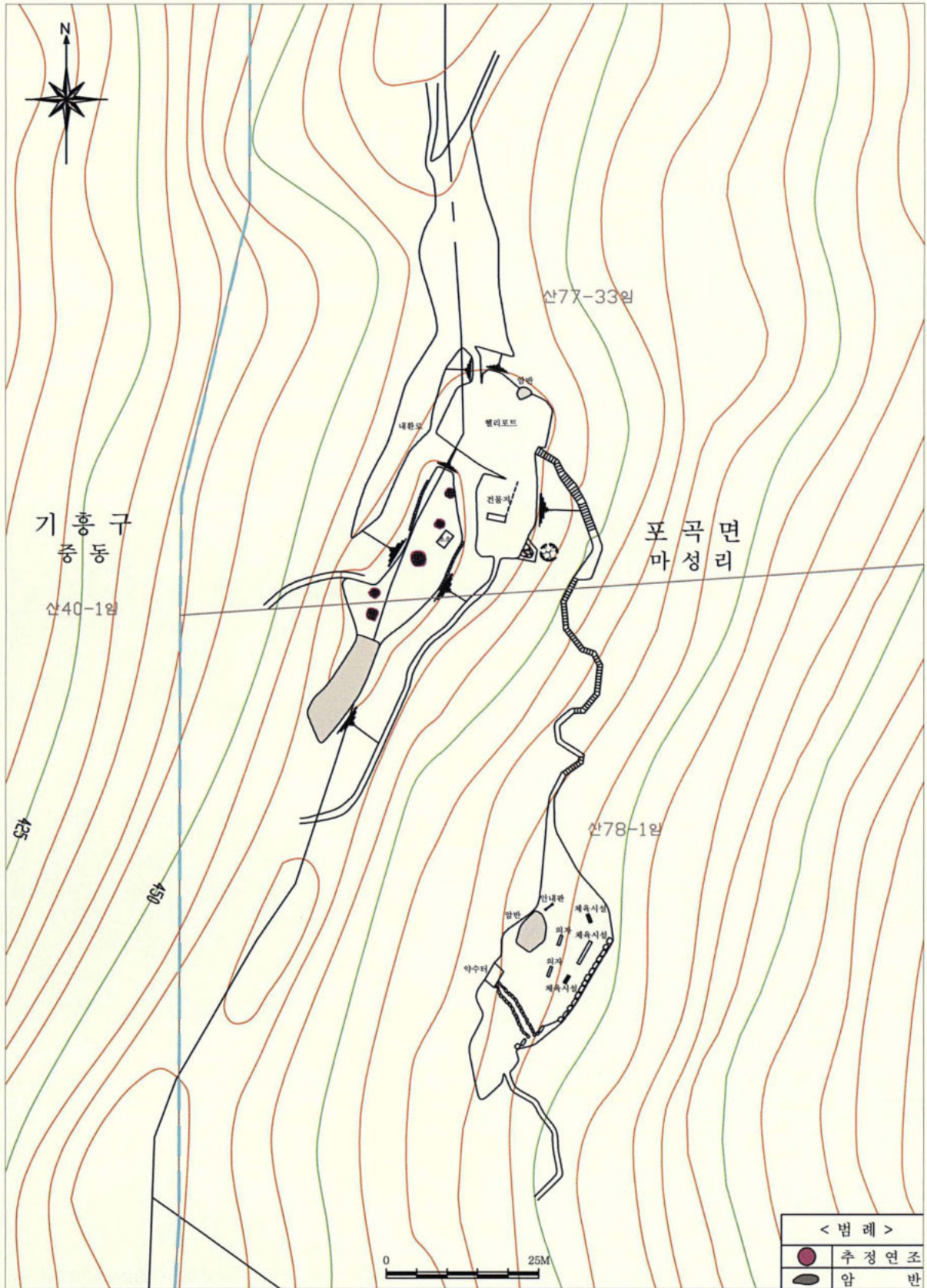
유적측량

- 석성산봉수는 조선시대 전체 5거의 봉수노선 중 제2거 직봉노선의 내지봉수로서 동쪽의 용인 건지산봉수에서 보내는 신호를 받아 북쪽으로 성남 천림산봉수에 응함
- 인근 마을주민들에게는 '봉화뚝' 이라고도 불리며, 용인시의 진산으로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 곳임
- 또한 통화사라는 사찰이 봉수와 인접하고 있음
- 입지상 석성산의 제일 고지에 위치하며 여기에서 보면 주변 일대 사방으로의 시야확보가 용이함
- 봉수에 대한 조사내용을 봉수내부와 연조·방호벽·건물지·우물 등의 시설별로 소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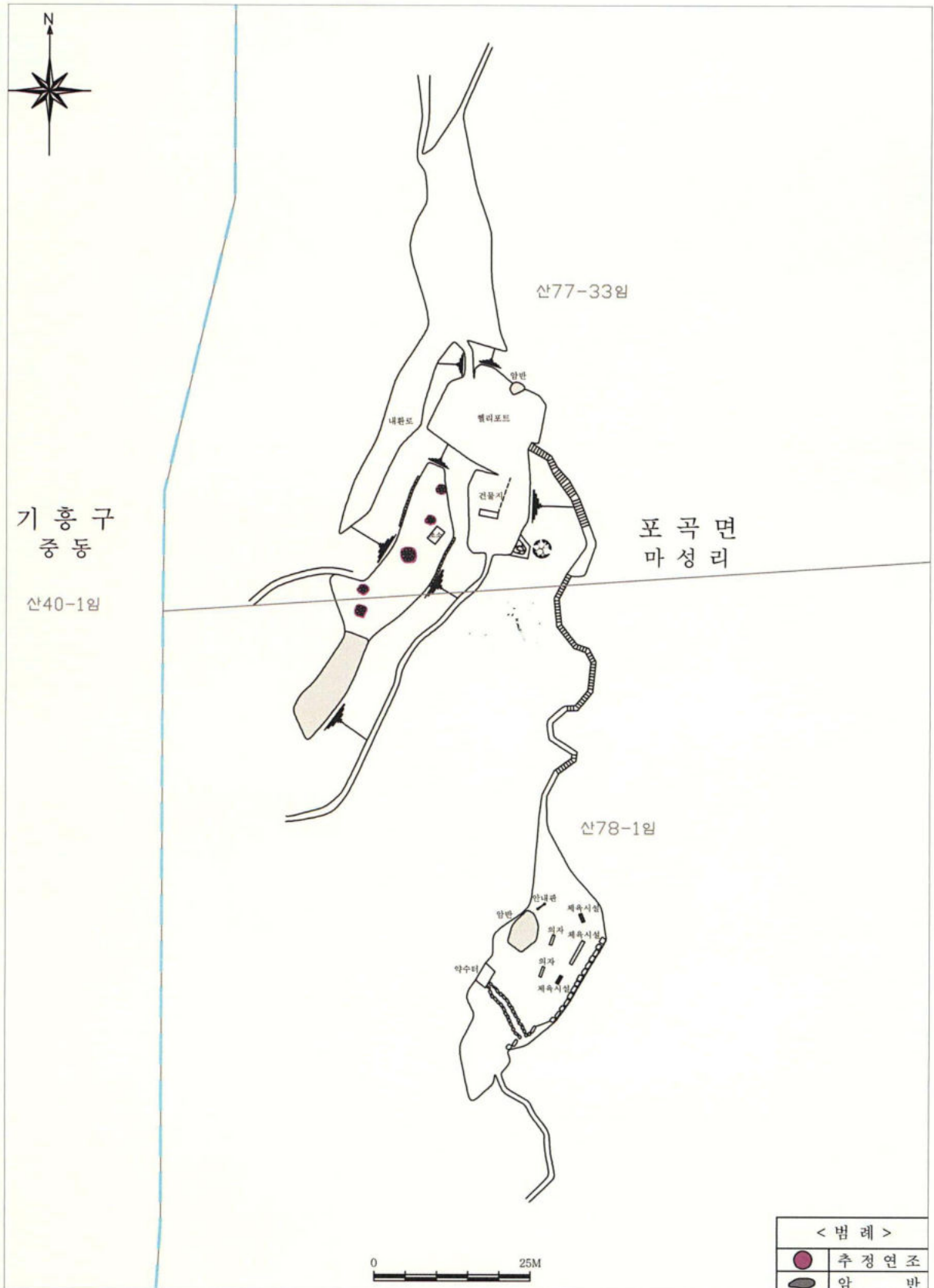
19) 경기지역 54개소의 봉수 중 山城 내에 소재하는 봉수는 다음과 같다.

內地烽燧 - 華城烽墩(華城)·石城山(石城山城)·望夷城(望夷山城)·禿山城(禿山城)

沿邊烽燧 - 城山(高峰山城)·城山(鳳棲山城)·松岳(南山城)·河陰山(河陰山城)·城山(華蓋山城)·城山(文鶴山城)·藥山(守安山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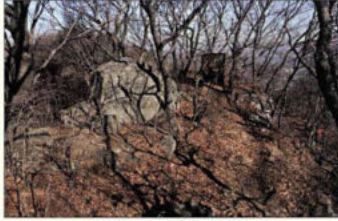
석성산봉수 현황도



석성산봉수 평면도



1) 봉수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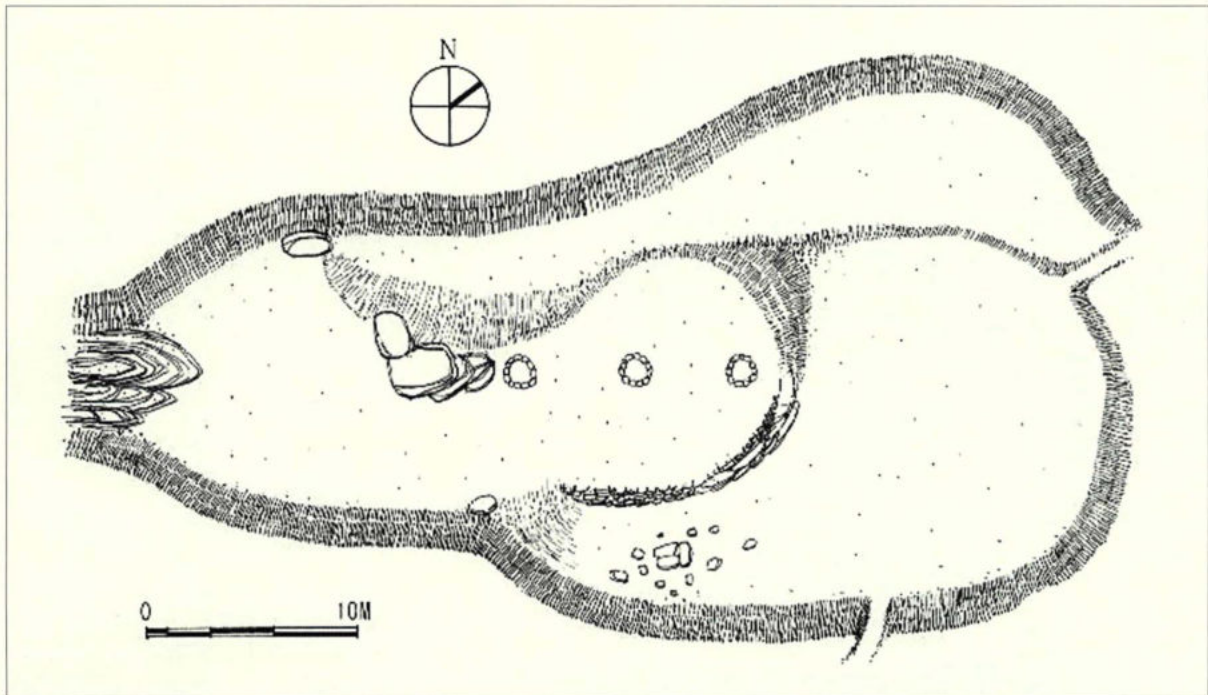


석성산봉수 동쪽(남쪽에서)



석성산봉수 서쪽(남쪽에서)

- 석성산(471m) 정상부에 봉화뚝으로 지칭되는 평탄한 바위암반부가 있음
- 동쪽으로는 방호벽의 석축이 온전하며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군 초소가 놓여져 있는 곳이 봉수터임
- 내부는 잡목이 무성하며 조사당시 낙엽이 무성하게 쌓여져 있는 상태였음
- 평면형태는 부정타원형이며 장축은 남-북방향임
- 남쪽 가장자리는 과거 헬기장을 조성하기 위한 인위적인 훼손으로 경사가 급한 단애를 이루고 있음
- 봉수 내부에는 3개소의 연조 기저부가 비교적 온전하게 남아 있음이 금번의 조사를 통해 새롭게 확인됨
- 방호벽은 동쪽이 비교적 온전하며 서쪽은 부분적으로 잔존하나 이외에 봉수 내부로의 출입을 위한 뚜렷한 출입시설의 흔적은 확인할 수 없었음
- 일반적으로 내지봉수의 출입시설은 개방식과 계단식이 있는데 잔존 유구의 흔적으로 보아 석성산봉수는 특별한 시설이 필요하지 않은 개방식 출입시설이 북쪽 혹은 남쪽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 규모는 남-북 26.5m, 동-서 12.8m, 잔존 둘레 약 70m임



석성산봉수 봉수대 약실측도(이철영 교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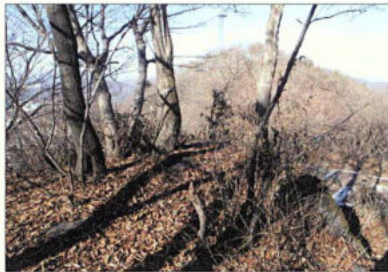


2) 연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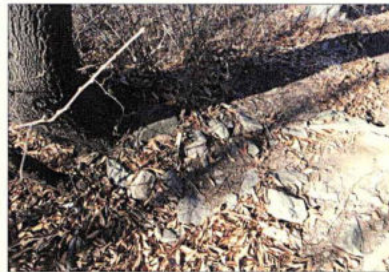


석성산봉수 연조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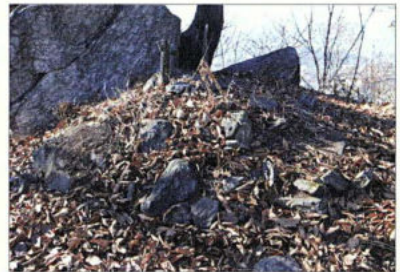
- 금번의 조사를 통해 거둔 가장 큰 성과는 봉수 내부에서 새롭게 확인된 3개소의 연조임
- 연조는 봉수가 불을 피우기 위해 마련한 시설로서 달리 봉조·봉돈·연굴로도 통용됨
- 축조상 석축, 토축 혹은 토+석 혼축이며 형태상 외방내원형임
- 내지봉수에 있어 연조의 수와 배치는 대부분 5개소의 연조가 봉수 내부에 있는 것이 일반적이나 고양 독산봉수, 청도 남산봉수, 창녕 여통산봉수처럼 연조 전체 혹은 일부가 방호벽 외부에 배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음
- 오늘날 연조는 봉수제가 폐지되고 백년이 지나면서 대부분 상부가 멸실됨에 따라 기저부만 남아 있는 상태임
- 따라서 상부의 구조·형태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확한 고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
- 석성산봉수 역시 내부에서 3개소의 연조가 확인되었으나 기저부만 돌무더기 형태로 확인되어 상부의 구조·형태는 알 수 없으나 봉수 배치상 남-북 일직선에 놓여 있음
- 축조는 석축이며 평면형태는 외부를 방형으로 하고 내부는 원형으로 일정규모 이상 동그랗게 쌓아 올린 외방내원형태임
- 이러한 외방내원형의 형태는 가까운 성남 천림산봉수나 창녕 여통산봉수처럼 내지봉수의 일반적인 연조형태임
- 각 연조의 직경은 1.6m 가량이며 각 연조간 중심부의 거리는 5.6~6.4m 가량임
- 원래 5개소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북쪽의 경우 헬기장을 조성하면서 인위적으로 원지형을 훼손함에 따라 2개소는 멸실된 것으로 추정



석성산봉수 연조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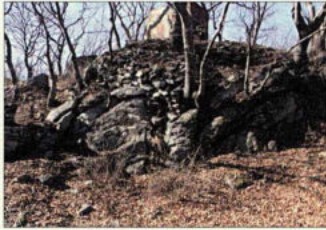
석성산봉수 연조2



석성산봉수 연조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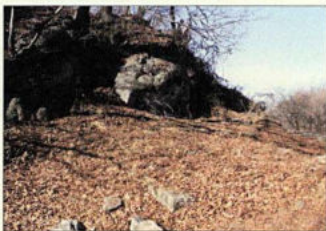
3) 방호벽



동쪽 방호벽



방호벽 축조상태 세부



방호벽 하단 건물지 기반

- 방호벽은 달리 방화벽이라고도 하며 봉수대에 근무하는 봉수군이 나쁜 짐승으로부터 피해 입는 것을 방지하거나 연조의 불이 산 아래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어·방화용 시설을 지칭함
- 방호벽은 연변봉수보다는 내지봉수인 성남 천림산, 고양 독산, 음성 망이산, 공주 월성산, 아산 연암산, 제천 오현, 충주 주정산, 양산 위천, 진주 광제산, 언양 부로산봉수 등 거의 모든 내지봉수에서 필수적으로 갖추고 있었던 시설물로 방호벽 상부에는 폭 0.6~1.5m 규모의 담장지가 남아 있음
- 현재 석성산봉수의 방호벽은 동쪽이 석축으로 온전하게 남아 있으나 담장지의 흔적은 확인할 수 없으나 높이 2.5m 가량의 암반 위와 이 암반의 사이에 크기 22×15, 26×12, 30×20cm 크기의 할석으로 축조하였는데 높이는 4m 가량임
- 서쪽 역시 부분적으로 석축의 방호벽이 있는데 많이 유실된 상태임
- 반면, 남쪽은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완만한 능선부가 이어지는 곳이며, 북쪽은 헬기장을 조성하면서 인위적으로 원지형을 훼손함에 따라 유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임

4) 건물지

- 봉수군이 근무를 하면서 풍우를 피하고 취사를 하기 위한 건물은 봉수군의 생활시설 중 가장 중요한 요소임
- 건물내에는 비상시를 대비하여 봉수마다 1石²⁰⁾에서 10石까지 비축하고 있었던 쌀[待變糧米]외에 밥솥[食鼎]·가마솥[釜子]·수저[匙子]·沙鉢 등의 취사비품과 물통[水曹]·물독[水瓮·水石]·표주박[瓢子] 등의 음수용 비품 및 혹한기 난방을 위한 화로 등 각종 비품을 보관함
- 조선후기 각종 地誌書의 기록을 통해 기와집[瓦家]·초가집[草家]·임시가옥[假家] 외에 곳집[庫舍]·장대기와집 [將臺瓦家] 등의 가옥시설이 문헌기록에 뚜렷이 기록되어 있는 봉수는 오늘날 경상지역내 위천·금성산·부로산·남목·고성산·소산 등 6개소의 봉수를 통해 확

20) 달리 섬으로 통용. 容량의 단위로서 한 말의 열 갑질. 1石[섬]은 즉 10말

21) 圓寂山烽燧臺保存會, 1991, 『梁山圓寂山烽燧臺 精密地表調查報告』, 12~1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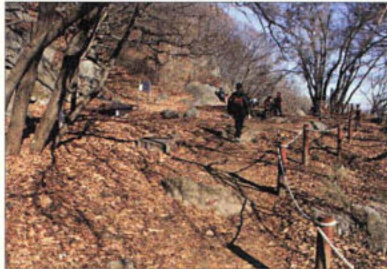
봉수대 수습 기와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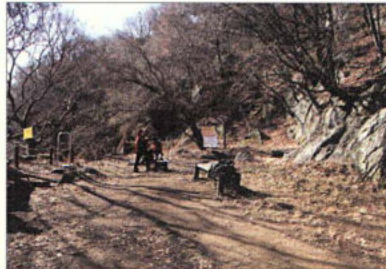
봉수대 수습 자기·토기류

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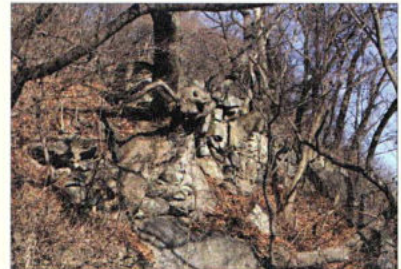
- 또한 이들 6개소의 봉수 중 실제로 경남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소재의 위천봉수 건물지는 고고학적 조사를 통해 정면3칸, 측면2칸의 맞배지붕 기와집 건물로 추정된 바 있음²¹⁾
- 이들 문헌기록에 전하는 6개소 봉수의 가옥형태는 기와집이 위천·부로산·고성산·소산, 초가집이 금성산, 임시가옥이 금성산, 꽃집이 위천, 장대기와집이 남목봉수 등에서 확인되어 이러한 가옥시설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상대적인 봉수의 중요성과 규모를 알 수 있음
- 과거 봉수제가 운영되던 당시 석성산봉수의 건물지가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은 봉수 남동쪽 하단부의 평탄지임
- 이곳은 석성산성내 사찰인 통화사에서 산정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위치하며 등산객들의 휴식을 위한 벤치와 체육시설이 마련되어있고 우물이 한 개소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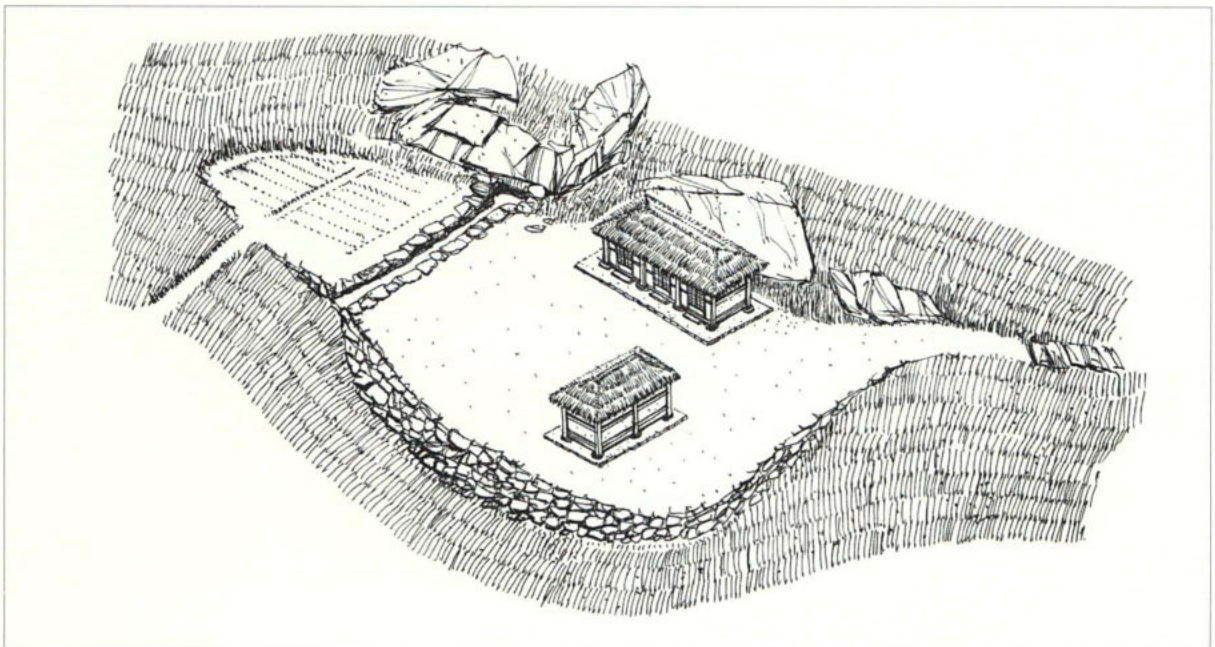
석성산봉수 건물지(남쪽에서)



석성산봉수 건물지(북쪽에서)



건물지 하단 석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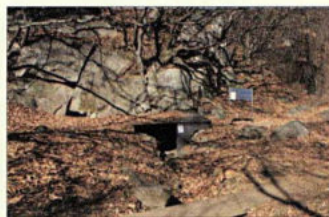


석성산봉수 건물지 약실축도(이철영 교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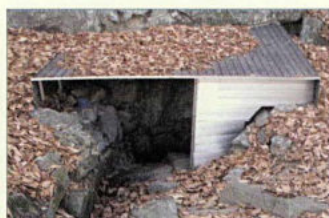


- 조망상 서쪽의 배후는 석성산 정상부이며 동으로는 널리 시야 확보가 용이함
- 향후 건물지의 유무 확인을 위한 발굴조사가 절실히 필요함

5) 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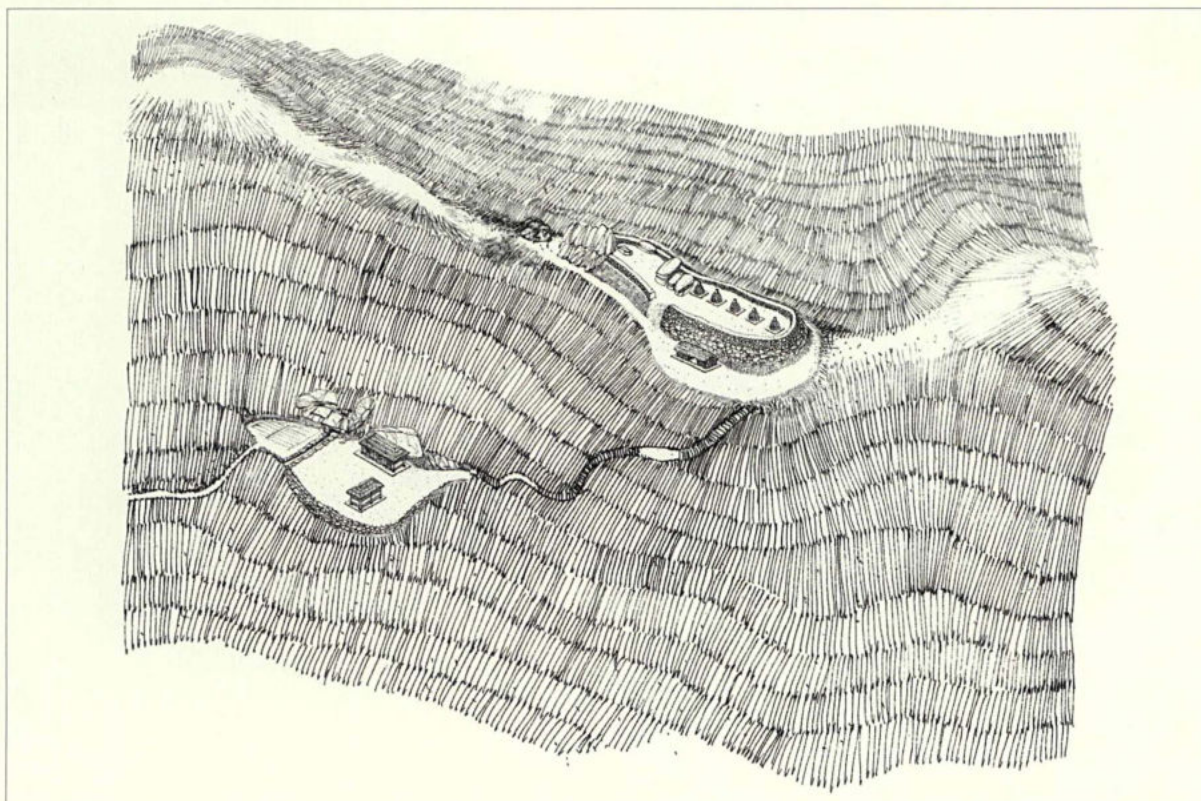


석성산봉수 우물



석성산봉수 우물 세부

- 우물은 봉수에서 근무하는 봉수군의 취사나 생활에 절대 필요한 요소임
- 현재 석성산봉수의 동쪽 하단부 건물지로 추정되는 곳에 우물지가 한 개소 남아 있음
- 서쪽에 바위암반을 배후삼아 화강석으로 시설함
- 동쪽으로는 길게 배수시설을 마련하여 물이 배출되도록 한 상태인데 평면 원형임
- 현재 오염으로 인해 식수로 사용이 불가능하며 우물의 보호를 위해 상부와 정면에는 알루미늄과 합석을 이용한 보호시설을 마련함



석성산봉수 추정복원도(이철영 교수 작성)



봉수대(항공사진)



봉수대(동쪽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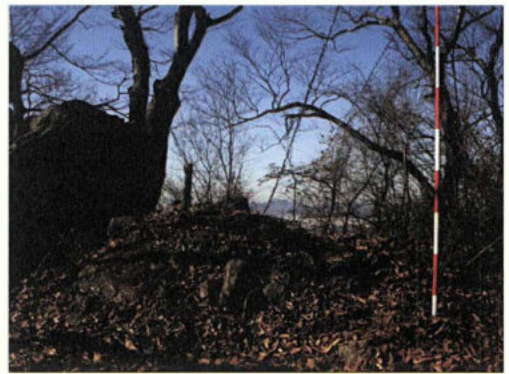
봉수대(동쪽에서)



봉수대 전경(남쪽에서)



봉수대 내 폐기된 간이 균용 초소



연조 1



연조 2



연조 3

석성산봉수 현황 1



서쪽 방호벽 측량 모습



방호벽 서벽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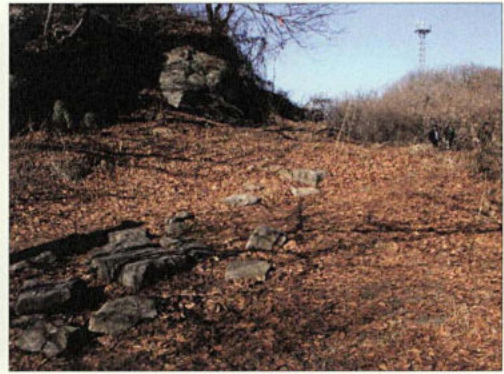
방호벽 세부 1



방호벽 세부 2



봉수대 동쪽 건물지 흔적 1



봉수대 동쪽 건물지 흔적 2



봉수대 동쪽 건물지 기반노출모습



봉수대 수습유물현황



석성산봉수 건물지 전경(항공사진)



석성산성 봉수 건물지(북-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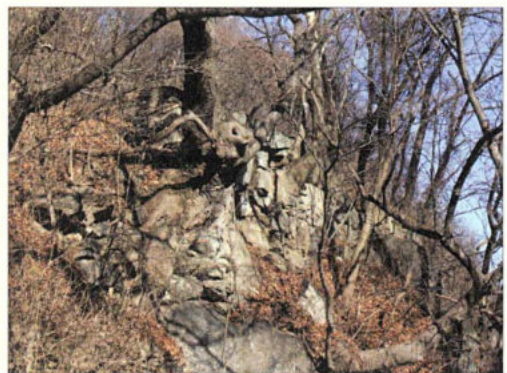
석성산성 봉수 건물지 전경(남-북)



건물지 내 안내판 모습



건물지 남쪽의 나무다리 모습



건물지 동쪽의 석축



건물지내 우물 전경



건물지내 치석된 석재



봉수대와 석성산 정상(항공촬영)



석성산 정상의 국기게양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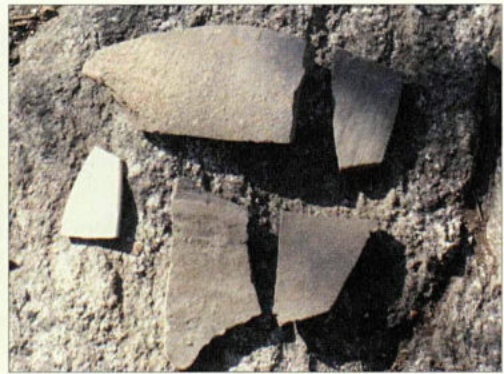
석성산 정상의 석성산 표지석



석성산 정상에 설치된 편의시설



정상부내 평탄지 전경



정상부 수습유물 현황



북쪽 등산로 전경



북쪽 등산로의 이정표

석성산 정상 현황



석성산성 서벽 잔존 1구간 성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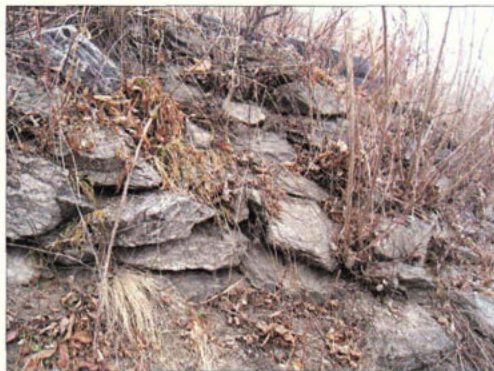
석성산성 서벽 잔존 1구간 축조상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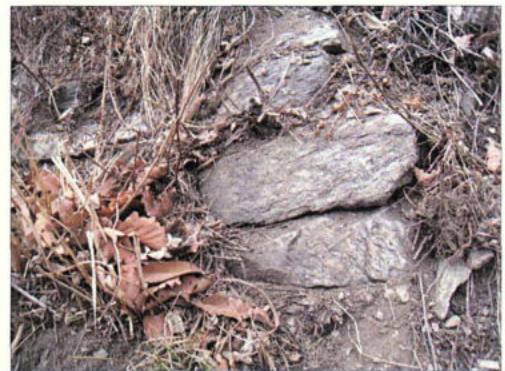
석성산성 서벽 잔존 1구간 축조상태 2



석성산성 서벽 잔존 1구간 조사 모습



석성산성 서벽 잔존 2구간 축조상태



석성산성 서벽 잔존 2구간 성돌



석성산성 서벽 잔존 3구간 축조상태 1



석성산성 서벽 잔존 3구간 축조상태 2

석성산성 현황 1



석성산성 정상부 북쪽 평탄지 조사모습



석성산성 정상부 동쪽 평탄지



석성산성 성돌 1



석성산성 성돌 2



석성산성 성돌 3



석성산성 유물 노출 상태 1



석성산성 유물 노출 상태 2



석성산성 유물 노출 상태 3

석성산성 현황 2



석성산성 정상부 1구간 수습 유물



석성산성 정상부 2구간 수습 유물



석성산성 정상부 3구간 수습 유물



석성산성 정상부 4구간 수습 기와류



석성산성 정상부 4구간 수습 토기류



석성산성 정상부 5구간 수습 기와류



석성산성 정상부 5구간 수습 자기류



석성산성 정상부 6구간 수습 기와류

석성산성 내 수습 유물



석성산성 정상부 남벽 잔존 1구간



석성산성 정상부 남벽 잔존 1구간 조사모습



석성산성 정상부 남벽 잔존 1구간 축조상태 1



석성산성 정상부 남벽 잔존 1구간 축조상태 2



석성산성 정상부 남벽 잔존 1구간 축조상태 3



석성산성 정상부 남벽 잔존 2구간



석성산성 정상부 남벽 잔존 2구간 축조상태



석성산성 정상부

석성산성 현황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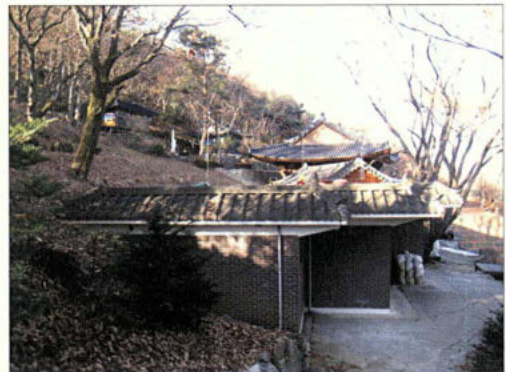
석성산성 남벽 내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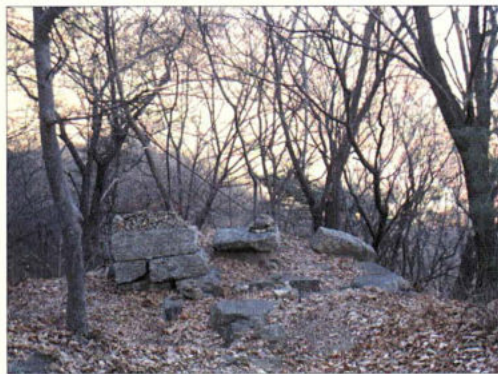
석성산성 남벽 내부 2



석성산성 남벽 내부 3



석성산성 내 통화사



석성산성 동문지 1



석성산성 동문지 2



석성산성 동문지 3



석성산성 동문지 4

석성산성 현황 4



석성산성 동문지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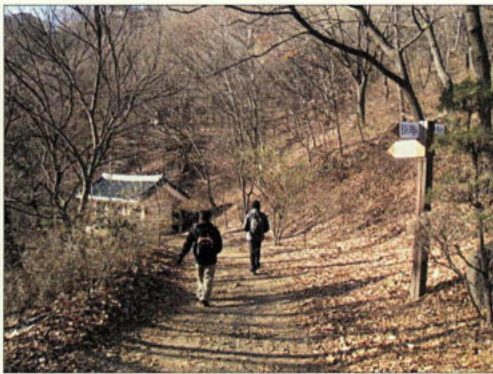
석성산성 동문지 6



석성산성 동벽내 평탄지



석성산성 동벽내 통화사



석성산성 남벽 진입로



석성산성 남벽내 정암 조광조 영정을 모신 사당



석성산성 남벽 잔존구간 1(진입로 주변)



석성산성 남벽 잔존구간 2(진입로 주변)

석성산성 현황 5



3. 유사사례 분석

1) 평면형태



성남 천림산봉수(장반타원형)



고성 천왕점봉수(타원형)

- 내지봉수는 연변봉수와 달리 평면이 주로 방호벽의 형태에 따라 구분되므로 분류가 매우 용이함
- 방호벽의 형태에 따라 내지봉수의 평면형태를 분류하면 크게 직방형과 원형으로 구분됨
- 그러나, 직방형이라도 성남 천림산봉수와 같이 장반타원형이거나 혹은 창녕 여통산봉수와 같은 세장방형 등 여러 형태로 분류할 수 있음
- 방형 다음으로 많은 평면형태는 원형으로 이 형태의 가장 전형적인 봉수는 고양 독산봉수, 연양 부로산봉수 등이나 원형이라도 고성 천왕점·곡산봉수, 의령 미타산봉수와 같이 타원형 혹은 장타원형이나 란형 등 여러 형태로 분류할 수 있음
- 규모면에서 대부분의 내지봉수는 방호벽 외부둘레를 기준으로 평균 70~80m 내외이며, 간혹 100m가 넘는 대형의 봉수도 일부 확인됨²²⁾

2) 봉수 시설물

(1) 연조

- 연조는 조선시대 봉수제가 운영되던 당시 평화시의 1거는 물론이고 비상시의 5거를 위해 내지봉수에 필수적으로 갖추고 있어야만 했던 중요 시설임
- 아궁이·봉조·봉돈·연굴로도 불리우나 연조가 옳은 용어임²³⁾
- 이러한 연조는 연변봉수에서도 드물게 확인되는데 연조의 수와 배치에는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음
- 반면, 내지봉수에 있어 연조의 배치는 거화를 위한 중요 시설인만큼 방호벽내 신호를 보내는 방향에 일정한 간격으로 시설하는 것이 가장 전형적이고 일반적인 형태이나 드물게 청도 남산봉수·창녕 여통산봉수·고

22) 서울 開花山烽燧(둘레 54.5m)·충주 馬山烽燧(둘레 62m)·봉화 龍岾山烽燧(둘레 66.6m)의 경우 평균 이하의 소형 규모이며, 영천 蘇山烽燧(둘레 102.5m)의 경우 평균 이상의 대형 규모이다.

23) 腹裏烽火 非沿邊烟臺之比 勿築臺 於在前排設峯頭 除地築烟窩 上尖下大 或方或圓 高不過十尺 且繚以垣牆 以避惡獸 (『世宗實錄』 卷115, 世宗29年3月4日 丙寅 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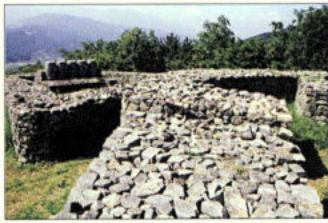


양 독산봉수처럼 연조가 방호벽 외부에 시설된 경우도 있음

- 아래에서는 방호벽내·외 연조의 배치상태에 따라 이를 구분하여 각각 대표적인 봉수를 소개함.

① 방호벽 내부

가. 양산 위천봉수



양산 위천봉수



양산 위천봉수 복원 연조

- 위천봉수는 부산 다대포진 응봉에서 초기한 제2거 직봉노선의 봉수가 경상지역의 여러 봉수를 거쳐 부산 계명산봉수에 이르면 여기에서 보내는 신호를 받아 언양 부로산봉수에 응함
- 원적산봉수로도 지칭되며, 경상남도 기념물 제118호로 지정됨
- 봉수가 위치하는 곳은 경남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의 산정상부 해발 325m 지점이며 1991년 원적산봉수대 보존회에 의해 지표조사²⁴⁾ 후 복원이 이루어짐.
- 봉수의 전체적인 평면형태는 직방형과 타원형의 석축 방호벽이 연결하여 있는 부정형이며, 구조와 축조수법은 동-서 장축의 할석으로 쌓은 주변 석축이 있고 정상부인 동쪽은 둥글게 쌓아 그속에 와가와 창고틀, 그리고 서쪽은 능선 정상부를 따라 경사지게 장방형으로 쌓고 그 속에 화덕을 배치하였음
- 연조는 바로 정상부 서쪽의 화덕이 배치된 방호벽 내에 위치하나 현재는 화강석으로 수원의 화성봉돈을 모방하여 소형으로 복원이 이루어져 있음

나. 고성 천왕점봉수



고성 천왕점봉수

- 천왕점봉수는 거제 가라산봉수에서 초기한 제2거 간봉(2)노선의 봉수가 통영 우산봉수에 이르면 여기에서 보내는 신호를 받아 곡산봉수에 응함
- 다음에 신호를 전달하는 곡산봉수와 마찬가지로 연대가 없는 평면 타원형의 내지봉수 형태이면서 입지적으로는 해안에 인접하여 있는 연변봉수라는 독특한 형태로 내지+연변봉수의 복합형태를 띠고 있음
- 봉수가 위치하는 곳은 경남 고성군 대가면 양화리의 봉화산(353m) 정상 부로서 2004년 경남고고학연구소에 의해 시굴조사²⁵⁾가 실시되었음
- 천치봉수로도 지칭되며 경상남도 기념물 제221호로 지정됨

24) 圓寂山烽燧臺保存會, 1991, 『梁山圓寂山烽燧臺 精密地表調査報告』, 12~15쪽.

25) (사)경남고고학연구소, 2005, 『固城 天王岾烽燧 시굴조사 지도위원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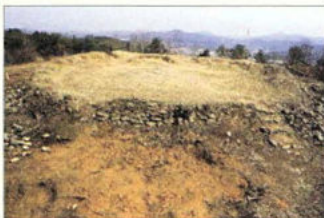


고성 천왕점봉수 연조

- 봉수는 평면 타원형의 형태로 단면 'ㅍ' 자형임
- 조사를 통해 방호벽내에 3개소의 연조가 설치된 방호벽+연조형의 봉수 구조와 출입시설·우물 등이 확인됨
- 연조는 3개소가 확인되었는데 방호벽의 내부에 설치되어 있으며 서벽에 인접해 있음
- 평면형태는 원형으로 각 연조간 거리는 2~3m 정도이고 북동-남서향으로 일직선상에 위치함
- 연조의 규모는 내직경 0.8m, 외직경 1m 정도로 3개 모두 균일하고 이중 2개 연조는 한쪽이 틈여 있는데 화구부로 판단되며, 내부에는 검은 재가 가득 차 있음
- 봉수의 전체규모는 동서 15.7m, 남북 19.6m, 높이 3m, 둘레 68m 가량으로 비교적 작은 규모의 소형급에 속함

② 방호벽 외부

가. 고양 독산봉수



고양 독산봉수



고양 독산봉수 연조

- 독산봉수는 강제 여둔대에서 초기한 제3거 직봉노선의 봉수가 북한내 여러 봉수를 거쳐 경기지역내 파주 대산봉수에 이르면 여기에서 보내는 신호를 받아 동지역의 해포봉수에 응함
- 소질달산봉수·문수산봉수·문봉리봉수로도 지칭되고 있음
- 봉수가 위치하는 곳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문봉동 일대임
- 봉수의 전체적인 평면형태는 원형으로서 경기지역내의 봉수 중 유례가 없는 특이한 형태임
- 5개소의 연조가 동서쪽 방호벽에 인접하여 별도로 평탄하게 조성된 대지에 시설되어 있으며 이중 3개소의 석축원형 연조가 남아 있고 나머지 2개소는 유지만 확인됨
- 각 연조의 직경은 2~2.4m의 소형이며 각 연조간 거리는 평균 2.4m 가량임
- 연조가 시설된 평탄지의 규모는 폭 4m, 길이 16.8m 임²⁶⁾
- 봉수의 규모는 동서 23m, 남북 22m, 둘레 74.6m 가량으로 일반적인 내지봉수의 평균 규모임

26)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1999, 『고양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425~429쪽.



창녕 여통산봉수 항공사진



창녕 여통산봉수 연조 1호

나. 창녕 여통산봉수

- 여통산봉수는 부산 天城堡에서 초기한 제2거 간봉(6)노선의 봉수가 경상지역내 여러 봉수를 거쳐 남쪽의 영산 소산봉수에 이르면 여기에서 보내는 신호를 받아 동 군 소재 태백산봉수에 응함
- 봉수가 위치하는 곳은 경상남도 창녕군 장마면 초곡리의 해발 129m의 산정상부임
- 최근 우리문화재연구원에 의한 발굴조사가 실시됨
- 조사를 통해 동쪽을 제외한 3면을 석축으로 두른 방호벽이 뚜렷하게 남아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경사도가 심한 남벽이 벽석 유실의 정도가 심함
- 방호벽의 전체 평면형태는 세장방향으로, 장축방향은 東西에 가까우며, 확인된 규모는 남북 약 12m, 동서 약 33m임
- 벽석이 확인되지 않는 동쪽까지 고려하면 전체 둘레는 90m 전후이며, 내부의 면적은 약 396㎡(약 120평) 정도로 추정되는 규모면에서 비교적 대형급에 속함
- 조사당시 방호벽의 북벽에 접해 원형 돌무더기의 형태로 잔존하는 유구 5개소를 모두 연조로 보고함
- 이중 제1연조는 세장방향 방호벽 밖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봉수대의 규모가 큰 만큼 각 연조간의 거리도 넓은 편임
- 가장 동쪽의 1호 연조와 가장 서쪽의 5호 연조 간 거리는 약 47m로서 방호벽의 길이보다 김
- 이는 1호 연조가 방호벽에서 훨씬 벗어난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며 나머지 4기의 연조는 방호벽 내의 북벽쪽에 붙어 확인됨
- 즉, 1·2연조간 거리는 21.5m, 2·3연조간 거리는 6.5m, 3·4연조간 거리는 1.5m, 4·5연조간 거리는 5.5m 임²⁷⁾
- 이후 정식보고서를 통해 정형화된 연조는 3기이며 이중 방호벽의 북·서벽 모서리 부분에 위치하는 연조 3호에서는 연조 상부에서 다량의 기와편이 확인되었고, 연조의 굴뚝 시설로 사용된 기와와 연조 하부 구조물로서 재가 가득 담긴 옹기 등이 확인되었음
- 다른 연조와는 달리 하부에 옹기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지금까지 다른 지역에서 확인된 예는 없음²⁸⁾

27) 김성미, 2006, 「창녕 여통산봉수대 발굴조사 개보」, 『한국성곽학보』 제9집, 한국성곽학회, 179~180쪽.

28) 우리문화재연구원, 2007, 『昌寧 餘通山 烽燧臺 遺蹟』.



(2) 방호벽



성남 천림산붕수 동북쪽 방호벽



울산 부로산붕수 담장지

- 내지붕수에 있어 방호벽은 과거 붕수제가 운영되던 당시 붕수군의 신변 안전과 방화기능을 하던 중요한 요소임
- 또한 붕수의 평면형태를 결정하며 개방식 혹은 계단식의 출입시설이 부가될 뿐만 아니라 상부에는 담장을 올렸던 흔적이 남아 있음
- 대부분 석축하며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화강암을 채석하여 높이 1~2m의 규모로 축조함
- 축조에 있어 정형성은 없으며 채석한 석재의 면이 바른쪽을 바깥으로 내었으며 지형에 따라 대형 바위암반을 기초로 하여 축조하거나 석재 사이의 틈에는 주먹크기의 작은 돌로 채워넣기도 함

(3) 건물지



양산 위천붕수 창고지



고흥 유주산붕수 건물지

- 건물지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붕수군이 근무를 하면서 풍우를 피하고 취사를 하기 위한 생활시설 중 가장 중요한 요소임
- 현재 국내에서 그동안 이루어진 붕수 조사를 통해 어느정도의 규모를 알 수 있는 건물지가 확인된 경우는 아래의 표와 같음
- 성격별로는 전체 11개소의 붕수 중 연변붕수가 5개소, 내지붕수가 6개소이나, 조사를 통해 건물의 성격과 규모가 밝혀진 붕수는 양산 위천, 고흥 유주산, 공주 월성산 등 3개소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잔존 유구를 놓고 추정함
- 붕수와 건물지의 상호 위치관계를 놓고 볼 때 붕수내부에 건물지가 위치하는 경우는 연변붕수인 기장 아이붕수와 내지붕수인 양산 위천, 의령 미타산, 진주 광제산, 충주 주정산, 공주 월성산붕수 등이 있으며 반면에 붕수외부에 건물지가 위치하는 경우는 대부분 연변붕수로서 부산 천성보, 통영 미륵산, 밀양 추화산, 고성 좌이산, 고흥 유주산붕수 등이 있음
- 이를 통해 석성산붕수는 대부분의 내지붕수 건물지가 붕수 내부에 있는 반면 외부에 있는 경우로서 이러한 요인은 다음과 같이 두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 첫째, 석성산붕수는 붕수제가 운영되던 당시 수도 한양과 가까워 타붕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하였던 후방의 내지붕수였으므로 굳이 외부로부터의 침입이나 사나운 짐승들로부터의 습격 등 신변안전을 고려하여 붕수내부에 건물지를 둘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추정됨
 - 둘째, 석성산붕수는 타 붕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해발고도가 높은 고지



대에 위치하는 봉수이며 또한 입지와 지형상 사방으로의 시야확보는 용이하나 남-북으로 좁고 길쭉한 능선을 이루고 있어 봉수내부에 건물 이 들어서기에 부적절한 위치이므로 봉수 동쪽방호벽 하단부의 평탄지 가 건물지가 들어서기에 가장 적합한 입지조건이 되어 외부에 축조된 것임

■ 건물지 조사 봉수 일람

봉수 명칭	초축 시기	해발 (m)	노선 및 성격	대응 봉수	평면 형태	건물지 및 관련시설				비 고
						장축	규모(m)	위치	관련시설	
기장 아이	고려	129.2	제2거 간봉(1) 연변봉수	남산 →이길	원형	.	.	봉수내부 동남쪽	내·외 2중 호	시굴조사 실시 부산시기념물 제38호
부산 천성보	고려	459.4	제2거 간봉(6) 연변봉수	→ 사회랑	원형	.	.	봉수외부 남쪽	망대	대마도 방면의 왜구침입 감시
통영 미륵산	조선 전기	461	제2거 간봉(2) 연변봉수	가라산 →우산	.	남-북	동서 6 남북 6.5	봉수외부 동남쪽	계사유구	경남기념물 제210호
고성 좌이산	고려	.	제2거 간봉(4) 연변봉수	사랑진 →각산	장방형	동-서	.	연대 동쪽하단	연조, 온돌, 굴뚝	경남기념물 제138호 고흥 유주산봉수와 건물지 입지·형태 유사
양산 위천	조선 전기	325	제2거 직봉 내지봉수	계명산 →부로산	복합형	동-서	정면3간, 측면 2간 목조와가	봉수내부 동쪽	고사, 화덕	경남기념물 제118호
의령 미타산	고려	640	제2거 간봉(2) 내지봉수	가막산 →미승산	타원형	동-서	정면3간 규모 추정	봉수내부 서쪽	.	미타산성 내 충주 주정산 봉수와 평면형태 유사
진주 광계산	고려	419.8	제2거 간봉(9) 내지봉수	망진산 →입암산	장관형	동-서	동쪽 온돌 (동서3, 남북3) 서쪽 온돌 (동서2.6, 남북3)	봉수내부 서쪽상단	동·서 온돌시설 2개소, 창고	시굴조사 실시 경남기념물 제158호
밀양 추화산	고려	227.4	제2거 간봉(7) 내지봉수	남산 →분향	말각 방형	.	10×10 목조와가	봉수외부 동남쪽 하단	.	시굴조사 실시 추화산성내
충주 주정산	.	440.2	제2거 간봉 내지봉수	마골치 →대림성	타원형	남-북	.	봉수내부 남쪽	3간 고사	국내최초발굴조사 충북기념물 제113호
고흥 유주산	조선 전기	416.6	제5거 간봉 연변봉수	마복산 →천등산	방형	남-북 (건물)	외곽:14.8×13.3 내곽:9.7×8	연대 동쪽하단	3동의 건물지, 남쪽입구우물지	고성 좌이산봉수와 건물지 입지·형태 유사
공주 월성산	.	312.6	제5거 직봉 내지봉수	노성산 →고등산	세장 타원	남-북	정면3간(2.4) 측면2간(2.1)	봉수내부 남쪽	백제 저수시설	충남지역 최초 시굴조사 실시

(4) 우물

- 우물은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봉수에서 근무하는 봉수군의 취사나 생활에 절대 필요한 요소로서 과거 봉수제가 운영되던 당시에는 모든 봉수마다 우물이 반드시 봉수나 건물지 인근에 있었을 것이나, 현재 전국적으로 우물이 확인된 봉수는 그리 많지 않음
- 이는 봉수제가 폐지되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지형이 변화하였거나



포항 뇌성봉수 원형 우물



청주 것대산봉수 원형 우물



고흥 유주산봉수 방형 우물



고흥 봉래산봉수 방형 우물

혹은 매몰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됨

- 봉수의 평면형태는 대부분 원형이나 고흥 유주산봉수와 봉래산봉수의 경우 특이하게 4각형임. 평면 원형의 봉수로서 지금까지의 조사결과 우물의 잔존상태가 가장 양호한 봉수는 포항 뇌성봉수 우물과 청주 거질대산봉수 우물 정도임
- 포항 뇌성봉수는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모포리의 해발 212m인 뇌성산성 내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포항지역내 유일하게 뇌성산성 내에 소재하는 봉수임
- 봉수의 규모는 석축으로 전체 둘레 101.3m 가량의 대형으로 우물은 방호벽에서 서북쪽 바깥에 위치하는데 평면 원형의 석축으로 너비는 안쪽이 0.8m, 바깥쪽이 1.3m이며 깊이 0.8m 이하로는 흙으로 채워져 있음
- 우물 축조에 사용된 석재는 30×16, 32×18, 35×24cm 가량의 화강석을 이용함
- 청주 거질대산봉수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의 속칭 봉화뚝에 위치함
- 청주읍성과 상당산성을 잇는 옛길인 상봉재의 동쪽에 솟아있는 해발 443.4m의 산봉우리에 위치함
- 우물은 봉수에서 서북쪽 하단부 계곡의 중앙 지점에 있는데 주변의 할석을 이용하여 우물의 내벽을 쌓음
- 평면 원형의 석축으로 내부의 직경 47cm이고, 깊이는 인수구(뒷쪽)가 120cm, 배수구(앞쪽)가 65cm임
- 우물의 앞쪽에는 길이 590cm, 폭 20cm 정도의 배수구를 만들었는데 우물에서 170cm 지점까지는 판석형의 잡석으로 복개를 하였고 그 아래쪽은 노출시키고 대략 1m 간격으로 납작한 돌을 가로 놓았음
- 우물의 내부를 시멘트로 발라 정비하였으며 수량이 풍부하고 수질이 양호함²⁹⁾
- 이상 언급한 평면 원형의 봉수외에 평면 방형의 봉수는 고흥 유주산봉수와 봉래산봉수처럼 고흥이라는 특정지역에서 주로 확인되고 있음
- 유주산봉수는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구암리의 해발 416.6m의 유주산 정상에 위치함
- 우물은 봉수 하단부 건물지의 남쪽 바로 앞에 4매의 판석을 세워 방형으로 축조함

29) 청주대학교 박물관, 2001, 『청주 것대산봉수터 발굴조사보고서』, 9~1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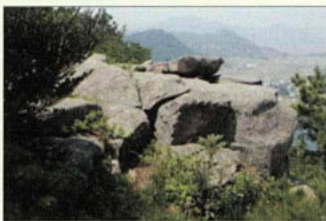


- 우물의 크기는 1.1×0.85m이고, 북쪽은 판석 1매를 덮어 현재 우물 입구의 크기는 0.45×0.55m³⁰⁾
- 봉래산붕수는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하반리의 해발 397.8m의 봉래산 정상에 위치함
- 우물은 붕수 하단부 서쪽에 위치하며 평면 방향으로 석축하였으며 직경 1m, 깊이 1.1m임

(5) 채석장



고흥 유주산붕수 채석장



하동 계화산붕수 채석장

- 끝으로 앞에서 언급한 연조·방호벽·우물 등의 붕수 운영을 위한 각종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량의 석재가 필요하며 이들 석재는 멀리서 가져 오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화강석을 채취하여 조달함
- 석성산붕수는 붕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성내에 있는 붕수이며 특히 돌 '石' 자를 어두에 사용하고 있어 붕수 축조에 필요한 석재 채취에 곤란은 없었던 것으로 여겨짐
- 이러한 사실은 현재 붕수가 들어서 있는 곳이 바위 암반 상부로서 연조와 방호벽 등을 축조하는데 필요한 석재를 충분히 제공 받을 수 있음
- 현재 붕수조사를 통해 붕수 주변에서 채석지가 확인된 곳은 다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고흥 유주산붕수와 하동 계화산붕수가 있음
- 고흥 유주산붕수 채석지는 사진에서 보듯 연대 하단부 산 사면으로 크고 작은 다량의 화강석이 산재하고 있어 연대 뿐만 아니라 건물지 및 우물의 축조시 주변의 풍부한 이들 석재를 사용하였을 것으로 짐작됨
- 하동 계화산붕수는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일원의 해발 191m인 두우산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직선거리 200m에 있는 능선 평탄부에 자리잡고 있음
- 채석지는 연대와 바로 인접하여 북쪽 하단부에 위치하여 괴석 모양인데 채석시 돌을 떼기 위한 절리면이 확인됨

30) 順天大學校 博物館, 2002, 『高興郡의 護國遺蹟Ⅱ-烽燧-』, 36~42쪽.



Ⅲ. 여건분석

1. 현황분석

1) 석성산봉수의 SWOT 분석

<p>■ 강점(Strength)</p>	<p>■ 기회요인(Opportun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 보존상태 양호함 • 봉수대라는 차별성 • 수려한 자연환경 보유 • 주변유적과 연계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심과 다운타운에서 가까이 위치한 높은 활용가치 • 공원으로서 발전가능성 높음 • 꾸준한 방문객 확보 가능
<p>■ 약점(Weakness)</p>	<p>■ 위협요인(Threa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험준한 지형으로 접근성 낮음 • 사유지와 군사보호구역 존재 • 인접 관광자원 빈약 • 고유의 정체성 부재 • 방문객 안전사고 우려 상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린벨트 해제요구 높음 • 조사 미비로 인한 자료부족 • 성남시 천림산봉수 정비 등 경쟁 대상 사업 본격화
<p>◇ 석성산봉수의 강점과 기회요인은 발전시키고 약점과 위협요인을 극복하기 위하여</p> <p>◇ 석성산봉수 종합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차질 없는 시행을 통해 2020년까지 품격 있고 아름다운 '석성산봉수 역사광장' 을 건립</p>	



2. 유적정비 여건 및 잠재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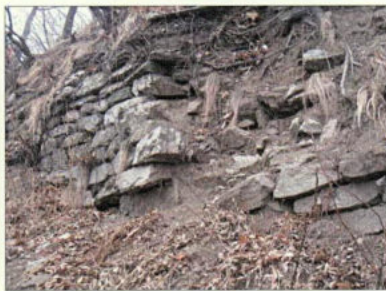
1) 유적정비에 따르는 문제점

(1) 공원조성 계획상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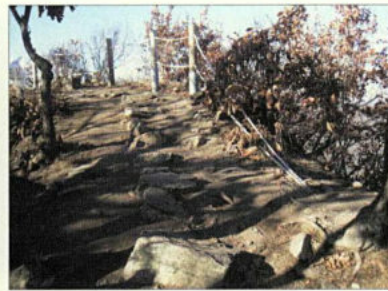
- 2020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석성산 일대는 도시자연공원인 중앙공원(4,672km²)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구상됨
- 위 계획에 따르면 석성산 녹지지역내의 공원은 자연공원을 기본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 이에 따라 석성산봉수 정비시 자연공원의 개념에 부합하는 유적정비의 가이드라인 설정이 요구됨

(2) 유적조사의 미비

- 석성산봉수는 1999년 기초 지표조사가 실시된 이래 추후 문화재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임
- 지표조사 결과 산성의 전체 규모만 밝혀졌으며 석성산봉수의 역사성을 충분히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유적조사가 요구됨
- 추가조사시 석성산봉수와 함께 축조된 유적인 석성산성에 대한 학술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할미산성, 시루봉유적 등과 연계한 정비를 위해서는 주변유적에 대한 조사도 병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석성산성 정상부 성벽



석성산성 정상부 여장



할미산성 서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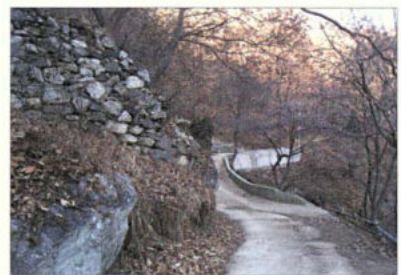
(3) 등산객 집중에 의한 유적 훼손 및 자연경관 파괴

- 석성산은 광주산맥에서 남쪽으로 뻗은 지맥으로 도심에 인접해 있어 훌륭한 전망을 가지고 있으며 주말이면 용인시민들의 등산 및 휴식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음

- 이로 인해 석성산과 주변에는 수많은 등산로와 우회등산로가 조성되어 있으며 유적과 자연환경의 훼손이 계속됨
- 이에 따라 유적과 자연환경의 보호를 위해 등산객의 제한과 부적정한 우회 등산로의 폐쇄가 요구됨
- 한편 등산객들이 전망을 즐기기 위해 봉수대 내로 진입할 때에는 추정건물지나 방호벽 등 봉수대 주요 시설물을 밟고 다니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이 요구됨



등산로 개설로 인한 유적 훼손

(4) 사유지 점유에 의한 유적 파괴



흉물스러운 군용 임시 초소

- 석성산봉수 인접 토지는 대부분 사유지이거나 사찰소유로 분묘나 사찰 조성 등으로 활용되고 있음
- 석성산봉수의 건물지는 유적의 발굴조사를 통해 노출된 것이 아니며 등산로상에 자연스럽게 노출되어있는 만큼 등산객에 의한 유적 훼손은 매우 심각한 상황임
- 퇴적층이 얇은 봉수대의 특성상 분묘조성 등을 엄격히 제한하여야 하며 현상변경 제한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토지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봉수대 인접한 군사시설물 구축 등은 군부대와 협의하에 가급적 자제하고 초소 등 군사시설물 설치는 유적 환경을 보호하고 군부대 작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상화할 필요가 있음

(5) 유적정비에 따른 민원발생

- 서울시 광진구 소재 아차산은 도심에 인접한 등산코스로 서울시민의 사랑을 받는 산으로 석성산과 유사한 상황임
- 아차산 일대는 아차산 일대 고구려유적으로 지정된 고구려 보루군이 위



암벽에 조성한 등산로

치하고 있어 지속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 발굴조사지점은 대부분 등산로로 활용되는 능선 상면에 위치하고 있는데 유적발굴에 따르는 우회등산로가 개설되어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우회등산로 개설로 인한 등산코스의 험로화와 등산 소요시간의 장기화로 인해 다수의 불편과 민원이 발생한 바 있음
- 석성산봉수의 경우에도 발굴조사와 유적정비에 따른 우회로 정비시 이 같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2) 기대효과 및 잠재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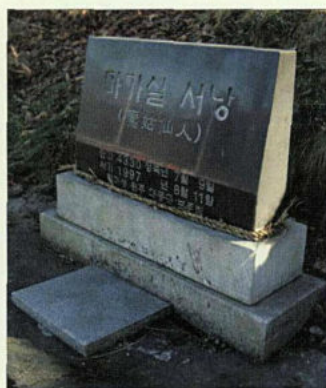
(1) 역사유적 내에 위치한 시민광장으로서의 역할



터키군 참전공원

- 문화유적지로서의 현장성을 살리고 주변 문화유적과의 연계를 통하여 시민의 문화재 애호의식을 활성화 시키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문화 발전에 공헌
- 용인 지역의 시간적·공간적 역사상을 보존하기 위하여 용인시의 역사 유적을 그대로 느끼고 감흥을 제공할 수 있는 형태의 역사광장 건립을 통해 지역주민의 일체감 형성에 기여하고 향토에 진작에 기여함

(2) 지역의 전통과 문화를 계승하는 문화시설로의 성격부여



마가실 서낭당

- 역사광장에서는 시민의 문화적 일체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문화재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문화재 교육에 기여
- 석성산봉수 역사광장 내에서는 역사유적의 성격과 형성과정을 이해함으로써 산역사의 체험장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청소년 관련 체험학습, 정서 함양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회적인 멘토링 활동의 장으로 활용
- 용인 석성산봉수 역사광장과 봉수박물관의 설립은 지역사회 문화활동의 중심지로서 시민들의 평생교육의 장이자 종합문화체험시설로 활용될 수 있음

(3) 지역주민을 위한 복합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 시민들이 자유롭게 휴식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건강 증진 프로그램 활용



- 관내 학교와 연계를 전제로 교육의 현장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확대된 서비스를 제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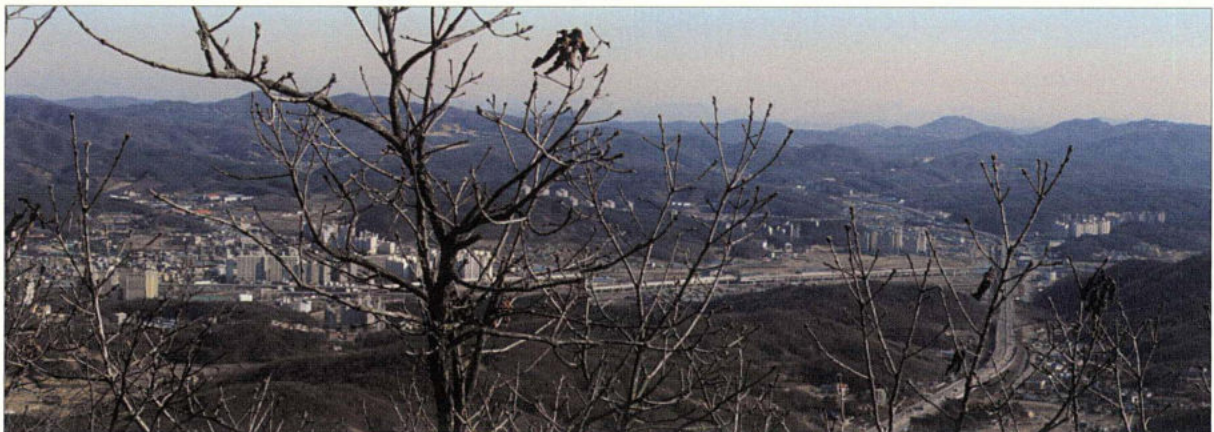
3) 입지환경 분석

(1) 입지 분석 기준

- 역사광장조성과 박물관 건립의 입지분석을 위하여 문화발전 정책적 측면, 이용자의 인지도 및 접근성 측면, 산지의 활용성 및 환경쾌적성 측면, 사업의 용이성 측면의 총4가지 기준을 설정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음



서쪽 전경



동쪽 전경

(2) 문화발전 정책적 측면

- 인접지역의 봉수대 유적과 연계하여 조선시대 통신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용인의 역사적 위상과 시민의 문화정체성을 확립하여 자긍심을 고취 시킴



- 석성산봉수와 석성산성, 할미산성 일대가 고대로부터 전략적 요충지인 관방유적 중심지임을 강조하여 문화의 지역별 특성을 부각시킴
- 석성산봉수와 주변일대의 민속촌과 에버랜드 등 주변 여가시설을 바탕으로 특성화된 문화지구를 조성하는 데 우수한 환경을 갖추고 있음

(3) 이용자의 인지도 및 접근성 측면

- 석성산봉수는 용인시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며 주변에 십자로 발달된 고속도로망과 간선도로망으로 인하여 다른 지역에서의 접근도 매우 용이한 지역으로써 광역적인 인지도 및 파급효과가 예상됨

(4) 산지의 활용성 및 환경 쾌적성 측면

- 석성산의 대부분은 녹지로 조성되어 있고 북쪽에는 에버랜드가 조성되어 있어 주변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문화공간 조성이 가능함
- 산지는 뾰족한 자연림을 구성하고 있어 주변의 녹지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으며 쾌적한 자연조건으로 환경요건이 양호함

(5) 사업의 용이성 측면

- 호국·관방유적의 중심지 용인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시점에서 주민들과의 마찰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자연녹지의 공원화시설비가 다소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사업진행에 따라 국방부 및 사유지 소유자와의 원활한 협의가 요구되며 관할 법률 안에서 사업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3. 정비사례검토

1) 남산봉수대

- 위치 : 서울 중구 예장동 8-1
- 별칭 : 목멱산봉수(木覓山烽燧), 경봉수(京烽燧)
- 성격 : 경봉수(내지봉수)
- 시대 : 조선시대



남산烽수



아차산에서 본 남산烽수대

- 지정 : 서울시 기념물 제14호
- 현황 : 남산烽수대는 조선 세종 5년(1423)에 축조되어 갑오경장 이듬해(1895)까지 약 500년간 사용되었다. 면적은 237.27㎡로 연대는 5개이다. 평상시에 1개, 적출현시에 2개, 적이 경계에 접근하면 3개, 경계를 침범하면 4개, 전투가 벌어지면 5개의 불을 올리도록 하였다. 남산烽수대는 전국의烽수가 도달하게 되는 중앙烽수대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던 곳이다.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향하여 5개소가 있었다 하는데, 현재烽수대는 없어지고 터만 남아 있다. 기록이 전해지지 않아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없다. 『청구도』등의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1개소를 복원하였는데, 수원 화성 봉돈과 유사하다.

2) 성남 천림산烽수



천림산烽수(발굴조사후)

- 위치 : 경기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산35외
- 별칭 : 천천현烽수(穿川峴烽隧), 월천현烽수(月川峴烽隧)
- 성격 : 내지烽수
- 시대 : 조선시대
- 노선 : 제2거 직봉
- 지정 : 경기도 기념물 제179호
- 현황 : 국내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잔존상태가 양호한 조선 전기에 축조된 제2거 직봉노선의 내지烽수이다. 부산 동래의 다대포진 응봉에서 초기하여 남쪽의 용인 석성산烽수에서 보내는 신호를 받아 남산烽수에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하였다. 대응烽수의 거리는 석성산烽수와 18.75km, 남산烽수와 16km이다. 홍경모(洪敬謨)가 편찬한 『重訂 南漢誌』에 따르면 봉군25명, 보75명의 인원이 배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여러 문헌에 따르면 천천산→천천현→월천현(천림산) 등으로 시대에 따라 명칭이 변했음을 알 수 있으나 노선은 대응烽수의 노선에 변화가 없이 일관성을 유지하였다. 정밀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통해 외부 방형, 내부 원형의 2중 구조를 갖춘 연조 5개가 있었음이 밝혀졌다. 전체 둘레는 85m로 동서 길이 33.8m, 남북길이 12m이다.



3) 수원 화성봉돈



화성봉돈



화성봉돈

- 위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
- 별칭 : 안산봉수(安山烽燧)
- 성격 : 권설봉수
- 시대 : 조선시대
- 지정 : 사적 제3호
- 현황 : 수원 화성 성벽의 일부를 밖으로 돌출시켜 화강암으로 기초를 쌓고, 벽돌로 성벽보다 높게 축조하였다. 내면은 굴곡이 지게 하여 3층으로 만들었으며 5개의 화두를 곡선 형태로 쌓았다. 포혈과 총안을 갖추고 봉수군들이 사용할 구들방과 창고 등도 마련하였다. 화성시 장안면 흥천대 해봉으로부터 팔탄면 건달산의 간봉(間烽)을 받아 용인시 석성산봉수로 전달하였다.

4) 아산 연암산봉수



연암산봉수 연조(복원)

- 위치 : 충남 아산시 음봉면 동암리 연암산(해발 276m)
- 성격 : 내지봉수
- 시대 : 조선시대
- 노선 : 제5거 직봉
- 현황 : 봉수는 충남 아산시 음봉면 동암리와 소동리의 경계인 해발 276m인 연암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다. 초축 시기는 조선 중기이며 봉수노선과 성격상 제5거 직봉노선의 내지봉수이다. 천안 대학산봉수에서 신호를 받아 평택 망해산 봉수에 전달하였다. 평면 형태는 장란형이며, 2000년 아산시에 의해 복원이 이루어졌다. 방호벽과 계단식 출입시설에 대한 부분 정비 및 방호벽 내에 5개소 연조 중 1개소에 대한 복원 및 4개소의 연조 하부를 마련하였다.

5) 공주 월성산봉수

- 위치 : 충남 공주시 소학동 월성산
- 성격 : 내지봉수
- 시대 : 조선전기
- 노선 : 제5거 직봉



월성산봉수(발굴조사 후)

- 지정 : 공주시 향토유적 제15호
- 현황 : 월성산봉수는 충남 공주시 소학동의 해발 312.6m인 월성산 북쪽 봉우리 정상에 위치하고 있다. 초축 시기는 조선전기이며 봉수노선과 성격상 제5거 직봉노선의 내지봉수이다. 노성의 노성산봉수에서 신호를 받아 고등산봉수에 전달하였다. 봉수 규모는 전체둘레가 81.4m 가량이며 동서길이 12m, 남북길이 34.6m이다. 공주대학교 박물관의 발굴조사를 통해 내지봉수의 일반적인 규모와 형태임이 확인되었으며 향후의 문화재지정 및 정비·복원에 대비하여 원형보존이 이루어지고 있다.

6) 충주 주정산봉수



주정산봉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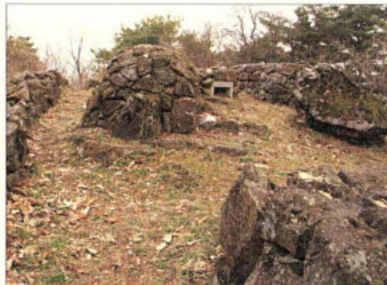
- 위치 : 충북 충주시 상모면 온천리 산47-2
- 성격 : 내지봉수
- 시대 : 고려~조선시대
- 노선 : 제2거 직봉
- 지정 : 충청북도 기념물 제113호
- 현황 : 충주시 상모면 온천리와 괴산군 장연면 추정리의 경계부분인 주정산 봉우리에 있는 이 봉수대는 고려시대에 축조되어 조선시대까지 이용된 것으로, 남쪽의 미륵리 마골재에서 봉수를 받아 북쪽의 대림산 봉수대에 전하였다. 발굴조사 결과 남북으로 긴 타원형의 방호벽, 석등을 갖춘 남북 2곳의 출입구, 화구(火口)와 화덕을 갖춘 봉조 5개소가 확인되었다. 봉수대의 완전한 구조가 밝혀져 우리나라 봉수제도의 실증적 연구를 심화시킬 수 있는 자료로 평가된다.



주정산봉수 연조 1



주정산봉수 연조 2



주정산봉수 연조 3



주정산봉수 연조 4



주정산봉수 연조 5



주정산봉수 연조 상세



주정산봉수 출입시설

7) 청주 거질대산봉수



거질대산봉수



거질대산봉수 연조(복원)

- 위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산107-1
- 별칭 : 짓대산봉수
- 성격 : 내지봉수
- 시대 : 조선전기
- 노선 : 제2거 간봉(9)
- 지정 : 충북 문화재자료 제26호
- 현황 : 거질대산봉수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의 해발 443.5m인 산 봉우리에 위치하고 있다. 초축 시기는 조선전기이며 봉수노선과 성격상 제2거 간봉노선의 내지봉수이다. 남쪽으로는 문의 소이산 봉수에서 연락을 받아 북쪽으로 진천 소을산 봉수에 연결하는 역할을 하였다. 봉수규모는 전체둘레가 69.2m 가량이며 동서길이 24.3m, 남북길이 16.3m이다. 최근 중원문화재연구원에 의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방호벽 내에는 발굴조사 전 행사를 위해 연조 1기를 복원하였다.

8) 동해 어달산봉수



어달산봉수

- 위치 : 강원도 동해시 대진동 산28
- 별칭 : 어을달봉수(於乙達烽燧)
- 성격 : 연변봉수
- 시대 : 고려~조선시대
- 지정 : 강원도 기념물 제13호
- 현황 : 동해 어달산 봉수는 강원도 동해시 대진동 어달산의 정상에 있다. 지름 9m, 높이 2m의 둥근 봉수대 터가 남아 있다. 고려시대 때



여진족의 침입에 대비하여 만들었던 것으로, 조선시대 때까지 계속하여 사용되었다. 어달산 봉수는 남쪽으로 삼척의 광진산 봉수에 연결되고, 북쪽으로는 강릉의 오근산 봉수에 연결되어 상황을 전한다. 2000년 강릉대학교 박물관에 의한 발굴 조사결과 연대 밑에서 방형의 기단이 확인되었고, 연대를 둘러싼 호 안쪽으로 돌을 쌓아 무너지는 것을 방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9) 진주 광제산봉수



광제산봉수(복원)



광제산봉수연조(복원)

- 위치 : 경남 진주시 명석면 덕곡리 산1
- 성격 : 내지봉수
- 시대 : 조선전기
- 노선 : 제2거 직봉
- 지정 : 경상남도 기념물 제158호
- 현황 : 광제산 봉수대는 조선 세종(재위 1418~1450) 때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며, 동에서 서울 목멱산봉수에 이르는 봉화선로를 연결하고 있다. 이곳 봉수대는 남쪽으로는 망진산 봉수대와 북쪽으로는 단성의 입암산 봉수와 연결되었다. 봉수대 일부의 흔적만 남아 있었으나, 2004년 경남발전연구원에 의한 시굴·발굴조사 후 방호벽과 방호벽 북쪽에 외방내원 형태로 3개소의 연조에 대한 복원이 이루어졌다.

10) 사천 안점산봉수



안점산봉수 전경(복원)



안점산봉수(복원)

- 위치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신복리 산4
- 성격 : 연변·내지
- 시대 : 조선전기
- 노선 : 제5거 간봉
- 지정 : 경상남도 기념물 제175호
- 현황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신복리의 해발 310m인 안점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다. 초축시기는 조선전기이며 봉수노선과 성격상 제5거 간봉노선으로 연변·내지 접점에 위치하는 봉수이다. 남쪽으로는 각 산 봉화와 마주 응답하고 북쪽으로는 진주의 망진산 봉화와 서로 마주 응답한다. 1993년 9월 아무런 조사없이 봉수 전체에 대한 복원이 이루어졌는데 원형의 석축연대 내부의 서북쪽에 5개소의



연조를 진주 망진봉수로 향하여 반구형으로 배치한 특이한 복원 형태이다. 복원 연조는 높이 150~160cm, 하부 둘레 440~450cm의 규모로 40×40cm의 방형 화구는 지표에 바로 인접하고 있다. 남동쪽에는 폭80cm의 출입시설이 1개소 마련되어 있다.

11) 김해 분산성봉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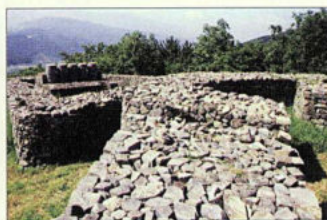
분산성 항공사진



분산성 봉수(복원)

- 위치 : 경남 김해시 어방동 산9
- 성격 : 내지봉수
- 시대 : 조선
- 노선 : 제2거 직봉
- 지정 : 사적 제66호
- 현황 : 경상남도 김해시 동쪽에 있는 해발 330m의 분성산(盆城山) 정상 부를 에워싼 삼국시대의 석축산성으로 둘레 약 929m의 성벽이 험준한 암벽을 이용하여 타원형으로 산 위의 평탄지를 감싸고 있다. 성은 산 위의 평탄한 지형과 안부(鞍部)를 둘러서 그 주위에 남북으로 긴 타원형을 이루는 테피형 산성으로, 2개의 문지와 1개의 암문이 남아 있다. 산성의 서남쪽에 있는 봉수대는 부산의 성화야봉수에서 신호를 받아 김해 자암산봉수로 전달하였다. 원래 터만 남아 있었으나 최근 복원하였다.

12) 양산 원적산봉수



원적산봉수(복원)



원적산봉수 봉돈(복원)

- 위치 : 경남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산20-21
- 별칭 : 위천봉수(渭川烽燧)
- 성격 : 내지봉수
- 시대 : 조선전기
- 노선 : 제2거 직봉
- 지정 : 경상남도 기념물 제118호
- 현황 : 경남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의 해발 325m인 원적산에 위치하고 있다. 초축 시기는 조선전기이며 봉수노선과 성격상 제2거 직봉노선의 내지봉수이다. 봉수 형태는 직방형과 타원형의 방호석축이 연결된 복합식 내지봉수로서 지표조사를 통해 방호벽과 5개소의 연조 및 창고지에 대한 복원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부속시설로



는 방호벽, 연조, 건물지, 창고지 등이 있다. 이중 수원 화성 봉돈을 모방하여 복원한 연조는 그 규모가 소형인데다 너무 가깝게 인접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는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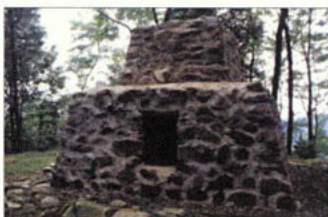
13) 영덕 대소산봉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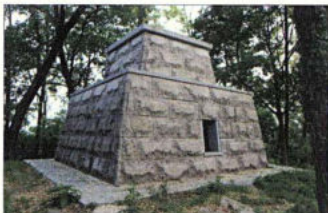
대소산봉수

- 위치 : 경북 영덕군 축산면 도곡리 산20의
- 성격 : 연변 · 내지 접점
- 시대 : 조선전기
- 노선 : 간봉
- 지정 : 경상북도 기념물 제37호
- 현황 : 조선시대 초기에 만든 것으로 영덕 축산포(丑山浦) 방향의 변경 동태를 서울 남산까지 알리던 곳의 하나였다. 대소산은 해발 282m의 영덕 남동쪽 해안의 주봉으로 산의 정상부에 방어벽을 돌로 쌓고, 그 안에 원추 모양의 직경 11m, 높이 2.5m의 봉돈을 쌓았다. 남쪽으로는 별반(別岬) 봉수대, 북으로는 평해의 후리산(厚里山) 봉수대, 서(西)로는 광산(廣山) 봉수대를 거쳐 진보(眞寶)의 남각산(南角山) 봉수대로 이어지도록 되어 있었다. 이들 여러 봉수대들 가운데 가장 형태가 뚜렷하게 남아 있어 조선시대의 통신수단을 알아 볼 수 있는 좋은 자료로 평가된다. 2006년 지표조사 되었다.

14) 예천 비룡산봉수



비룡산봉수(1차 복원)



비룡산봉수(2차 복원)

- 위치 : 경북 예천군 향석리
- 성격 : 내지봉수
- 시대 : 조선전기
- 노선 : 간봉
- 현황 : 경북 예천군 향석리 비룡산에 위치하고 있다. 동쪽의 서암산 봉수, 서쪽의 소이산 봉수, 북쪽의 가불산봉수와 연결되었다. 직경 3.7m, 높이 2.7m의 정방형 규모로 2000년 12월 예천군에서 기복원되어져 있던 봉수를 사진처럼 사실과 다른 모습으로 2차에 걸쳐 다시 복원하였다. 원래의 위치 여부는 불확실하며 백색화강석을 이용하여 북쪽에 방형 화구를 한 개소 마련하였다.



15) 여수 백야꽃봉수



백야꽃봉수

- 위치 : 전남 여수시
- 성격 : 내지
- 시대 : 조선시대
- 노선 : 제5거 직봉
- 지정 : 울산시기념물 제3호
- 현황 : 백야꽃 봉수는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장등마을 뒷산인 해발 370m의 봉화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다. 봉수는 높이 9.5m, 폭 8m의 원통형으로서, 상부는 폭 60cm, 높이 80cm의 성곽 형태이며, 1997년에 복원하였다. 복원전 이미 봉수대가 허물어져 봉수대로 오르는 길의 형태는 알 수 없었으나 봉수대의 상면에는, 높이 한 자, 길이 한 자 반 정도의 네모진 연대가 있었다고 한다. 봉수군이 기거한 흔적으로 봉수대 북쪽에 넓이 2m, 높이 3m 정도의 담장이 타원형으로 남아있으며, 약 200여 개의 강돌이 발견되었으나 복원시에 봉수대 밑자리에 깔아놓았다고 하며, 북측 능선 50m 지점에 샘터가 남아 있다. 인근의 봉오 마을은 이곳의 봉수군들이 살아서 만들어진 마을로 마을 이름도 처음에는 봉군들이 살았다해서 “봉골”이라 했다가 뜻이 다른 한자로 바뀌었다 한다.

16) 순천 성황당봉수



성황당봉수

- 위치 : 전남 순천시
- 성격 : 내지봉수
- 시대 : 조선전기
- 노선 : 제5거 간봉(1)
- 현황 : 성황당봉수는 전남 순천시의 해발 355.3m인 烽火山 남쪽 봉우리 정상에 위치하고 있다. 초축시기는 조선전기 이전으로 추정되며 봉수노선과 성격상 제5거 간봉(1)노선의 내지봉수이다. 1990년 11월 봉화산 남쪽봉우리에 3기의 연조를 ‘品’ 자형으로 복원하였다. 비록 연조는 사실과 다른 모습이나 연조 주위 방호벽과 남·북에 출입시설이 각 한 개소씩 잔존하고 있다.



4. 석성산봉수 정비 및 역사광장 건립의 필요성

1) 입지분석

- 석성산봉수 일대는 광주산맥의 주 능선에 해당하는 석성산과 광주산맥의 서측에 해당하는 청계산 백운산 등이 자리 잡고 있음
- 서쪽과 남쪽으로는 평야지대가 펼쳐져 있고 동쪽과 북쪽으로는 산지가 형성되어 석성산을 중심으로 대조적인 자연환경 형성
- 석성산을 중심으로 서남쪽으로는 시가지가 잘 발달되어 있고 동북쪽으로는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전원지역이 펼쳐져 있음
- 따라서 석성산봉수는 용인시의 도시지역과 전원적인 전통취락을 연결하는 결절지점에 위치함

2) 역사문화적 측면

(1) 용인의 역사 재조명 및 문화정체성 확립

- 용인시와 주변의 관방유적과 군사통신시설의 성격 규명을 통하여 용인이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임을 재조명 하여 위상을 제고함
- 처인성, 석성산성, 할미산성, 임진산성 등의 성곽이 위치하고 있으며 석성산봉수, 건지산봉수 등 봉수유적이 위치한 호국과 군사문화의 중심지임을 부각시킴

(2) 용인지역 출토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보존 방안 제시

- 용인시 각지의 구제발굴을 통하여 발굴된 유적을 석성산 역사광장에서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향후 개발에 따른 유적의 훼손을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문화적인 경각심을 일깨워 유적의 체계적인 관리 보존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
- 석성산봉수의 등산로 개설과 체육시설화로 인한 유적의 훼손을 막고 역사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주변 시설과 연계한 문화지구 조성

(3) 산악과 연계한 관광자원 중심축으로 활용

- 할미산-석성산과 연계, 주변산악의 효율적인 구성을 통하여 문화기반시



설을 구축하고 자연과 유적이 조화를 이루는 역사문화지구 조성

3) 용인시 문화도시 측면

(1) 문화도시의 개념과 특징

- 현재성과 역사성을 함께 가지고 도시의 특성을 창출하고 인간의 삶을 성숙하게 만들 수 있는 제반 조건을 바탕으로 삶의 질을 고양시키려는 도시 이미지 구축 추구
- 목표 : 도시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도시는 '풍부한 문화적 자산', '다양한 문화시설', '문화적 다양성', 등을 균형 있게 갖추고 있어야 함

(2) 문화도시 창출을 위한 방안

- 다양한 문화인프라 구축
- 문화중심의 도시계획
- 도시경제 활성화와 장소 마케팅
- 자생적 도시문화콘텐츠 활용

(3) 용인 문화도시와 석성산봉수

- 기존의 문화적 자원을 토대로 이를 활성화 시켜 용인시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 현재 활성화가 미흡한 용인시 동북권의 역사유적과 유물을 연계하여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매개체가 됨

(4) 유적정비의 기대효과

- 석성산봉수의 성공적인 정비를 통해 전국 각지에서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봉수대 복원에 경종을 울리고 이를 통해 용인시의 문화기반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유적정비를 통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소통의 광장을 조성함



4) 봉수박물관 건립의 단서 제공

(1) 박물관 현황 국제 비교

- 외국(미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폴란드 : 6개국)의 수준과 비교해 보면 인구 10만명당 2.83개
- 국내는 0.6개 수준
- 정부 : 국내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1개의 박물관 건립을 목표로 함

(2) 용인시 박물관 공급현황과 배치 특징

- 용인시의 경우 경기도박물관 등 주요 공사립 박물관·미술관이 위치해 있어 타 시군에 비해 전시시설이 풍부한 편에 속함
- 경기도박물관은 용인시에 위치한 박물관이기는 하나 용인시에서 설립·운영하는 박물관이 아니므로 용인을 대표하는 시 관할의 박물관 건립이 필요
- 보이며 박물관 시설도 꾸준히 증가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배치의 부적정성
 - 경기도박물관은 용인시의 서부에 치우쳐져 있어 지역적 형평성이 미흡함
 - 유사한 시설인 용인민속촌도 남부지역에 편중됨
 - 동서간의 경제 문화적 편차를 지닌 용인시의 지역 문화 편중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용인시 동·북부 권역에 용인시의 봉수문화를 알릴 수 있는 봉수박물관 건립이 요구됨

5) 관련정책 및 계획

(1) 문화관광부 예술지원 정책 개선안

- 공공박물관 500개관 건립목표(인구 9만명당 1개관)에 따르면 용인시내에 1개소 이상의 공공박물관이 추가로 건립되어야 함

(2) 수도권 관광정책

- 문화강국(C-KOREA)2010



- 국토 종합계획 및 수도권 정비계획 등에서는 점차 문화·관광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으며 이에 문화·관광에 대한 시설의 설치를 통한 인프라 구축이 요구되고 있음

(3) 용인시 문화정책의 일부 수정 필요

- 2020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도시민의 정서함양과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문화시설 정비 및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그러나 용인시는 문화의 지역별 편향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추가 건립 계획이 전무한 상황임
- 도시문화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박물관과 미술관의 추가건립 필요성이 제기되며 도시계획의 일부 수정이 요구됨

■ 용인시 봉수박물관 건립의 당위성

석성산봉수에 역사광장이 건립된다면 문화발전 정책 측면에서 주변 유적지와 연계성 및 새로운 문화지구를 형성하는데 우수한 환경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석성산 일대는 인지도가 높은 장소로 역사적 상징성이 우수하고 대중교통 및 자가용 교통의 접근성이 훌륭한 편임. 주변지역은 녹지지역으로 자연환경이 우수하며, 주변의 다양한 시설과 연계를 통하여 문화공간 조성이 가능하고, 사업의 용이성 측면에서 큰 제약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장기적으로 석성산봉수 역사광장 건립을 통해 봉수박물관의 건립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후 석성산봉수, 석성산성, 할미산성의 추가 발굴조사와 정비를 통해 봉수박물관의 당위성을 천명한 뒤 봉수박물관과 유적을 결합한 우리나라 최초의 봉수역사공원을 조성함

사업 추진의 용이성

문화발전 정책 측면 우수성

주변 유적지와 연계성 및 새로운 문화지구 형성의 우수한 환경

접근성의 우수성

높은 인지도와 대중교통 및 자가용 교통의 접근성이 우수

주변환경의 우수성

- 주변이 녹지지역으로 자연환경 우수
- 주변의 다양한 시설과 연계를 통해 문화공간 조성 가능

최초의 봉수역사공원 조성

장기적 계획 수립

장기적 석성산봉수 역사광장 건립을 통해 봉수박물관의 건립 필요성을 제기

발굴조사와 정비

석성산봉수, 석성산성, 할미산성의 추가 발굴조사와 정비를 통해 봉수박물관의 당위성을 천명



IV. 기본구상 및 지표설정

1. 기본 방향 구상

1) 개념의 정리

(1) 용어 정의³¹⁾

① 역사문화환경

- 단일 유적 및 유적지의 문화재에 대한 일차원적 인식을 탈피
- 역사적 환경을 비롯한 주변 자연·문화환경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
-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삼차원적으로 확대하는 개념

② 보전(保傳)

- 역사문화환경을 보호하여 현세는 물론 후세에게까지 전해주는 개념

③ 보존(保存)

- 역사문화환경의 내용에 따라 절대보존, 외형보존, 구조보존, 분위기보존 등 다양한 단계의 보존개념이 있음
- 절대보존 : 한 번 훼손된 역사문화환경은 원형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개념에서 출발하여 원형보존을 절대가치로 여김. 물리적인 변화를 허용하지 않는 동결보존의 개념으로 화학적 변화까지를 고려한 개념
- 외형보존 : 현실적인 기능을 위해 내부의 변화는 허용하나, 외관은 원형보존의 개념으로 재료를 포함하는 형태보존의 개념
- 구조보존 : 외관의 부분적인 변화를 허용하나 구조방식은 보존하는 형식보존의 개념으로 추후 복원을 기대할 수 있음
- 분위기보존 : 최소한의 보존개념으로서, 전통적 분위기의 표현으로 가능한 전통적인 내용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

31) 명지대학교부설 한국건축문화연구소, 1990 『傳統文化地帶 復元·整備實施計劃(案)』, 78쪽; 1996, 『慶熙宮址 保存 및 活用方案 研究報告書』, 12쪽. 상기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 또는 재구성하였음.



④ 복원

- 이미 인멸된 문화재에 대한 역사적 환경을 재복구시키기 위한 개념으로 최대한 원형을 살려서 전통적인 기법으로 복원하여야 함
- 복원시 고려사항
 - 철저한 원형고증
 - 유적의 유구 확인에 따른 복원 고려
 - 구조, 기법, 재료까지 복원대상으로 해야 하나, 불가피한 경우는 최대한 고증자료를 고려
 - 가급적 추정복원은 삼가야 하나, 원형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는 최대한 문헌이나 관련 유적을 고려
- 원형이 파손된 부분 또는 구조적 결함에 따른 전체적 복구의 방법인 보수 또한 복원의 한 개념이라 할 수 있음

⑤ 정비

- 역사문화환경의 현상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최소의 조치
 - 복원이 불가능하거나 현상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존방법의 개념
 - 발굴조사된 유구의 보존방법
- 주변 환경까지를 포함하는 개념
 -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을 위한 주변 환경의 변화가 있을 수 있음
 - 주변 환경에 대한 분위기보존이 고려되어야 함

⑥ 기록

- 최소한의 보전개념으로 현재의 변화를 인정하고 통제를 최소화하는 개념
- 실측, 사진촬영, 기록의 방법으로 자료를 남겨 일정기간 후에 역사적 환경을 재현할 수 있음
- 주로 개발지역의 유적지 또는 개발지역의 전통건축물의 철거 등이 해당됨

⑦ 활용

- 역사문화환경을 교육, 관광 등의 목적에 따라 목적을 극대화하기 위한 이용의 개념으로 탐방객의 참여를 통해 보존에 대한 의식을 전환시켜 보존을 위한 가장 근원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음
- 역사문화환경 보존과 교육,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이라는 상충적인 문제 발생 우려가 있음



- 활용시 고려사항
 - 역사문화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활용
 - 교육, 관광 등의 목적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활용
 - 활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2) 개념의 정리

① 목표 정립

- 역사문화환경 보존
 - 향후 발굴조사로 노출될 유구에 대한 보존 차원의 정비 방안 마련
 - 유적보존을 위한 주변 환경 정비 방안 마련
 - 발굴조사로 출토될 유물 보존 및 보관 계획 수립
 - 석성산봉수 및 관련 유적에 대한 보존계획 수립
- 역사문화환경 활용
 - 발굴조사 현장 공개를 통한 실제적인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방안 마련
 - 석성산봉수의 역사, 유구 및 유물을 학술자료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
 - 관방유적인 유적인 석성산봉수를 관광명소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
- 지역 역사문화환경의 진흥을 통한 경제 활성화
 - 지역 역사문화환경의 진흥 :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보존, 복원, 정비, 활용의 모범적인 사례로 지역 역사문화환경의 진흥 방안 강구, 지역의 역사문화환경과의 연계를 통한 진흥 방안 마련
 - 지역 경제 활성화 : 보고 가는 관광에서 머무는 관광 유도 방안 마련, 관광자원의 활용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강구

② 공간구상

- 공간구획
 - 본 계획 대상지역은 유적의 분포에 따라 석성산봉수와 석성산성, 할미산성지역으로 나눌 수 있음
 - 석성산봉수는 매장유구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구역과 유구가 존재할 가능성이 희박한 구역으로 나눌 수 있음
 - 따라서 대상지역을 크게 유적분포와 유구의 매장 가능성에 따라 유적분포지역을 유적보존구역으로, 유구의 매장이 확실시 되는 지역을 유구매장구역으로, 유적이 분포할 가능성이 낮은 지역은 유구매장잠재구역과 유구미매장구역 등 총 4개의 구역으로 구획할 수 있음



• 기능에 따른 공간구성

- 유적보존구역 : 유적보존을 우선으로 하고, 각 유적을 통한 역사교육의 기능을 수행하는 유적보존공간으로 구성
- 유구매장구역 : 유구 및 유물이 매장되어 있으므로 일체의 시설은 배제하고, 시원하고 탁 트인 정적 공간으로 조성
- 유구매장잠재구역 : 유구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가급적 시설을 억제하여 휴식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유구미매장구역과 유구매장구역 및 유적보전구역과의 이질적 공간을 차단하는 완충적 공간으로 구성
- 유구미매장구역 : 유구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탐방객을 위한 체육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는 시설공간으로 구성

• 공간구성에 따른 공간 활용

- 유적보존공간 : 유구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와 탐방객의 역사적 건축물 이해 증진을 위한 볼거리 욕구가 상충되는 공간으로 활용에 있어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발굴조사를 진행할 경우 조사과정을 탐방할 수 있도록 하여 역사교육의 산 현장으로 활용. 발굴조사로 노출된 유구 중 특수한 건물지 및 연조유구에 대한 노출전시의 활용을 통한 교육 효과 극대화
- 정적 공간 : 유구가 매장되어 있는 공간으로 발굴조사 완료 후 유구의 성격에 따라 활용에 대한 재검토가 요망됨. 유구가 매장되어 있는 공간이므로 시설공간으로의 활용을 억제하고 탁 트인 공간으로 조성. 발굴조사 기간 중에는 발굴조사단의 시설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탐방객의 유적 탐방 이전에 교육 및 홍보의 공간으로 활용
- 완충 공간 : 유구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시설공간으로의 활용을 억제하며, 시설공간과 유구보존공간과의 완충적인 공간이므로 수림을 조성하여 휴식 및 산책 공간으로 활용
- 동적공간(시설 공간) : 유구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희박한 공간으로 탐방객을 위한 기초 기반시설 공간으로 활용



③ 동선체계

- 동선은 크게 대상지역내 동선과 대상지역 접근을 위한 동선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동 수단에 따라 보행자동선과 차량동선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보행자동선
 - 대상지역 진입에서 석성산봉수가 있는 석성산 일대의 등산로를 활용하여 유적 탐방과 휴식, 산책 등을 위한 자유롭고 다양한 동선으로 구분
 - 석성산봉수 접근을 위한 동선은 조선시대 관방·통신유적의 감흥을 느낄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조성
 - 석성산봉수 탐방 동선은 유구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내표지판 등에 의한 자율적 통제가 가능하고 교육탐방을 위한 체계적인 동선으로 구상. 석성산봉수, 주변 유적, 성곽박물관 등을 연계한 역사교육탐방 동선으로 구상
 - 등산로 정비를 통한 석성산성·할미산성과의 연계 동선 구상
- 차량동선
 - 탐방객 차량동선은 그 출입이 용이하게 유도하고 성곽박물관 및 주요 진입로에 주차장을 조성함.
 - 관리자와 서비스 차량동선은 탐방객 차량동선과 중복되더라도 효율적인 관리 및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성곽박물관·관광안내소 등과 연결하며 화재 등 비상시 긴급차량의 진입로 확보 등이 고려되어야 함.

④ 대상지역 접근 동선

- 대상지역 접근 동선인 보행자동선과 차량동선의 경계를 분명하게 구분하여 서로간의 접촉을 최소한으로 하는 동선체계 구상
- 보행자 동선
 - 보행을 통한 대상지역 접근은 대개 인접 주민들이 주대상으로 외부 탐방객 중 보행에 의한 접근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등산로를 통해 진입한 후 대상지로 접근
 - 등산로 정비에 따라 등산객의 대상지역 진출입이 이루어짐.
 - 차후 도보 탐방객의 수요증가에 대비한 차량진입 억제책이 필요할 수도 있으며 차량진입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국한하여 통제할 필요가 있음
- 차량 동선
 - 차량을 통한 대상지역 접근은 대중교통 및 대형버스는 불가능하며 개인 승용차를 이용한 접근이 대부분임
 - 대상지역 위치 파악이 쉽도록 도로안내판 설치



⑤ 도입시설 구상

- 공간구성에 따라 각 공간에 맞는 도입시설과 탐방객의 활동성향에 따른 도입시설 등으로 구상
- 유적보존공간
 - 유적보존을 우선하므로 가급적 시설 조성을 억제
 - 유구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정비 차원의 배수시설
 - 향후 발굴조사가 진행될 경우 발굴조사과정 탐방을 위한 시설
 - 석성산성과 연계하여 역사교육의 극대화를 위한 안내판 시설
- 정적공간
 - 유구가 매장되어 있는 공간이므로 시설 조성 억제
 - 발굴조사 기간 중에 발굴조사단을 위한 시설, 교육 및 홍보 임시 시설
 - 발굴조사 이후에는 파고라, 벤치 정도의 휴식 시설
- 완충공간
 - 유구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공간: 시설 조성 억제, 수림조성
 - 휴식을 위한 파고라, 벤치, 산책을 위한 자연스러운 산책로 조성
- 시설공간
 - 석성산봉수 역사광장과 일부 편 시설을 조성하는 계획수립
 - 봉수대 아래쪽 약수터 주변으로 건물지를 일부 발굴하여 복원하는 계획 수립
 - 발굴된 유적 주변으로 유적 설명 데스크, 화장실 식수대 등 등산객 편의시설 설치를 유도함
 - 통화사 진입로 정비를 유도하는 등 사유지를 경유하는 진입동선에 대한 정비도 요구됨

2) 계획의 기본 방향

(1) 계획의 방향

① 역사문화환경 보존 우선에 따른 보전계획수립

- 석성산봉수 및 주변 유적 환경까지 보전할 수 있는 문화재보호구역 확대 지정
- 발굴조사로 노출될 유구 및 주변 정비계획 마련
- 발굴조사로 출토될 유물 보존 및 보전 방안으로 성곽박물관 건립계획 마련
- 계획 수립에 따른 보존을 위한 관리체제 구상



② 역사문화환경 활용을 위한 계획 수립

- 산교육의 장소로 활용하기 위한 발굴조사과정 탐방계획 마련
- 석성산봉수의 전체적인 현상이 파악될 수 있는 정비안 마련
- 역사교육을 극대화하기 위한 성곽박물관 활용 방안 마련
- 학술자료로 활용을 위한 특수한 건물지 및 시설 유구 노출전시 방안 마련

③ 지역 역사문화환경 진흥 및 경제 활성화 계획수립

- 등산로 및 인접지역의 역사문화환경과의 연계계획 마련
- 모범적인 사례의 사업추진계획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계획을 통한 지역 역사문화환경 진흥 도모

(2) 종합구상계획

- 구획된 구역을 공간구성에 따른 개념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며 각각의 공간을 효과적으로 연계하도록 함.
- 단계적으로 주변 정비, 석성산봉수 정비, 역사광장 조성, 부대시설 조성, 봉수박물관 건립 순으로 계획하여 추진하도록 함.
- 향후 발굴 유구의 훼손 방지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동시에 관람객에게 발굴지의 개방이 가능한 탐방로를 설치
- 석성산봉수와 용인의 관방유적을 종합하는 봉수박물관을 건립하여 용인의 역사적 흔적을 담아서 교육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이를 통해 역사적 자료와 출토된 유물을 전시하고, 관람객에게 토기류 제작 및 모형 조립 등 체험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기반시설은 성곽박물관 주변으로 차폐식재를 하여 현대 건축물과 유적간의 괴리감을 완화시키고 진입로를 따라 안내시설, 편의시설, 주차장을 설치함
- 봉수박물관 앞으로는 트인 공간을 조성하고 진입공간과 주차장 사이에 전통수종을 이용한 생태공원 등을 조성하여 관람객의 휴식공간으로 활용
- 주변 역사문화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한 역사문화 네트워크 구축



2. 관련계획 및 법규 검토

1) 상위 계획 검토

(1) 제4차 국토종합개발수정계획 (2006~2020년, 건설교통부)

- 지역적 특색에 맞는 체계적인 기반확충을 통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과 발전도모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용인시가 속해 있는 경기도의 발전 방향 중 본과업과 관련될 수 있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4차 국토종합개발수정계획의 관련 내용

방 향	내 용
첨단 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통한 동북아시아 경제중심 기능 강화	(1) 계획입지 중심의 산업입지 종합개발과 관리 - 첨단기업 입지 수요 충족을 위한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 - 외국인 임대전용단지를 조성하여 첨단산업 및 외자유치 확대 (2) 국제물류·유통 체계화 및 선진화 - 주요 산업집적지에 공동 물류센터를 건립하여 기업 물류 구조의 효율화와 고도화 추진 - 수도권 물류난 해소 및 물류체계 효율화를 위한 내륙 물류기지 확충
다핵분산형 공간체계 구축 및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경쟁력 강화	(1) 수도권성장관리계획에 따른 도시개발 및 정비의 추진 - 개발수요에 대응한 신도시 개발과 함께 기존시가지 도시환경 개선 추진 (2) 대중교통 중심의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 대중교통을 우선하는 간선급행버스(BRT)체계를 구축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자원의 보전과 관리	(1) 수도권 광역녹지 네트워크의 구축과 생태계의 복원 및 보전을 추진 - 도시내 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도심공원을 확충 - 중요 동·식물 서식지를 네트워크화하고 생태계를 보전
교육·복지·문화인프라 구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	(1) 선진 문화·관광 기반 조성 - 주요 역사유적·문화재의 원형보전, 농촌·예술·위락(체육)형 체험관광기반 조성 등을 통해 선진 문화·관광기반 구축

(2) 제2차 관광계획 기본계획(2002-2011)

① 기본 목표 및 전략 :

“21세기 한반도 시대를 열어가는 관광대국 실현”

-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광시설 개발 촉진
- 지역 특성화와 연계를 통한 관광개발 추진
- 문화자원의 체계적 관광 자원화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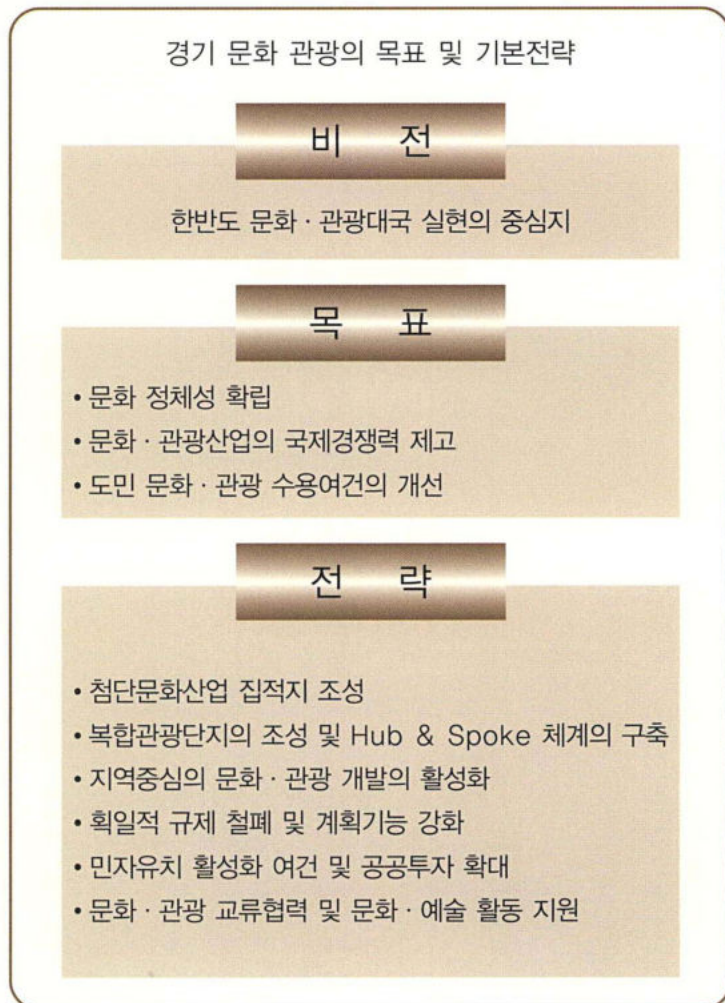


- 관광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관리 강화
- 지식기반형 관광개발 관리체계 구축
- 국민 생활 관광향상을 위한 관광개발 추진

② 경기도 : “국제적 수준의 관광휴양지역으로 육성”

- 역사문화자원 관광자원화
 - 도내의 사적지, 문화재 등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주제별 탐방로 및 역사체험 관광지로 개발
 - 화성문화제 등의 메가 이벤트를 특화된 문화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인근 역사문화자원과의 연계

(3) 경기 문화·관광 2020³²⁾



32) 경기도, 2002, 『경기2002: 비전과 전략 - 동북아의 선택 경기』.



② 문화·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

-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관광 개발
 - 주요 문화재에 대한 발굴조사, 복원 및 정비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관광기본시설 및 관광안내 정보시스템 등의 구축을 통하여 관광객 원으로서의 가치를 제고하여야 함
 -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자연환경·지역산업 등을 주제로 가급적 지역의 인력과 자원을 활용하는 체험중심의 지역 밀착형 테마자원의 개발을 통하여 자원개발의 차별화를 극대화시키고 투자이익을 지역으로 환원시켜야 함
- 문화·관광 기반시설의 확충 및 운영 개선
 - 근린 생활권의 박물관·도서관·예술센터·광장 등의 문화시설을 확충함은 물론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살린 전문박물관을 확대함
 - 경기도내 사적지 및 문화재 등을 연결하는 역사·문화 탐방로를 구축하여 역사·문화 교육의 장 및 관광자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탐방로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보행로, 자전거 및 자동차도로 등 다양한 교통 인프라를 설치하고 역사·문화해설을 위한 안내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4) 2020년 용인시 도시기본계획

① 공원녹지계획 기본방향

- 인구증가에 대비한 공원시설의 확보
 - 2016년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현황을 반영하여 공원·녹지체계를 유지하고, 계획인구대비 충분한 공원시설 확보 유도
 - 대규모 신규 개발시 적정규모의 근린공원 확보 도모
- 공원별 체계확립
 - 공원개발시 공원별 고유기능을 부여하여 시설의 다양화를 도모하고, 각 공원간의 연계체계 확립
 - 용인시 하천, 저수지 및 산악을 연계한 유기적이고 합리적인 연결체계 강화
 - 장래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의 자연상태를 고려, 적정규모의 공원용지 확보
 - 자연의 보전과 개발이 조화된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
 - 생활권 계획에 부응한 공원 조성



- 용인시의 상징적인 중앙공원 개발과 광역도시 성장에 대비한 시민의 휴양·휴게 및 레포츠시설 확충을 위한 시민체육공원 조성
- 현재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다수의 공원을 조속히 개발, 기존시까지 주민을 위한 녹지공간으로 활용
- 행정타운을 중심으로 배후 녹지공간을 시민체육공원과 연계한 시민공원으로 조성하여 용인중심생활권 기능 강화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도시자연공원 구역 제도시행에 따라 기존 도시자연공원 중 보전적 성격이 강한 지역은 용도구역(도시공원구역)으로 전환토록하고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공원체계 정립
-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원·녹지 구성
 - 도시계획시설 기준인 6.0㎡/인 이상을 확보하도록 계획
 - 시민의 여가, 체육활동, 휴식 등을 위한 공원시설 확충
 - 근린공원의 경우 구릉지 지향에서 평면지향으로의 전환을 유도하여 개발가능성 및 이용가능성 증대
 -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사업 등 신시가지 개발시 사업지구내 적정규모의 근린공원을 확보하여 신규개발과 연계한 공원시설 설치로 인근주민이 실제 이용 가능한 근린공원 조성
 - 에버랜드, 한국민속촌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 개발로 풍부한 녹지를 배경으로 한 여가·휴식의 중심지 형성체계 구상

② 공원계획 중

- 도시자연공원
 -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주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도시민 전체를 이용대상으로 하며, 면적은 1개소당 100,000㎡이상이 되도록 계획된 기존 계획은 유지
 - 도시계획구역내 전 시민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행태를 보임
 - 양호한 자연경관을 지니고 있어 보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에 지정하게 되는데, 용인시의 경우에는 모현, 구성, 수지읍의 경계인 법화산(EL373m) 일원, 구성읍 석성산(EL 471.5m) 일원, 용인시까지 북측 일원 등임
 - 소실봉 도시자연공원 중 상현정수장 및 기존 시설편입부분 일부 제척하여 축소조정



- 도시자연공원은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라 향후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공원구역(용도구역)으로 구분 계획 수립

2) 관련 법규 검토

(1) 문화재보호법

① 제2조 (정의)

- ③항 : 이 법에서 “보호구역”이라 함은 지상에 개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의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 당해 지정문화재의 고유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 당해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

② 제75조 (준용규정)

- ②항 :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에 관하여는 제9조, 제13조 제1항·제4항, 제14조~제16조, 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3항, 제37조, 제38조 및 제43조~제46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로, “대통령령”은 “시·도조례”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봄

조	항
제9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제5조,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그 기본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하며, 시·도지사는 그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34조 (허가사항)

- ①항 : 명승이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거나 가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 안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채취하거나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③항 :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



함)의 현상을 변경(천연기념물을 표본하거나 박제하는 행위를 포함)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제90조 (건설공사시의 문화재 보호)

- ①항 :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 멸실 또는 수몰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문화재 주변의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비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
- ②항 : 행정기관은 문화재의 외곽 경계(보호구역의 경계)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공사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함

⑤ 령 제52조 (건설공사시의 문화재 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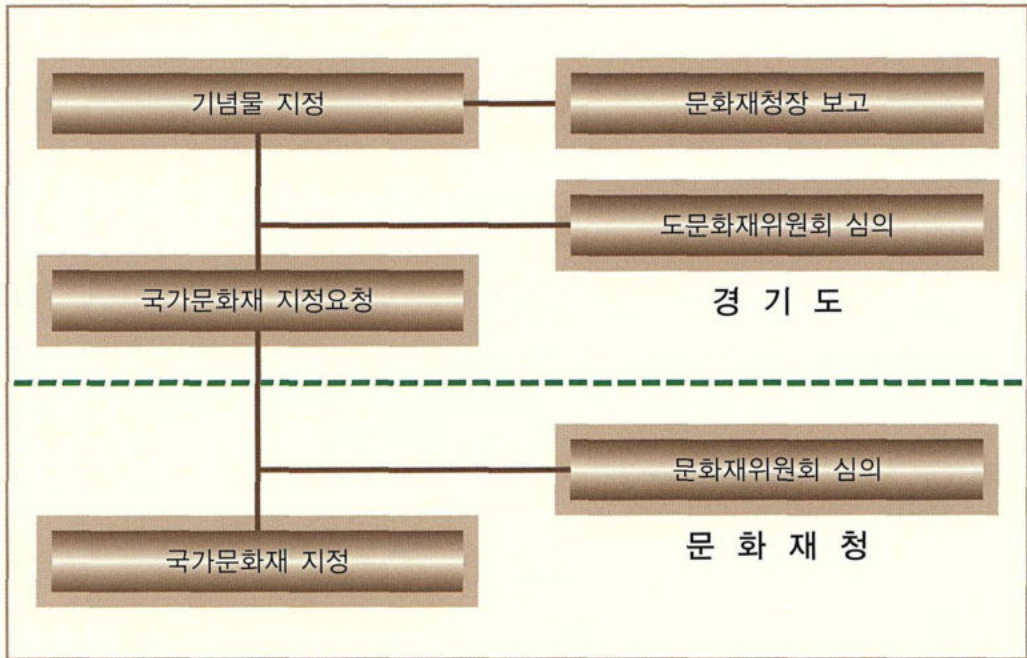
- ①항 : 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범위는 그 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문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문화재의 외곽 경계(보호구역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안으로 함.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문화재의 외곽 경계(보호구역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m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m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음

⑥ 규칙 제64조 (시·도지정문화재 지정 등의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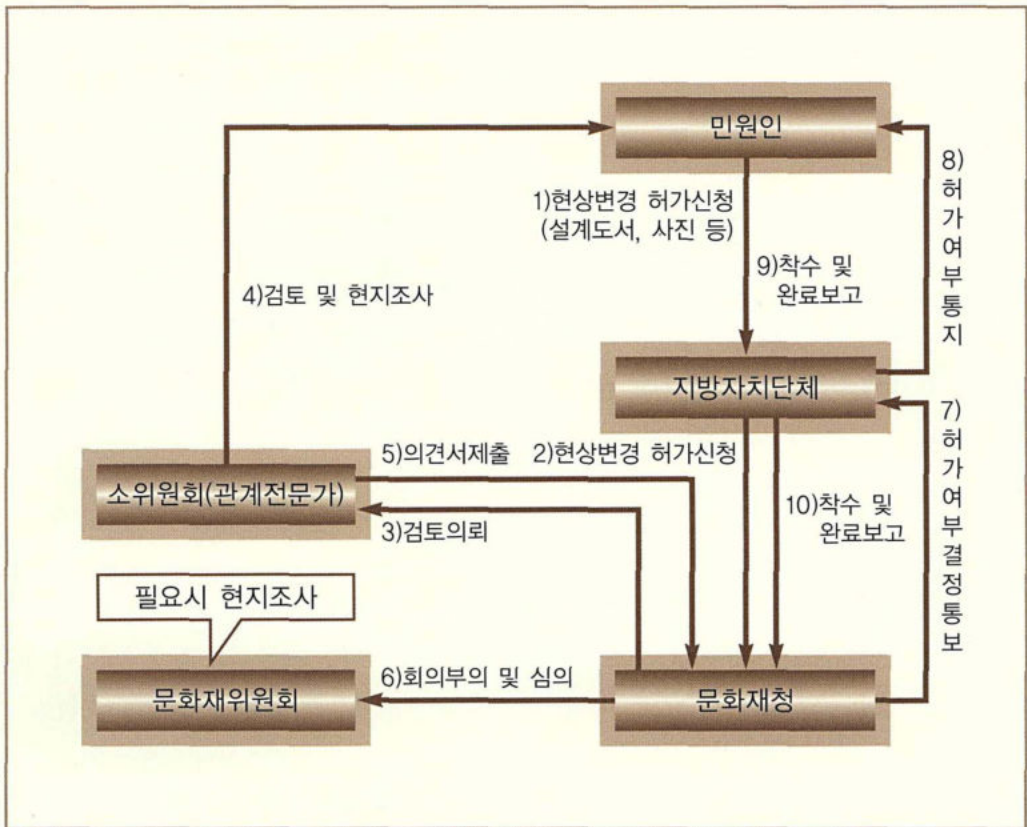
- 4. 법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멸실, 도난 또는 훼손에 관한 보고
 - 가. 문화재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 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 다. 멸실, 도난 또는 훼손의 연월일, 원인, 경위 및 현황
 - 라. 멸실, 도난 또는 훼손에 대한 조치의 내용
 - 마. 사진 및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문화재지정 처리절차도(기념물, 사적 등)



■ 현상변경허가 처리 절차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① 제43조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다만, 용도지역·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② 령 제2조 (기반시설)

- 기반시설의 종류
 - 교통시설, 유통·공급시설
 - 공간시설 :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도서관
 - 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③ 령 제35조(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
 -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공공공지,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시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도서관·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 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장례식장·종합의료시설·폐차장
 - 도시공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대상이 되는 공원안의 기반시설
 -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3)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① 제2절 공원

- 제52조 (공원) * 공원시설의 종류
 1. 도시공원법 제3조 각호의 어린이·근린·도시자연·묘지 및 체육공원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도시공원법을 준용하여 설치하는 공원



② 제53조 (공원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

- ①항 : 도시지역안에 설치하는 공원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도시공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함.
- ②항 :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공원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도시공원법을 준용함

(4)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① 제2조 (정의) 중 공원시설

- 4. “공원시설”이라 함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시설
 - 가. 도로 또는 광장
 - 나. 화단·분수·조각 등 조경시설
 - 다. 휴게소, 긴 의자 등 휴양시설
 - 라. 그네·미끄럼틀 등 유희시설
 - 마. 테니스장·수영장·공도장 등 운동시설
 - 바. 식물원·동물원·수족관·박물관·야외음악당 등 교양시설
 - 사. 주차장·매점·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 아. 관리사무소·출입문·울타리·담장 등 공원관리시설
 - 자. 기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시설,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② 제15조 (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 2. 주제공원 :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다음 각목의 공원
 - 가. 역사공원 :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나. 문화공원 :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③ 제48조 (문화재등의 대한 특례)

- ①항 : 시·도지사는·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사적·명승·천연기념물 등으로 지정된 지역이나 그 보호지역 안에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해야 함
- ②항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거쳐 결정된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는·문화재보호법·에 따름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① 제3조 (박물관·미술관의 구분)

- 1. 국립박물관 :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 2. 공립박물관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② 제12조(설립과 운영)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관리·보존·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① 령 제13조 (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 사. 박물관·미술관 및 과학관 : 박물관 및 미술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을 말함

(7) 환경정책기본법

① 령 제7조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 및 협의방법 등)

- ① 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다음의 면적 이상인 것(보전관리지역 : 5,000㎡, 생산관리지역 : 7,500㎡, 계획관리지역 : 10,000㎡)
 -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7,500㎡ 이상인 것
 -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 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000㎡ 이상인 것
- ② 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지역
 -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사업 계획면적이 5,000㎡ 이상인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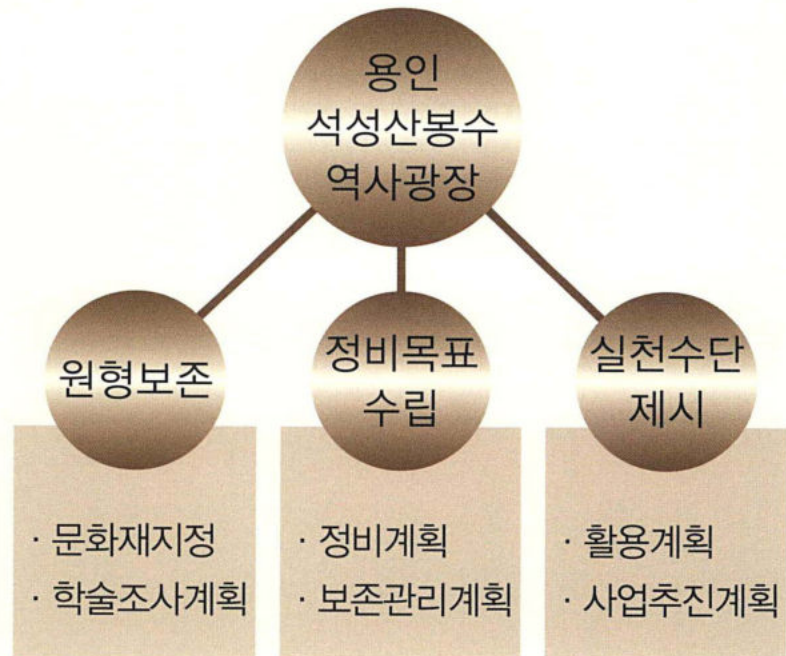
■ 관련법규 요약

구 분	내 용	비 고
문화재보호법	<p>* 문화재 보호에 관한 근거법률</p> <p>(1)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현상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지정 •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 500m <p>(2) 매장문화재 발굴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원 대상물에 대한 정밀조사 허가 • 시설물부지에 대한 발굴허가 • 사적내 식생정비를 위한 허가 <p>(3) 문화재의 보호구역 지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보호구역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 의해 유적 경계로부터 500m로 정함 • 보호구역의 경우 특별한 경우 그 범위 이상을 선정 가능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p>* 모든 시설계획의 근거법률</p> <p>(1)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시설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 주변 시설물 및 부지들과 연계하여 지정, 통합적 관리기준 마련 •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 - 1안 :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으로 지정 - 2안 : 문화시설 중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한 박물관지정 <p>(2) 개발행위 허가에 의해 시설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 요건을 갖춘 부지만이 개발 가능 • 추후 확장 개발시 임야 개발 어려움 • 다소 사업기간이 단축 가능 	* 다만 예외 규정에 의해 문화 시설 및 공원은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 하지 않아도 됨
환경정책기본법	(1)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대상임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건축조례	(1) 용적율, 건폐율에 대한 규정 (2) 건축 세부 기준에 관한 규정	
기 타	(1) 도시 공원법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3) 수도권 정비 계획법 (4) 군사시설 보호법 (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3. 기본구상 및 지표설정

1) 기본 구상



(1) 기본 개념도

(2) 개념의 발상

① 원형보존

- 잔존유구에 대한 보존에 중점
- 과도한 정비보다 현상기록 및 점검 우선
- 지속적인 보존관리

② 정비목표 수립

- 유적의 특성과 주변 경을 고려한 정비목표 설정
- 보존, 수리, 복원대상에 대한 명확한 구분
-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둔 복원 정비
- 장기적인 안목과 단계적 정비 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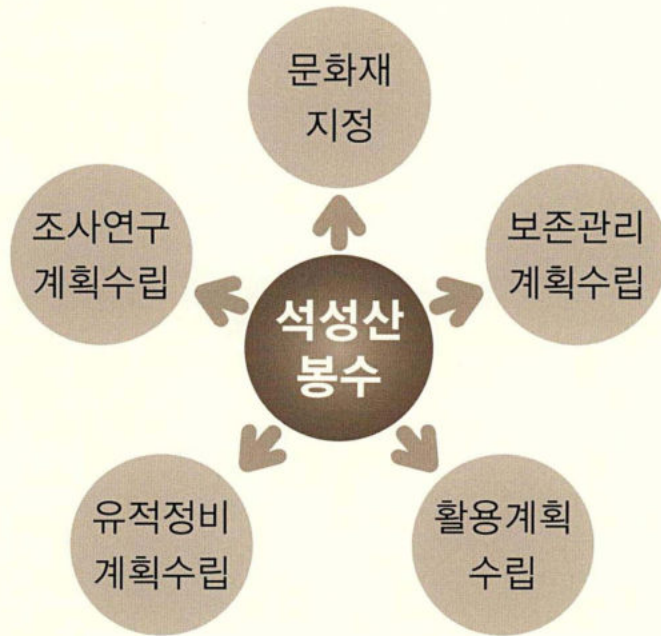


③ 실천수단 제시

- 제도적, 재정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 우선순위에 따른 단계별 추진

2) 계획의 지표와 방안

(1) 개념도



(2) 계획 지표

① 조사연구계획

- 원형보존에 필요한 향후 봉수대 훼손 요인을 파악하여 유구의 훼손을 완전 방지하는 방안으로 제시
- 원형 고증 및 유적 정비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발굴조사 실시하며 발굴조사단의 의견을 수렴, 반영
- 발굴조사시 조사과정 및 유구탐방이 가능하도록 하여 역사교육의 산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계획

② 문화재보호구역 검토

- 유적 보호 및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문화재보호구역의 검토
- 역사문화환경 개념을 도입하여 주변 환경까지를 고려하는 확대 지정안



및 협의구역 일부 지역 조정안 제시

- 석성산봉수 유적에 위치하는 관련 유구의 분포 가능성에 따라 문화재 보호구역을 확대하는 방안이 요구됨
- 유구 매장 가능성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확대지정 방안 제시

③ 유적지 정비계획

- 붕대 및 연조 노출에 따른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원형 보존에 입각한 보존, 정비, 복원 계획 수립
- 효율적의 유적 활용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 계획 수립

④ 유적 보존 관리계획

- 붕수대 훼손 요인에 대한 지속적 점검
- 장기적으로 붕수대 훼손 요인을 감소시키면서 군부대와 조화를 이루는 유적정비 계획 수립

⑤ 활용 계획

- 조선시대 관방 통신 유적이라는 성격에 맞는 활용 방안 제시
- 주변 문화재 및 문화유적과의 연계 방안 마련

(3) 계획 방안

① 조사연구 방안

- 정밀실측조사, 안전점검, 자연생태환경조사
- 발굴조사계획 수립

② 문화재보호구역 검토 방안

- 지형과 성내 시설물 보존
- 주변 군사시설물과 조화를 이루는 정비방안 구상

③ 유적지 정비 방안

- 수목제거 안전 펜스 및 데크 설치
- 유구별 보존, 정비, 복원
- 장기과제로서 성곽박물관 등의 교육·홍보시설 및 주차장 등 부대시설 설치



④ 유적보존관리 방안

- 지속적인 수목제거, 배수로 등 관리
- 관리자 및 전문가에 의한 정기 점검 실시
- 군사시설과 조화를 이루는 유적 정비안 마련

⑤ 활용 방안

- 유적과 석성산 자연환경을 이용한 생태·역사 체험 교육
- 주변 문화재와 연계된 문화탐방 코스 정비



V. 종합정비 기본계획

1. 방향설정

1) 문화재보존과 활용방향

(1) 역사문화유적의 정비·복원

- 석성산봉수는 조선시대 전체 5거의 봉수노선 중 제2거 직봉노선의 내지 봉수로서 동쪽의 용인 건지산봉수에서 보내는 신호를 받아 북쪽으로 성남 천림산봉수에 전달하던 유적
- 山城과의 관련성에서 경기지역의 봉수는 전략적으로 중요하거나 과거 행정치소의 중심지에 위치할 경우 산성내 혹은 산성과 인접하여 설치되며, 석성산봉수도 석성산성내에 설치되어 산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
- 현존유적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소실된 부분은 발굴조사 결과에 따른 정확한 고증에 의거하여 원형에 가깝게 복원을 검토
- 복원이 불가능한 부분은 현존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되 복원된 부분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 유적이 위치하는 석성산성 유적 정비와 연계하여 조화로운 정비안 수립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2) 역사문화 환경과 조화되는 주변경관 조성

- 석성산봉수는 용인시의 도심과 전원지역을 연결하는 용인의 진산에 해당
- 정상에 군부대가 위치하여 개발 또는 군사용으로 훼손 위험이 상존
- 주변경관과 적절히 조화된 생활문화공간으로 재조정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석성산봉수의 외곽을 둘러싸는 석성산성과 북쪽에 위치하는 할미산성 등 용인시의 역사유적 등도 정비·복원계획에 포함



(3) 전통 역사문화공간으로 활용

- 과거에는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역사적 고증을 바탕으로 주변경관과 적절히 조화된 복원·정비계획이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됨
- 최근에는 이들 전통문화 환경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는 방안 모색
- 석성산봉수와 그 주변지역이 가지고 있는 향토역사문화 자원의 특색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발굴
- 특히, 주변지역에 위치하는 석성산성과 할미산성 등 관방유적과 연계하여 고대이래 이 지역의 중요성을 부각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탐방객과 지역주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동적인 역사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애향심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2) 조사와 정비 방향설정

(1) 석성산봉수 발굴·활용 기본 방향

- 석성산봉수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 분석하여 그 현황에 따라 발굴 및 보존 활동 정도와 정비방안의 수준을 결정하여 조사, 발굴, 연구
- 봉수의 훼손정도를 감안하여 원형보존의 수위를 결정하여 보존단계를 설정하고 보존 및 복원함으로써 호국 및 관방 역사·문화의 교육 장소로 활용
-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와 문화를 전파하고 직접 커뮤니케이션하는 활동을 통해 호국의 역사·문화 보존과 계승의 중심적 장소로 활용

(2) 석성산봉수 발굴·보전에 대한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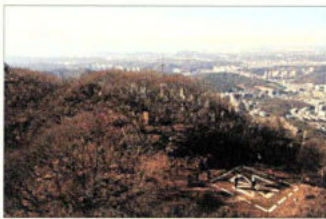
- 유적의 현재 훼손 및 보존 상태를 파악, 분석하여 가장 적합한 조사, 발굴, 보존의 방법과 정도 결정
- 유구의 훼손 방지 및 역사성 보존을 제1목표로 설정
- 이미 유적지가 군사시설 등으로 사용되면서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등산로 등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보존과 활용의 수위 결정
- 유적이 위치하는 석성산성의 발굴 및 보존·정비안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 모색



(3) 문화 전략 관점에서의 유적지 활용

- 지역 활성화를 위한 문화자원 개발전략
 - 자원의 발굴
 - 공간의 결합
 - 기능의 복합화
- 지역에 위치하는 문화유적지를 조사·발굴하여 그 유적의 고유한 성격을 자원화
- 주변의 공간과 결합함으로써 문화재의 성격이 전달될 수 있는 매개체를 조성
-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 운영·관리
- 보존 및 활용 방안의 지향 목표
 - 미래의 조사발굴을 준비하는 장기적 비전을 담은 활용방안
 - 시민의 생활과 공존하는 활용방안
 - 역사성, 교육성, 현장성을 중시하는 시민사용 장소로서의 활용방안

(4) 석성산봉수의 현상에 따른 구역별 보존 방안 설정



석성산봉수 항공사진

- 각 구역별로 훼손 원인과 정도를 파악하여 현재 사용시설 및 등산로의 존치여부를 결정
-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각 구역별로 조사, 발굴, 보존, 활용정도를 결정
- 유적지의 현재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는 현상보존(1수준), 더 이상의 유적 훼손 최소화 방안(2수준), 조사 후 보존활용 방안(3수준)으로 구분
 - 1수준 : 현상보존
 - 보호책을 설치하고 일반인들의 진입을 통제하여 물리적 훼손 방지
 - 기존 등산로는 동선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우회
 - 2수준 : 유적 훼손 최소화
 - 우회가 불가능할 시 등산로의 유적 관통을 허용하되, 데크를 설치하여 등산로로 활용함으로써 등산객의 유적 진입에 따른 훼손을 최소화
 - 봉수의 훼손 정도에 따라 일부를 복토, 정비함.
 - 봉수 내부의 헬리포트 등의 군사시설 이전을 추진하고 군사시설 이전 후에는 낮은 보호책을 설치하여 일반인들의 진입을 방지하여 물리적 훼손을 미연에 방지함
 - 3수준 : 조사 후 보존 활용
 - 발굴조사 이전에 일반인들의 출입을 금지하여 물리적 훼손을 미연에



방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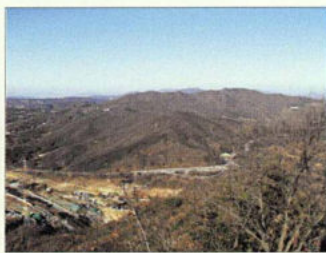
- 발굴조사 후 복토 정비하고, 잔디 등을 식재하여 토사 유실 방지
- 붕괴 우려 지점에 한해 방호벽 일부 복원
- 노출되어있는 건물지는 조사 후 기반부 노출 정비

3) 관련계획 및 관련 법규 검토를 통한 적용방향 설정

- 2020 용인도시기본계획 및 제4차 국토종합개발수정계획 등 상위 개발계획에 발맞추어 유적정비 및 복원을 추진하되 유적의 성격을 잘 부각하기 위해서는 상위 계획의 일부 수정이 요구됨
- 유적의 정비 복원 및 관리운영 계획은 문화재보호법과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거하여 실시하며 공원의 조성과 이용은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공원법에 의거하여 처리함
- 유적이용의 가장 큰 제약사항인 군사보호구역은 이전대체부지 확보 등 장기적인 재원마련을 통하거나 군 당국과 협의하에 군사보호구역 축소를 유도

4) 주변의 유적 및 관광자원과의 연계방향 설정

(1) 석성산봉수와 연계한 석성산 일대 문화유적 활용방안 검토



석성산성에서 본 할미산성

- 석성산봉수 및 석성산 주변에 산재한 유적을 체험 가능한 연령별, 인원별 다양한 코스를 설정하여 운영
- 석성산봉수 및 문화유적을 좀 더 재미있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 해설사 양성
- 일반등산객들에게 석성산봉수와 문화유적의 중요성을 알리는 각종 안내판 설치
- 석성산성과 할미산성 등 지역관련 역사 스토리텔링을 개발하여 석성산봉수의 역사성을 현대에 이을 수 있는 문화적 장치를 확보

(2) 시민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관광명소를 조성

- 석성산과 할미산을 하나의 역사 유적지로 인식하여 보존·관리계획을 수립



- 단순한 등산코스가 아니라 석성산성 및 할미산성과 연계한 관방 유적지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안내체계 구성과 탐방환경 개선
- 유적의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조망권을 확보하여 고대 통신체계인 봉수의 신호 전달체계를 인식할 수 있는 활용방안 수립
- 석성산봉수 탐방로와 석성산성 및 할미산성과 연계한 지점에 용인시유적전시관을 건립하여 역사·문화에 대한 발견과 교육의 현장이자 석성산봉수의 역사·문화적 중요성을 알리는 시발점 역할 수행
- 유적지에 담긴 역사적·문화적 의미와 가치를 대중과 함께 한다는 목표 설정
- 탐방로에 관방 유적지의 의미와 가치를 전달하는 안내체계를 정비한 탐방코스를 구성·도입
- 석성산을 찾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3) 용인시 답사코스 정비

- 연계 교통수단 등을 모색함
- 관내 위치하는 대응 봉수인 건지산봉수를 활용
- 석성산봉수 인근에 봉수박물관을 건립하여 문화관광자원 활용의 중심지 역할을 부여

5) 유적의 보호관리 및 향후 복원계획 방향 설정

(1) 문화재 보존 기본구상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의 보존 방안 수렴하여 문화재 보존방향을 설정하고 활용
- 인위적,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봉수의 훼손 원인을 파악하여 봉수의 추가 훼손 감소 방안 수립
- 봉수의 보존방향을 중심으로 봉수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한 물리적 특성을 고려한 시설 도입
- 자연적인 현상 및 인위적인 파손에 의한 문화재 보호
- 토사유출로 인한 석재의 노출 등 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보호와 등산로 우회로 및 펜스 등을 설치하고 문화재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 문화재임을 주지시킴



(2) 문화재의 활용 기본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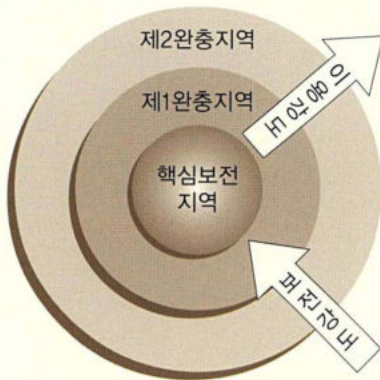
남산봉수 거화장면

- 지속가능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주기적인 감시
- 소중한 문화재를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가꾸고 지켜나감으로써, '문화재 사랑 실천'의 범사회적 분위기 확산과 선진 시민공동체문화를 형성하고자 '문화재 1지킴이 운동'을 널리 확산시킴
- 석성산을 이용하는 일반시민들에게 석성산봉수 역사성과 중요성을 인지하고자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강화
- 다양한 Program을 활용한 문화재 인식제고
- 석성산봉수와 주변문화재에 담긴 역사·문화적 의미와 가치를 탐방객에게 전달하는 문화재해설코스를 운영·활용

(3) 브랜드 개발

- 석성산이 가지는 차별화된 브랜드를 개발하고 홍보하여, 봉수 및 산성 등 문화재의 중요성을 일반인들에게 인식시켜, 문화재 홍보 및 보존에 활용

〈복합용도 공간구조(MUM)〉



(4) 문화공간 조성

- 유적지의 역사, 문화, 환경을 모두 고려하여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하나의 역사적인 매개체로 성격을 통합하는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
- 복합용도 공간구조(Multiple Use Module) 개념을 도입하여 보존과 이용의 조화를 도모
- 석성산봉수를 핵심보전지역(Core Preserve)에 두고 그 외곽에 제1완충지역, 제2완충지역을 배치하여 보존과 이용의 강도와 밀도를 조정한다.

■ 공간구상의 기준설정

지역 설정	적용 지역	중심 기능
핵심보전지역	봉수지역	문화재 보존기능
제1완충지역	산성지역	문화재 보존 및 활용기능
제2완충지역	석성산	활용기능



(5) 공간배치 기본방향

- 봉수지역 : 수준별 봉수 보존 및 활용방안을 적용하여 봉수 보존 및 복원 방향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설정
- 산성지역 : 봉수와 시설지역(등산로) 사이의 완충역할을 담당하는 곳으로, 등산객의 동선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등산로를 우회
- 석성산지역 : 석성산 등산로 진입부에서부터 유적에 이르는 지역까지 이용자의 편의 도모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며 아울러 할미산성 등산로와도 연계하여 편의시설 설치

2. 석성산봉수 종합정비계획

1) 시·발굴조사 지역 계획수립 및 시기 반영

(1) 시·발굴조사 필요성

- 현재까지 이루어진 기 조사는 모두 지표조사로써 유적의 간단한 현황 파악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짐
- 그 결과 석성산봉수에 대한 대략적인 소개는 이루어졌으나 정확한 현황 파악조차 이루어지지 않음
- 따라서 유적의 정확한 규모 및 성격 등을 규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름
- 이에 유적의 정확한 규모와 구조 등의 현황과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발굴조사의 필요성이 대두
- 아울러 봉수의 외곽을 둘러싼 석성산성과 할미산성의 조사를 병행하여 석성산봉수의 축조와 운영 그리고 석성산성 및 할미산성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유적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기초자료수집을 목적으로 한 체계적인 중·장기 연차조사의 계획수립이 필요

(2) 발굴조사 계획

- 조사계획안은 훼손, 기록보존, 유적의 현황, 성격 규명 및 정비 등 활용자료 확보 등을 위해 봉수대와 그 하단 우물지 주변 평탄지를 하나의 석성산봉수 권역으로 묶어 조사구역을 설정하여 조사의 효율을 기함
-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석성산봉수 중·장기 발굴조사계획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석성산봉수 유적조사 향후 계획(안)

구분	조사년도	면적	비 고
1차	2009	1,500㎡	석성산봉수 시굴조사 및 석성산성 정밀지표조사
2차	2010	1,000㎡	석성산봉수 발굴조사
3차	2011	500㎡	석성산봉수 하단 우물지 발굴조사

(3) 봉수대 조사계획

- 현 잔존상태로는 유적의 정확한 현상확인이 불가능하여 정비 및 복원안 수립이 제한
- 석성산봉수는 내부에 시설물이 들어설 수 있는 평탄지가 좁음
- 기 조사를 통해 1동의 건물지가 확인됨
- 봉수대 하단 우물지주변 평탄지가 협소한 봉수대내부 평탄지를 대신한 것으로 추정
- 우선 봉수대와 하단 우물지 주변지역에 대한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유구의 분포범위를 확인한 후 본격적인 발굴조사를 실시
- 발굴조사는 봉수대지역과 하단 우물지주변 평탄지로 나누어 실시하여
- 내부시설을 확인하고 많은 유물을 확보하여 유적의 성격을 규명하고 정비복원을 위한 고증자료를 확보
- 아울러 평탄지 조사를 통해 유적내에서의 생활상을 규명하는데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여겨짐
- 이를 위해 3차에 걸친 1차 조사계획안을 수립

(4) 봉수대 주변 조사계획

- 기존의 지표조사 등으로 석성산봉수가 석성산성내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하여 석성산성과 석성산봉수간의 상호관계를 밝히는 것이 필요함
- 아울러 석성산봉수와 인접한 지역에 관방유적인 할미산성이 위치하여 이들 유적간 연계성을 밝히는 것도 필요함
- 이외에 동백지구 등지에서도 다수의 유적이 확인된 사례가 있어 석성산성 및 주변지역에 대한 좀 더 정밀한 조사가 요구됨
- 따라서 석성산의 문화유적에 대한 정밀지표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석성산성과 할미산성 등도 별도의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석성산봉수정비안과 연계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이를 통해 이 지역이 갖는 군사지리적인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각각의 관방유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 정밀지표조사를 통해 새롭게 확인되는 유적중 기존조사계획안의 내용과 부합되는 부분은 1차 조사계획안을 수정하여 추가
- 아울러 석성산봉수 발굴조사에 앞서 발굴인력 및 장비의 진입로 확보를 위한 조사도 병행되어야 함
- 이는 조사기간 동안 석성산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제기될 수 있는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와 조사단의 편의를 구하기 위함

■ 주변유적 조사 방안

구 분	조사 지역	비 고
단기	석성산성	정밀지표
	등산로	정밀지표조사를 통한 발굴조사
중·장기	석성산성	발굴조사(별도의 계획안 수립)
	할미산성	발굴조사(별도의 계획안 수립)

2) 유적지 내·외부 종합유적정비계획

(1) 봉수 : 유적지내 유구 보존방안

- 석성산봉수는 간단한 지표조사를 통하여 약간의 시설물들이 확인되었으나 정확한 현상은 확인되지 않음
- 발굴조사를 통해 봉수의 현상을 확인한 후 정비방안 마련
- 연조, 방호벽, 건물지 등의 시설물은 정비를 원칙으로 하나 시설물중 조사를 통해 보존상태가 양호한 곳을 택하여 복원을 검토
- 복원은 유적의 활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하고 유적 방문객들에게 효과적인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시설물의 복원 및 정비는 유적내 탐방 동선을 고려하고 일부지역에 집중하여 실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유적을 훼손하는 가장 큰 원인은 등산로로 뿌리를 유구를 복토하거나 등산로를 우회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훼손원인을 제거
- 유적 주변지역의 수목 및 잡풀을 제거하여 화재시 유적을 보호하고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유적 정비 방향

유 구	정비방향
연조	정밀조사 후 복원 또는 복토
방호벽	정밀조사 후 복원 노출전시
건물지	잔디식재 후 노출
우물지 및 기타	음수대 설치, 목조 보호각 설치
유적탐방로	박석 계단 및 강희다짐

(2) 석성산성 : 유적지를 둘러싼 유적 보존방안

- 석성산성은 축조 후 산성만 경영되었으나 봉수가 조성된 이후에는 산성과 봉수를 하나의 조합으로 인식하여 경영하였음
- 산성과 봉수의 조합은 용인 석성산이 교통과 통신의 요충지임을 밝혀주는 중요한 유적임
- 따라서 석성산봉수의 정비는 봉수를 둘러싸고 있는 석성산성의 정비가 동반되어야 효과적인 유적 정비방안이 될 수 있음

① 성벽

- 석성산성은 정밀지표조사를 통하여 성벽은 확인되었으나 정확한 축성방법은 확인되지 않음
- 별도의 발굴조사를 통해 성벽의 축성방법을 확인한 후 정비방안 마련
- 축성방법이 확인된 구간 중에 보존상태가 양호한 곳을 택하여 복원을 검토
- 성벽을 훼손하는 가장 큰 원인은 성벽에서 자라는 수목으로 일시에 뿌리를 제거하여 훼손원인을 제거
- 성벽주변의 수목을 제거하여 성벽을 일주할 수 있는 탐방로를 확보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탐방로를 확보
- 성벽 내외측 20m 범위의 수목 및 잡풀을 제거하여 화재시 성벽을 보호하고 성벽 정비시 작업도로 활용

② 성내시설물

- 문지, 치성, 망대, 건물지 등의 시설물은 정비를 원칙으로 함
- 복원은 유적의 활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하고 유적 방문객들에게 효과적인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유사한 성격의 시설물은 복원을 최소화 함
- 시설물의 복원 및 정비는 성내 탐방 동선을 고려하고 일부지역에 집중하



여 실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각각의 유구에 대한 정비방향은 다음과 같음

■ 유적 정비 방향

유 구	정비방향
성벽석축	정밀조사 후 노출전시
석렬 및 적심	잔디 식재 후 부분 노출
주춧돌 및 석축	멸실 부분 복원 후 노출
우물지 및 기타	음수대 설치, 목조 보호각 설치
유적탐방로	박석 계단 및 강회다짐

③ 기타유적

- 주변유적의 정비방안 설정은 단일유적 아닌 석성산봉수와 석성산성을 중심으로 한 복합유적의 개념으로 각각의 유적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함

(2) 등산로

- 유적을 보호하기 위해 유구에서 최소한의 거리를 이격시키고 자연지형을 이용한 등산의 동선을 최대한 활용
- 위험구간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탐방객의 접근을 금지
- 자연친화적인 재료를 이용하여 포장
- 구간별 박석 계단 및 강회다짐, 흙시멘트포장, 고압블럭 등 재료의 변화를 주고 자연친화적 재료를 사용

(3) 주변 시설 정비방안

① 문제점

- 유적 접근로상에 사유지와 군사시설 등으로 철조망 등 위해 시설 난립
- 유적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폐기된 군용 초소 및 헬기장 등의 군사시설물 존립

② 개선안

- 사유지 매입 후 조망 위해시설 철거
- 유적경관 고려 협의구역 확대
- 군사보호구역 내 군사시설 유적경관 고려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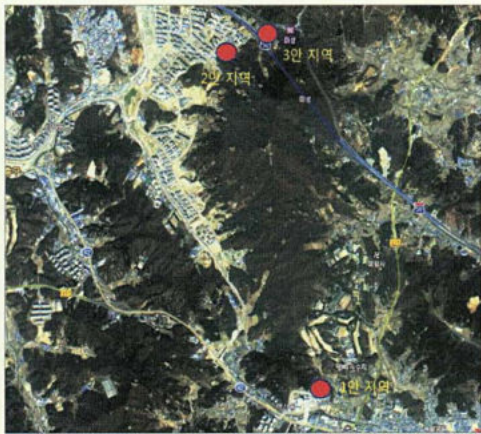


(4) 유구보존 및 체계적인 관리 활용계획

① 박물관 계획안 (가칭 '봉수박물관' 기본 구상)

■ 건립 대상지

구분	대상지	선정사유	문제점	비고
1안	시청주변지역	순환적 동선체계	동선이 김	
2안	백현마을 공원지역	주변 공원지역과 연계 최적지	등산코스가 가장 가파름	
3안	터키군 참전비주변지역	함미산성 연계 최적지	영동고속도로와 근접	



용인시 봉수박물관 건립위치(안)

- 건축면적 : 900㎡(연면적)
- 전시실 : 400㎡, 수장고: 200㎡, 사무실: 100㎡, 기타: 200㎡
- 규모 : 지하1층, 지상 2층
- 구조 : 철골+철근콘크리트(외장: 강화유리 및 티타늄)
- 건립비용 : 100억(토지매입 및 전시공사 별도)
- 전시주제 : 선사실, 봉수실, 삼국실, 고려~조선실, 근현대실
- 전시대상 : 봉수관련 유물을 중심으로 주변 석성산성·함미산성 등 용인관내 관방유적과 용인 지역 출토 유물

• 전시관 활용방안

- 랜드마크화를 통한 관광객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ex. 스페인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 기존 향토사료관 및 동백지구 유적전시관과는 별도의 봉수 및 관방유적 중심의 전시관으로 활용

② 편의시설 활용방안

■ 편의시설 활용방안

편의시설	활용방안
주차장	등산로 입구에 유료주차장 설치 주차대수(소형 100대, 대형 10대)
화장실	탐방로 시, 종점에 각 1개소 탐방로 중간지점에 유적 경관과 어울리는 이동식 화장실 설치
전망대	기존 석성산 전망대 활용 및 함미산성 정상부에 신규조성
문화유산해설사 대기실	주차장 및 정상부 인근에 설치



3. 각종시설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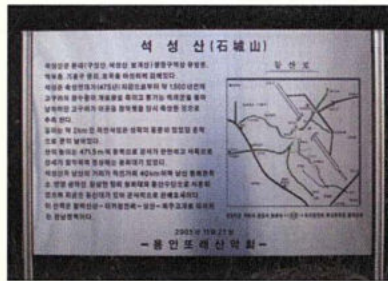
1) 안내판 정비

(1) 석성산봉수 · 석성산성 및 등산로 안내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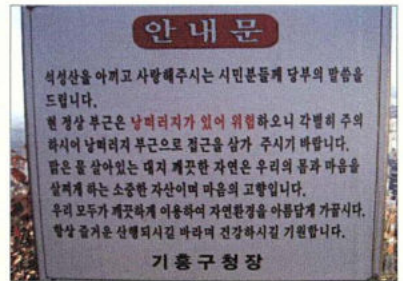
- 유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코스를 도로변에 표시
- 등산로를 정비하여 등산로 입구에 안내판을 설치
- 각 등산로의 시작지점에 등산 코스에 대해 자세하고 쉽게 제작
 - 그림으로 제작
 - 각 코스마다 거리와 편의시설, 휴식시설, 편의시설 등을 표시
-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안내판을 곳곳에 배치
-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 안내 병행



석성산 등산로 안내판



우물지 내 석성산 및 등산로 안내판



석성산 정상부의 안내판



등산로 내 이정표 1



등산로 내 이정표 2



등산로 내 이정표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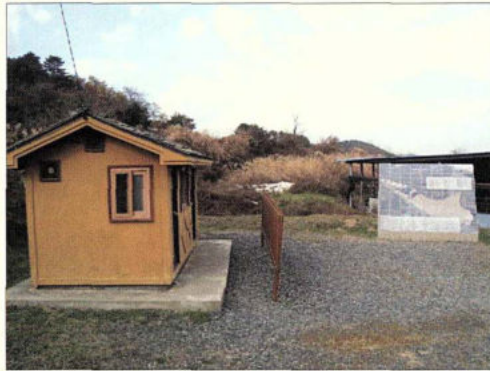


우물지 내 음수 안내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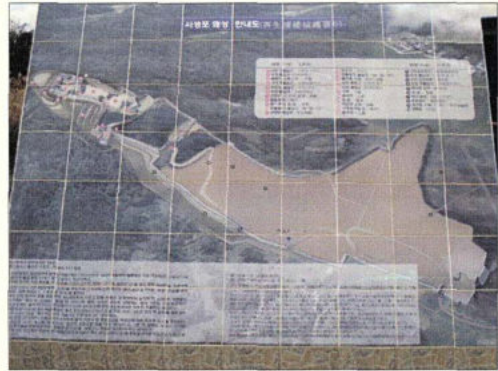
석성산 일대 안내판



석성산 내 행사알림 프랭카드



서생포왜성 화장실 및 안내판



서생포왜성 안내판



제주 남두연대



제주 남두연대 유적설명판



삼년산성 안내판 A형



삼년산성 안내판 B형



파사성 유적 안내판 A형



파사성 안내판 B형

정비된 안내판 예시



(2) 주변유적 안내판

- 유적과 함께 볼 수 있는 인근의 유적 및 관광지를 표시한 안내판 구비
- 영어 · 중국어 · 일본어 등의 외국어 안내판 제작
- 어려운 낱말, 한자어 등의 사용을 자제하고 시각적인 효과를 강조
- 용인시내 문화유적과 관광지 안내판 통일
 - 디자인, 문구, 글씨체 등
- 자연친화적 재료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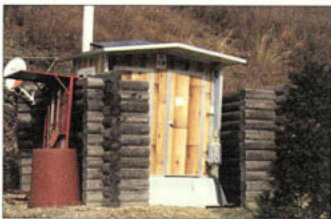
(3) 봉수관련 안내판

- 봉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봉수제를 개괄적으로 설명
- 그림 등을 활용하여 안내판 제작

2) 편의시설 정비-탐방코스 내 편의시설



삼년산성 관리동 예시



삼년산성 화장실 예시

- 탐방코스 내 편의시설 설치에 유적의 훼손을 초래할 수 있음
- 편의시설설치는 화장실, 벤치, 음수대 등 꼭 필요한 것으로 제한해야 함
- 아울러 편의시설의 배치는 최적의 장소를 택하여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자연친화적인 재료와 색상을 선택하여 주변경관과 어울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함

3) 행사시설 정비-신년 해맞이, 할미산성 대동굿

4. 문화자원 연계 계획

1) 지역단위 관광계획

- 석성산성 및 석성산봉수 · 할미산성 · 처인성 등의 관방유적, 경기도박물관 · 백남준 아트센터 · 경기도국악당 · 용인동백문화유적전시관 · 호암미술관 등 용인관내 다수의 박물관 및 미술관, 에버랜드 · 민속촌과 각종 리조트 등 연계



(1) 문화유적 답사코스개발

① 석성산봉수의 성격을 살린 관방유적 답사코스개발

- 답사코스 예시
 - 석성산성-석성산봉수-터키군 참전비-할미산성
- 효과
 - 등산과 함께 관방유적 관람을 실시하여 용인지역이 고대로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전략적 요충으로 인식되어왔음을 인식할 수 있음

② 박물관 및 미술관과 연계한 답사코스개발

- 답사코스 예시
 - 할미산성-터키군 참전비-석성산봉수-경기도박물관(또는 호암미술관, 세종옛돌박물관 등)
- 효과
 - 문화유적으로만 짜여진 답사보다 다양한 문화유산을 느낄 수 있는 기회제공

③ 위락시설과 연계한 답사코스개발

- 답사코스 예시
 - 석성산성-석성산봉수-할미산성-경기도박물관-(1박)-에버랜드(또는 한국민속촌, 용인농촌테마파크 등)
- 효과
 - 1박을 요구하는 답사코스로서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
 - 문화유적 답사라는 지루하고 딱딱한 이미지 개선

2) 광역단위 관광계획

① 지역단위 관광코스예 주변지역(수원·화성·성남·안성·평택·광주) 문화유산과 연계

- 답사코스 예시
 - 석성산성-석성산봉수-할미산성-수원 화성(또는 오산 독산성)
- 효과
 - 봉수, 산성, 평산성, 읍성 등 다양한 관방유적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제공



② 조선시대 경영되었던 한양이남의 산성들과 연계

- 답사코스 예시
 - 남한산성-석성산성-오산독산성
- 효과
 - 조선시대 한양이남의 요충처로서 기각지세로 불리던 유적을 답사하여 당시의 관방체계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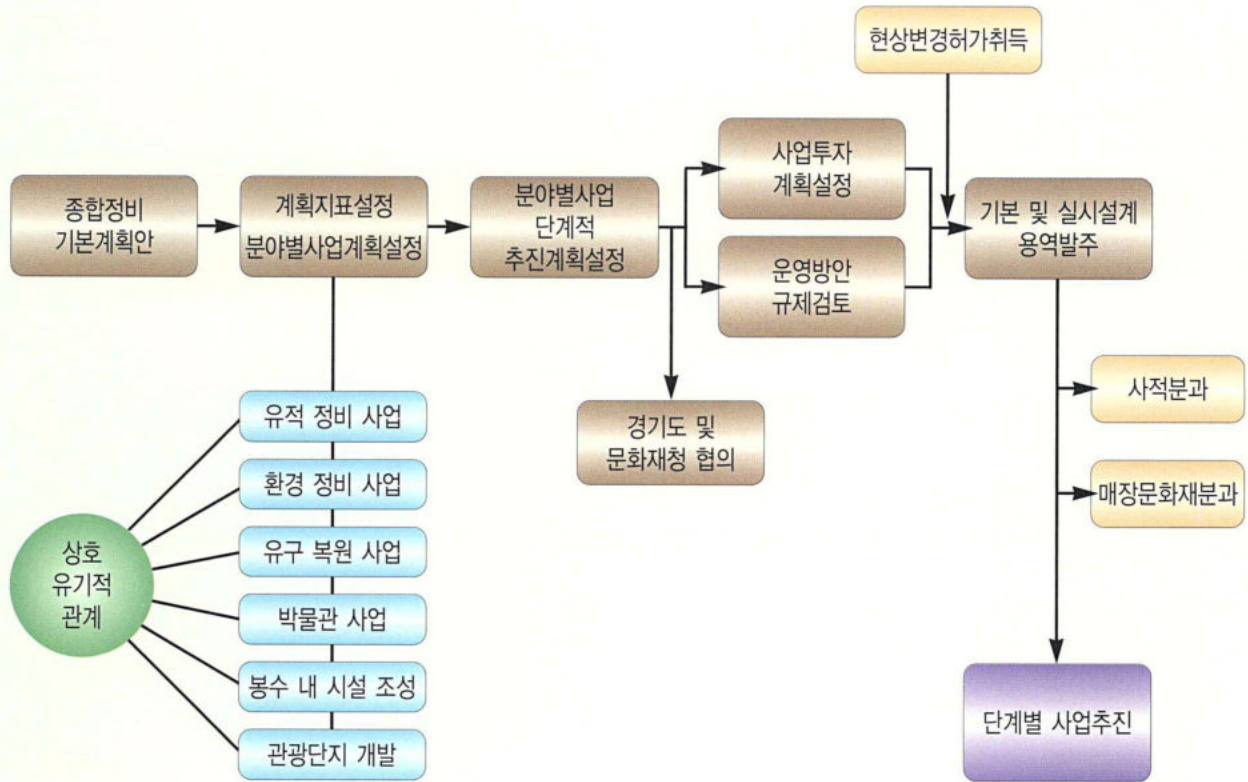
Ⅵ. 사업계획

1. 사업추진계획

1) 기본구상 이후 추진과정

석성산봉수 종합정비 안의 확정 이후 개략적인 추진과정은 아래와 같으며, 본 용역 수행이 완료되는 단계의 시점은 종합정비 기본계획안의 확정까지이다. 즉, 석성산봉수 종합정비의 기본계획지표를 설정하고, 6개 분야의 사업계획을 설정한 다음, 각 분야별 사업의 투자계획과 운영 규제안을 통한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석성산봉수 종합정비 기본계획'의 계획안이 일차적으로 완성된다. 이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확정안에 따라 실행될 단계별 사업들은 바로 이 기본계획안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석성산봉수와 석성산봉수 주변에서 이루어질 각 개별사업들은 그 내용과 규모에 따라 정도는 다르지만 필연적으로 현상변경을 초래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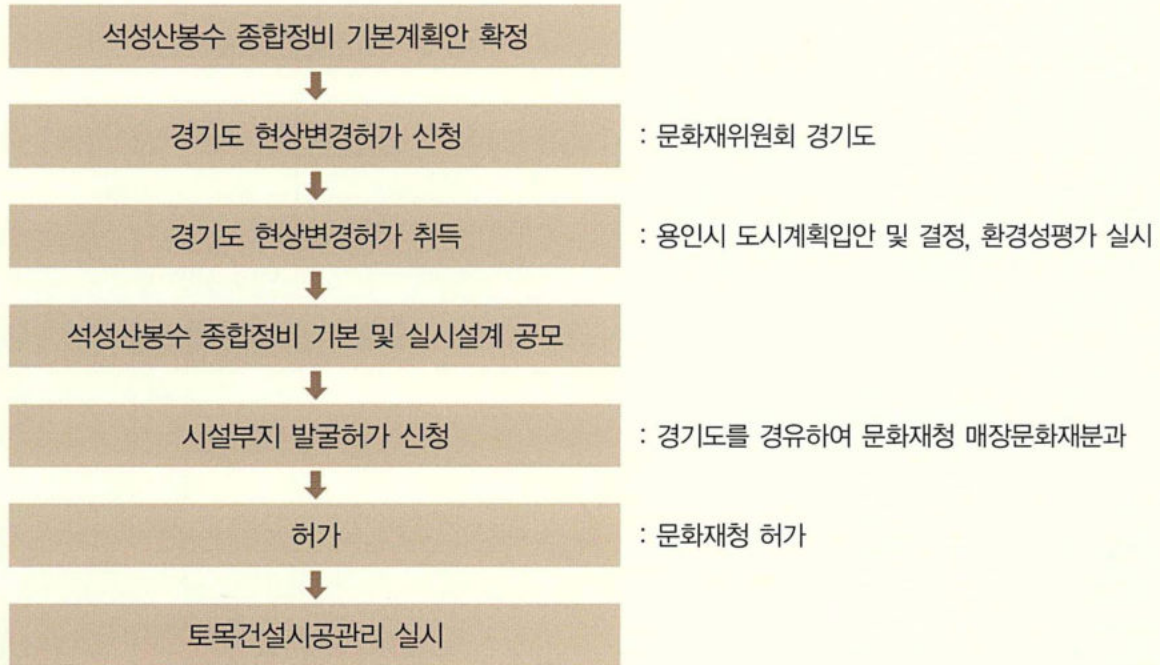
- 석성산봉수의 현상변경을 요하는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경기도청의 허가를 취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함
- 기본계획 안을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필수
- 현상변경허가의 신청시기는 기본계획안 확정 후에 기본 및 실시 설계 공개경쟁을 고시하기 이전
- 현상변경허가와 함께 사전 환경성검토도 이루어져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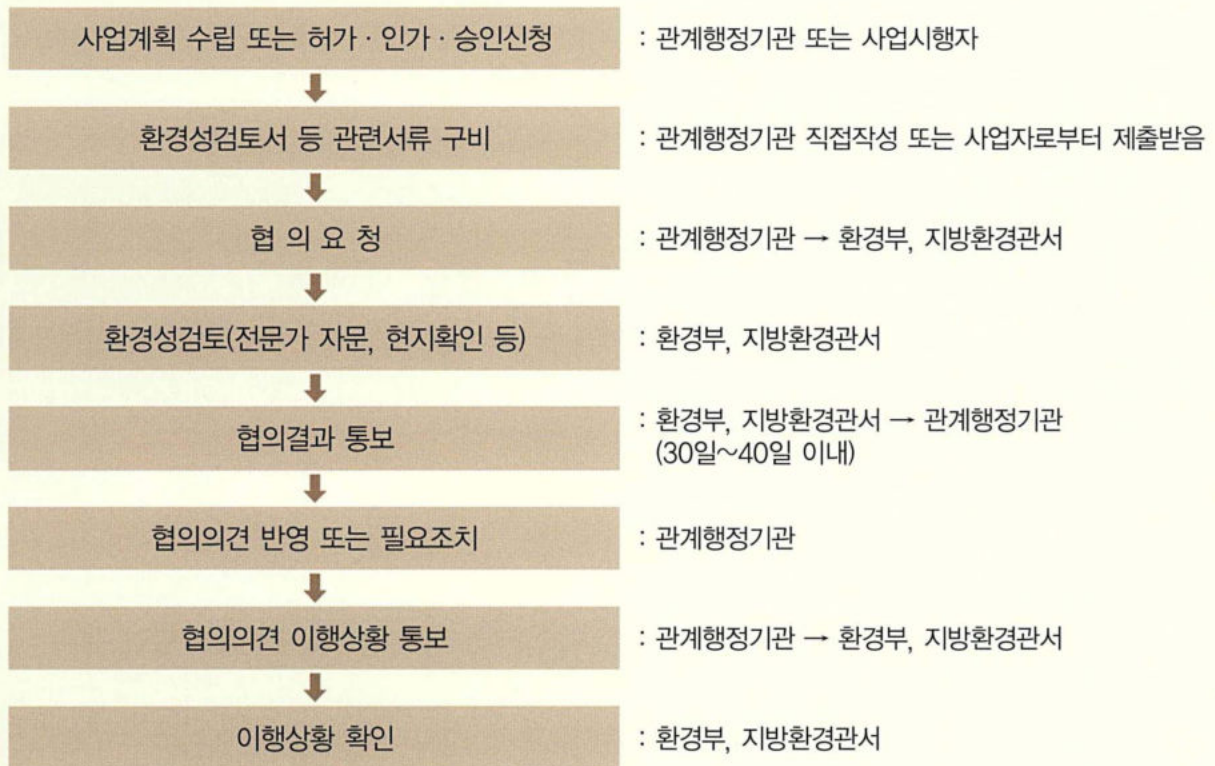
■ 기본구상 이후 추진과정

■ 석성산봉수 도입시설이 유적에 미치는 영향

사업시설	위 치	규 모	유적에 미치는 영향		비 고
			적음	큼	
복원 대상물	봉수內	1,500㎡		○	발굴조사
등산로입구 및 광장조성부지	봉수外	3,000㎡	○		
주차장부지	봉수外	6,000㎡	○		
전시관부지	봉수外	900㎡	○		
식생정비	봉수內外			○	전문가입회
탐방로	봉수內外	5,000m		○	전문가입회
등산로개선	봉수外	5,000m	○		전문가입회
기반시설 정비사업	봉수內		○		발굴조사
주변지역 정비사업	봉수外		○		전문가입회



■ 문화재 현상변경에 대한 허가절차(지정문화재의 경우)



■ 환경성평가에 대한 절차



2) 실행방안

(1) 추진위원회 설치

- ① 시장을 중심으로 한 용인시 관계자와 학계 등으로 구성
- ② 사업의 단계별 실행전략, 재정조달 전략, 단계별 안의 심의와 평가 등을 관할

(2) 설계공모의 지명경쟁

- ① 석성산봉수 종합정비 기본계획 안 중에서 공원활용과 박물관의 설계 계획
- ② 국내외 저명 건축 및 조경팀을 초대 지명경쟁 유도

(3) 석성산봉수 형질변경 수반사업의 유의점

- ① 실시설계시에 문화재보존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 ② 훼손이 예상되는 지점은 정비·보존하며, 필요한 지점에 대해서는 발굴조사 선행
- ③ 석성산봉수 내의 형질변경은 경기도청의 허가사항임

3) 기간별 사업구분

(1) 구분의 기준

- ① 다양한 사업의 동시 다발적인 진행은 현실적으로 불가
- ② 시기별·단계적인 추진을 통해 재정적인 부담을 분산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변수를 수용하여 우수한 실행모델 완성
- ③ 석성산봉수 외곽지역에 건설할 박물관, 등산로 등 유적활용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업을 제외하고 내부의 조성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
- ④ 추가적인 사업은 제반 여건 개선 후 추진



(2) 1단계 : 초기추진사업(2010년~2011년)

① 초기추진사업 선정의 기준

- 최우선시행사업 : 석성산봉수 내 정비사업으로 유적보존과 직접 관련된 부분
- 재원마련이 용이하거나 이미 확보되어 있는 분야
- 사업에 따라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초기추진단계부터 시작
- 사업시작 후 단기간에 완료될 사업

② 초기추진사업의 대상사업과 추진방안

- 토지매입 및 보수·정비
 - 석성산봉수구역 및 박물관부지 토지매입
 - 박물관 건립부지 문화재 지표 및 발굴조사
 - 봉수의 정밀실측조사
 - 등산로 정비에 따른 발굴조사와 조사지점의 보존·정비
- 박물관건립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 기본설계단계에서 고고학자, 건축학자의 자문을 통해 합동 추진
 - 기본 및 실시설계안 발주를 조기에 서둘러 실시설계안 발표시기를 2011년 상반기 중으로 추진,
 - 민선 5기의 주요 역점사업으로 부각시킴으로서 사업의 명분과 사업추진의 지속력 확보
 - 박물관 설립추진반을 시청내에 설치하여 박물관의 전시유물 구입 및 대여작업도 실시설계와 함께 착수
- 석성산봉수 공원조성 및 관광진흥책 마련
 - 공원화 사업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 체험프로그램 및 운영프로그램 등의 실시 구상

(3) 2단계 : 도약단계사업(2011년~2014년) - 박물관 건립단계

① 도약단계사업 선정의 기준

- 석성산봉수 활용을 위한 박물관 운영
- 유적 보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이루어진 이후 선행되어야 할 사업
- 재정조달에 있어서 사전 준비가 많이 필요한 사업

② 사업내용



- 박물관 건립
 - 실시설계에 의한 박물관 건립
 - 건립공사 및 준공은 2014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여 민선 5기 문화행정의 홍보효과를 극대화 함
 - 전시실 구성 및 운영은 민선 6기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여 건설과 전시설계를 이분화 함
 - 전시실 공사 등이 마무리 될 때까지 박물관은 휴게 공간, 자료실 운영 등 시민편의시설 제공기능을 담당
 - 박물관 고유 활동은 유물수집, 유적활용방안 연구,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연구 활동 위주로 운영
 - 정식 개관을 민선 6기 후반에 추진함으로써 민선 6기 용인시의 선진적 문화행정 역량을 홍보함
- 프로그램 운영
 - 체험프로그램의 준비사업
 - 프로그램 시범운영

(4) 3단계 : 복원단계사업(2015년~2019년) - 복원사업 단계

① 복원단계사업 선정의 기준

- 유적 정비 및 보수가 이루어진 이후 필요한 공원화 사업
- 재정조달 및 실시설계에 있어서 사전 준비가 많이 필요한 사업

② 사업내용

- 봉돈과와 건물지의 복원
 - 실시설계 단계의 정확한 고증 필요
 - 봉돈과 건물지 각 1개소 복원사업
- 편의 시설물 도입
 - 탐방로 및 유적지 내 편의시설 설치

(5) 장기계획사업(2015년~2018년)

① 사업의 성격

- 대규모의 재정투자가 필요한 사업
- 유적지의 개발사업 중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적은 사업
- 장기적 관광권 형성을 위한 사업



■ 석성산봉수 장기사업계획

구 분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민선기수	4기		5기				6기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학술용역	발굴조사										
토지매입	유적지										
	유적주변지역										
유적정비	잡목제거 및 정비										
	봉수대정비										
	봉수대복원										
	탐방로정비										
	기타										
시설정비 (박물관 및 기타 편의시설)	설계										
	건축										
	기타 편의시설										
운영프로그램개발	운영프로그램개발										

② 사업내용

- 석성산봉수 주변 삭성산성 · 할미산성 등의 역사유적 개발
- 박물관 및 광장주변의 식생복원 사업

3. 관리운영계획

1) 관리운영의 기본방침

(1) 관리 운영 주체 : 용인시

(2) 관리와 운영의 최대목표

- ① 석성산봉수의 보존과 이용의 효율화
- ② 방문객의 편의성과 안전성 도모
- ③ 공원활용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제고하고,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
- ④ 석성산봉수의 이미지 부각을 위한 홍보의 극대화
- ⑤ 유적의 학술적 가치 극대화



2) 관리계획

유적 및 박물관 관리, 공원시설의 관리를 구분하되 전체적으로 통합하여 감독

(1) 유적 및 전시 관리

- ① 박물관의 구성, 야외전시물, 유적지의 보존과 관련된 관리
- ② 체험프로그램 관리
- ③ 모든 관리는 문화재보호법과 박물관·미술관 진흥법 기준에 따라 실시
- ④ 세부사항은 경기도와 문화재청의 지침에 따라 규칙을 만들어 운영
- ⑤ 전문가의 자문기구를 활용

(2) 시설물 관리

- ① 공원화 사업을 통한 시설물 관리는 인접한 조각공원과 연계한 효율적 관리체계 개발
- ② 시설과 녹지분야로 나누어 관리

3) 재정관리 방안

(1) 수입

- ① 초기운영은 국비와 지방비 등 공공재원의 지원을 받음
- ② 민간 매칭펀드를 조성하여 수익성을 확대해 나가는 사업 유치.
- ③ 수입은 모두 공원과 전시관의 운영과 시설 개선에 사용

(2) 수입의 종류

- ① 정부예산 : 국비, 도비, 시비
- ② 입장수입 : 전액 시금고 수입조치
- ③ 판매수익 : 식당과 매점, 출판물, 기념품 판매(전액 시금고 수입조치)
- ④ 기타수입 : 판권수익, 임대수익(전액 시금고 수입조치)



(3) 지출

- ① 수입은 석성산봉수의 보존·정비, 관리운영 및 시설개선에 지출하여 장기적으로 최대한 재생산되도록 함
- ② 재정보조를 확보하고 투명성을 위하여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 하에 지출

(4) 지출의 종류

- ① 경상경비 : 인건비, 사무실 운영, 위탁용역비
- ② 목적사업비 : 전시실유지, 유물구입, 도서발간
- ③ 시설 및 설비투자 : 신규시설, 시설의 유지·보수, 유적의 정비 등

4) 관리운영 조직구성

(1) 조직구성의 기본방침

- ① 공원 및 박물관 등 조성시설의 기능에 따른 조직구성
- ② 최소한의 핵심인력 구성과 전문 업무 외 위탁용역 체제
- ③ 효율적인 운영과 감독이 철저히 될 수 있는 체제 구성
- ④ 공원 내 시설물 관리 운영은 인접한 문화거리와 연계
- ⑤ 연구직의 전문성을 보장하는 조직제도 도입

(2) 조직구성 방안

- ① 인력확보방안
 - 소수의 핵심인력은 공무원으로 공원 내 모든 사업을 책임·감독
 - 전문성이 없거나 능력급이 요구되는 부분은 위탁방식으로 인력을 확보 : 시설물유지, 보안설비운영
- ② 소요인원
 - 관장 : 4급 상당
 - 학예연구과
 - 연구와 출판 업무를 담당하며, 유적의 보존관리 및 보수방안을 마련하



는 역할을 하고 전시기획과 관련된 운영일반과 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관리

- 소요인원 : 지방학예연구관(5급 상당)-1명, 지방학예연구사(6급 상당)-2명, 행정7급-1명, 행정9급-1명, 기능직(사무보조)-1명

• 총 무 과

- 회계, 인사복무, 시설운영, 보안설비운영, 공원시설물관리(청소 및 경비 위탁) 담당

- 소요인원 : 총무과장(행정 5급)-1명, 총무담당(행정6급)1명, 총무담당자(행정7급, 행정 9급, 기능) 각 1명 시설담당(기술6급), 시설담당자(기술7급, 녹지 7급, 기능) 각 1명

(3) 분장사무

① 관장 : 전체업무관장 및 대외대표

② 학예연구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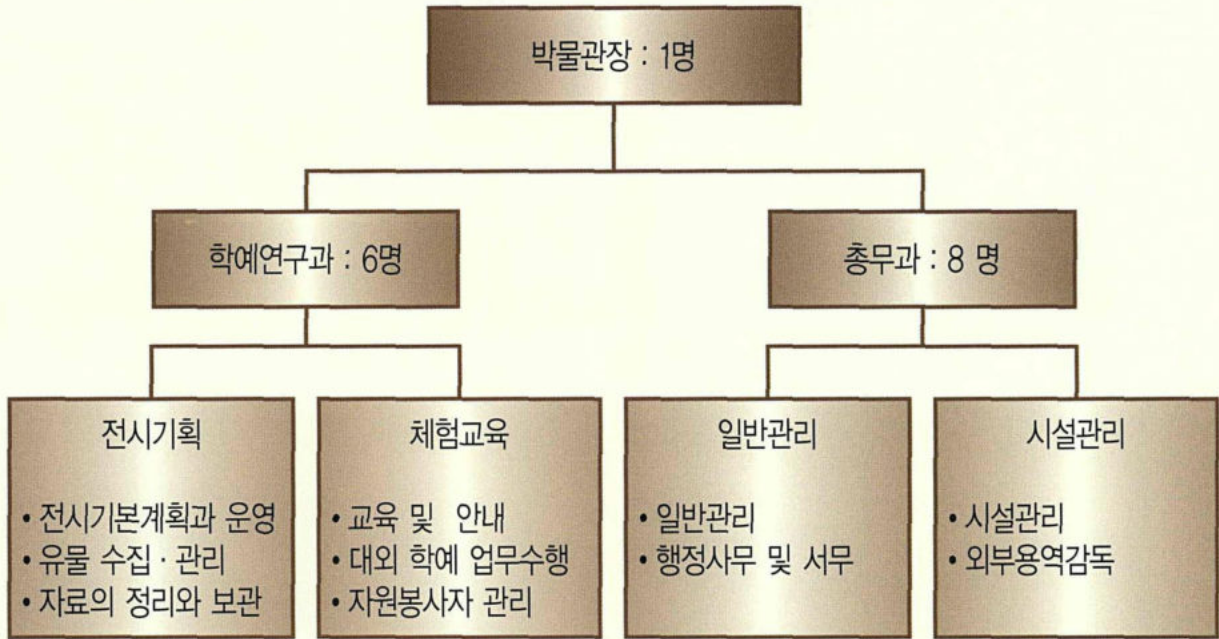
- 전시의 기본기획과 운영
- 유물 수집 · 관리
- 자료의 정리와 보관
- 대외 학예 업무수행
- 교육과 안내수행
- 자원봉사자 관리

③ 총무과

- 일반관리 및 시설관리
- 행정사무 및 서무
- 외부용역감독 : 청소 및 경비

③ 자원봉사자

- 교육 프로그램 안내 및 진행
- 전시관 안내
- 유물의 기초적인 정리 및 관리



■ 박물관 조직도

4.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1) 재원조달

석성산봉수 종합정비 기본계획은 용인시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중요한 문화유적의 정비이자 공공적 성격의 문화개발 사업이라는 점에서 도비 지원이 필수적이다. 석성산봉수는 현재 비지정문화재로 도비의 지원이 어려우나 장기적으로 관광개발사업이나 국가의 지방개발정책의 재원을 확보하는 재원조달 접근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

박물관 건립

건물지 복원 사업

석성산 공원 시설 등

특히 위의 4개항의 사업은 정부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이중에서도 토지매입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또한 산성 활용에 반드시 필요한 주요한 시설인 박물관 및 복원 사업, 유적 내 탐방객의 편의를 지원하는 각종 탐방로, 장애인 도로와 주차시설, 석성산봉수의 각종 안내 시설, 조명시설 등에는 공적자금이 투입되어야 한다.

■ 정부 기준보조율(행정안전부 08.05)

사 업	기준보조율	비 고
향토사료관 및 문화사랑방 시설	30%	
공립박물관건립	30%	
관광지 전적지 개발	50%	
국가지정문화재 보수비	70%	

■ 국고보조금 사업의 지방비 부담에 대한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비율

사 업	도비	시비	비 고
향토사료관 및 문화사랑방 시설	50%	50%	박물관으로 건립시 용인시 재정부담 경감
공립박물관건립	100%	0%	
국가지정문화재 보수비	50%	50%	

2) 투자계획

(1) 단계별 토지매입계획

■ 단계별 토지매입계획

단 계 대상지	단 계		
	1단계(단기)	2단계(중기)	3단계(장기)
봉수대지	마성리 산77-33 (봉수대구역)	마성리 산77-33 (문화재지정구역)	마성리 산77-33 (문화재협의구역)

※ 박물관 및 기타 편의시설 대상지의 토지매입은 상기 제시한 1안~3안중 최종 대상지 결정 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 함

※ 토지매입은 지방문화재지정을 전제로 단기-봉수대구역, 중기 보호구역 및 협의구역으로 나누어 실시함



(2) 투자계획

■ 투자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23,800	
학술용역	소계		600	
발굴조사	1식		600	
토지매입	소계		6,200	
	토지매입	224,424㎡	6,200	
유적정비	소계		2,500	
	잡목제거 및 정비	400m	200	
	봉수대정비	1식	2,000	
	탐방로정비	5,000m	300	
	기타	300		
시설정비 (박물관 및 기타 편의시설)	소계	11,100		
	설계	1식	500	
	건축	1식	10,000	
	기타 편의시설	1식	2,000	
운영프로그램개발	소계	2,000		
	운영프로그램개발	1식	2,000	

■ 단계별 투자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민선기수		5기				6기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학술용역	발굴조사		200	200	200							
토지매입	유적지		1,000									
	유적주변지역			2,000	3,200							
유적정비	잡목제거 및 정비		50	50	100							
	봉수대정비					200	200					
	봉수대복원							300	1,000	300		
	탐방로정비			100	100	100						
	기타								100	100	100	
시설정비 (박물관 및 기타 편의시설)	설계			500								
	건축					5,000	5,000					
	기타 편의시설							500	500	500	500	
운영프로그램개발	운영프로그램개발						500	500	1,000			
단계별사업비			1,250		17,150				5,400			
계												
					23,800							

※ 토지매입 대상지는 마성리 산77-33으로 면적이 224,424㎡에 달하는 큰 필지로서 문화재구역과 지정지역 그리고 협의구역으로 분할하여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함(지방문화재지정을 전제, 토지매입금액은 2008년 공지시가의 2배로 책정)

부록



無材之... 南... 北... 械所貯自墩身之... 入因其礎背作一... 面兩間甃垣長十... 尺與屋齊垣內礎... 每夕於南... 寶壘... 與天臺海烽外此... 遠難直傳故又於... 來準於此... 樓鳳山間烽亦設... 十三尺石築塗灰... 下山腰建四間庫

所處... 具... 隅左右長各十七... 二層下連兩屋前... 蛻小門垣高十二... 尺東西二十一... 山陸烽西準本府... 以火但與天海烽... 上新置間烽以南... 賣高十一尺下圍... 於府墩之烽而... 建守直廳

여 백



內地烽燧 整備・復原事例

- 용인 석성산봉수를 중심으로 -

김주홍(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1. 머리말

한반도내에는 현재까지의 조사와 연구결과를 통해 약 1,000개가 넘는 봉수가 각 지역별로 소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¹⁾ 본고의 작성목적은 금번 용인 石城山烽燧 지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발굴조사 및 정비·복원에 대비한 기초자료 제공에 있다. 따라서 봉수성격상 내지봉수인 석성산봉수의 문헌기록의 구조와 형태별 구조·형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지금까지 이루어진 내지봉수의 정비 및 복원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동안의 봉수연구는 실제적인 답사를 통한 조사가 결여된 채 대부분 문헌 기록에 의존한 제도사적인 면에 치중하여 왔다. 이에따라 내지봉수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와 접근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고를 통해 국내 각지에 소재하는 각 내지봉수의 구조적 특징과 현황과악의 이해에 한 방편이 되고 석성산봉수와의 상호 비교가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를 통해 언급하는烽燧는 전근대적인 사회에서 낮에는 연기, 밤에는 횃불을 통해 변경과 내륙의 위급 상황을 중앙[兵曹]과 지방[鎭堡]에 전하기 위해 설치되어졌던 군사·통신 제도이다. 이러한 봉수제는 우리나라 고유의 제도가 아닌 한국고대 삼국시대부터 발달된 중국의 봉수제²⁾를 받아들여 원시적인 형태로 활용되어졌다. 이후 고려~조선시대에는 국가에서 직접 봉수를 관장하며 점차 체계적인 봉수망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큰 사변시 不舉에 따른 실제 효용여부가 논의되어 조선후기에는 擺撥制度和 병행하여 실시되다가 1895년 전보통신의 등장으로 전국의 모든 봉수가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봉수는 路線에 따라 直烽과 間烽으로 구분되며, 性格에 따라 京烽燧·內地烽燧·沿邊烽燧로 구분된다. 이외에 조선후기 西洋 異樣船의 침입에 대비하거나 연변지역의 군사적으로 중요하였던 營鎭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하

1) 朝鮮 全시기에 발간된 각종 지리지 봉수 조의 지·폐관련 기록에서 검출

2) 李暉光曰 --(前略)-- 唐書 以爲鎭戍烽候 率相去三十里 有一炬二炬三炬四炬者 每夜舉一炬 爲之平安 餘則隨寇多少爲差云 我國烽燧之法 蓋用唐制耳 (『增補文獻備考』卷123, 兵考15 烽燧1)



여 본읍으로만 연락하도록 운영되어졌던 權設烽燧³⁾가 있다.

이중 본고에서 살펴 볼 內地烽燧는 연변봉수와 경봉수를 연결하는 육지내륙봉수로서 『腹裏烽火』와 같은 용어이다. 조선전기인 세종 29년(1447) 3월 의정부에서 병조의 呈狀에 의거하여 올린 건의를 통해 沿邊烟臺造築之式과 腹裏烽火排設之制가 동시에 마련되어 시행되게 됨으로서 구체적인 내지봉수의 시설을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내지봉수의 축조규칙은 조선전기인 세종 29년(1447) 3월 의정부에서 병조의 呈狀에 의거하여 올린 건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실체는 築造材料(土, 石, 土+石), 性格(沿邊, 內地)에 따라 축조형태와 규모를 달리 하고 있다. 또한, 平面形態面에서 (직)방형·(타)원형·장반타원형·복합형 등 지형여건과 시기에 따른 축조방식의 차이외에 증·개축 및 지역별 특이성으로 인해 어떤 특정한 형태를 설정할 수 없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본고는 제2절 內地烽燧의 構造에서는 『世宗實錄』의 내지봉수에 관한 규정인 腹裏烽火排設之制에 의거하여 내지봉수의 구조와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 연변봉수를 구조·형태적으로 분류하여 연변봉수의 필수요건인 煙臺외에 防護壁·濠·煙竈 등 각 부속시설의 유무에 따라 잠정적이거나 여섯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제3절 內地烽燧의 復原事例에서는 현재 국내에 약 40개소가 넘는 다수의 봉수 중 연변봉수로서 복원이 이루어진 30여개소 봉수의 소개를 통해 복원현황과 지역별 실태를 소개하고자 한다.

2. 內地烽燧의 構造

內地烽燧는 최전방 변경이나 해안 요충지에 위치하였던 연변봉수에 비해 육지내륙의 후방지역에 위치하였던 관계로 봉수군의 근무여건이 고되지 않았으며 상대적으로 위험요인이 적었다. 따라서 연변봉수에 비해 규모가 작았으며 구조·형태가 다양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러나, 거화 및 운영유지에 필요한 각종 시설·장비·물품은 동일하게 갖추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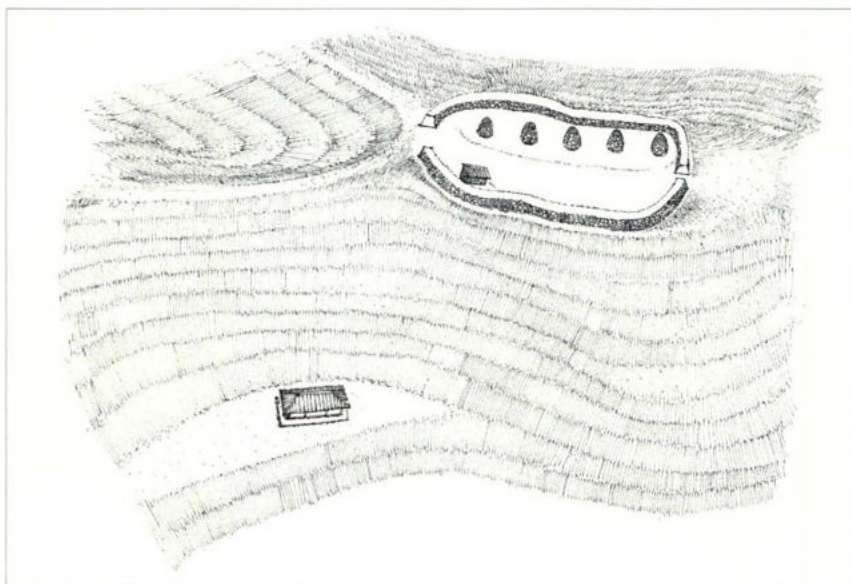
이러한 내지봉수는 조선초기인 세종 29년(1447) 3월 의정부에서 병조의

3) 주로 해안 연변지역에 설치되어져 있으며 구조·형태가 沿邊烽燧와 유사하다. 조선후기 지방지도의 경상·전라 서남 해안 중요 요충지역에 보이는 瞭望은 연변봉수 성격의 권설봉수로 여겨진다. 이 권설봉수는 『輿地圖書』平安道 宣川府의 烽燧條에 權設間烽의 大睦山·東林烽燧 2개소와 『大東地志』의 各道 烽燧條에 京畿道 7處, 忠淸道 4處, 慶尙道 10處, 全羅道 10處, 咸鏡道 5處 등이 소개되어 있다. 중앙에 집결하는 노선의 봉수가 아닌 관계로 기록이 不備된 경우가 많으나, 소수 地誌書의 기록과 古地圖를 통해 일부나마 확인 할 수 있다.



모狀에 의거하여 올린 건의중에 沿邊烟臺造築之式과 腹裏烽火排設之制가 동시에 마련되어 시행되게 됨으로서 구체적인 내지봉수의 시설을 갖추게 되었다.

즉 腹裏(內地)의 봉화는 연변지방에 있는 연대의 비교가 아니니, 전에 있던 배설한 곳에 연대를 쌓지 말고 산봉우리 위에 땅을 쓸고 연기 부역을 쌓아 올려 위는 뾰족하게 하고 밑은 크게 하며, 혹은 모나게 하고 혹은 둥글기도 하며, 높이는 10척에 지나지 않게 하고, 또 垣牆을 둘러쌓아 흉악한 짐승을 피하게 하며 --(下略)--⁴⁾의 기록을 통해 연조의 기단은 크게 方形 혹은 圓形으로 하고 위는 뾰족한 형태에 높이는 10尺(3m)을 넘지 않는 연조의 모습을 추측할 수 있다. 또 흉악한 짐승을 피하기 위해 垣牆을 동시에 갖추었음을 알 수 있다. 그후 성종 6년(1475)에는 왕이 병조에 내린 전교에 낮에 알리는 것은 반드시 연기로 하는데, 바람이 불면 연기가 곧바로 올라가지 못하므로 후망하기 어려우니, 이제 봉수가 있는 곳에는 모두 煙筒을 만들어 두게 하라. 바람이 어지러워 연기가 흩어져 후망할 수 없을 때에는 그곳의 봉수군이 달려와서 고하여 전보하도록 하라 --(下略)--⁵⁾의 기록을 통해 기존의 봉수대 시설에 추가로 '煙筒'을 모든 봉수마다 설치하고 후망불능시 직접 봉군이 다음 봉수로 달려가서 알리게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성종 6년 이후로 모든 내지봉수는 '烟竈'·'垣牆'·'煙筒'의 세 가지 요소를 필히 갖춘 모습을 하였던 것이다.



도면1. 內地烽燧 推定圖1(이철영 교수 작성)

4) 腹裏烽火 非沿邊烟臺之比 勿築臺 於在前排設峯頭 除地築烟竈 上尖下大 或方或圓 高不過十尺 且以垣牆 以避惡獸 (『世宗實錄』卷115, 世宗29年3月4日 丙寅 條.)

5) 『成宗實錄』卷55, 成宗6年5月27日 乙亥 條.



위 문헌기록에 근거하여 이철영은 최근 토지박물관의 조사를 통해 5개소의 연조 하단부가 확인된 성남 天臨山烽燧를 모티브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지 봉수 추정도를 작성 하였다. 방호벽내 5개소의 煙·와 거화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임시 假家 및 동-서로 2개소의 개방식 출입시설이 마련된 평면 장타원형의 형태이다. 아울러 봉수 방호벽 외부 남쪽 하단부에는 봉수군의 가옥을 1동 배치하였다.

한편 조선후기 내지봉수의 구조형태를 파악 할 수 있는 중요한 일례로 화성군 정남면 문학리와 향남면 동오리 경계의 해발 248m인 棲鳳山 정상에 소재하는 棲鳳山烽燧에 대한 『華城城役儀軌』의 관련기록을 들 수 있다.

이하 全文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서봉산 간봉에는 또한 다섯 개의 화두(火竈)를 잡석대 위에 설치하였는데, 화두의 높이 11尺이고 아랫 둘레 13척인데, 돌로 쌓고 회를 발랐다. 허리 부분과 꼭대기에 모두 햇불 아가리가 있는데, 동쪽으로 화성부의 봉화독의 봉화에 준하고 있다. 대 아래 산 허리에 4칸의 공간을 지어 군대 물품을 저장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아래에 守直廳을 지었다.⁶⁾

이상으로 조선시대에는 度量衡의 단위로 營造尺이 널리 통용되었고, 1尺의 단위길이는 31.0cm 내외이었음을 고려하면⁷⁾ 화두의 높이 11척은 대략 3.3m이며, 아랫 둘레 13尺은 대략 3.9m의 규모가 상정된다. 이를 통해 화두의 아래는 상부보다 크고 넓게 하여 위로 갈수록 좁혀서 높이 3m가 넘는 한 개 화두의 규모가 짐작된다. 한편 축조시 ‘돌로 쌓고 회를 발랐다(石築塗灰)’는 내용을 통해 향후 봉수의 복원시 참고해야 할 중요한 단서가 된다. 또 거화와 관련하여 ‘허리 부분과 꼭대기에 모두 햇불 아가리가 있는데(腰頂俱有炬口)’의 내용은 화두의 중간부분에 거화를 위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고 거기서 배출된 연기가 꼭대기를 통해 배출되도록 시설을 마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해방이후인 1947년 車相瓚先生의 遺稿를 모아 明星社에서 발행한 『朝鮮史外史』 第1卷에 소개된 「烽火의 設置方法」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는 해방을 전후하여 당시 온전하게 남아있던 봉수를 실전하고 소개한 내용으로, 그당시 봉수의 구조를 파악하고 향후 봉수의 정비·복원시 참고 할 만한 가치가 크므로 그 全文을 소개하고자 한다.

6) 棲鳳山間烽 亦設五火竈 於雜石臺上 火竈高十一尺 下圍十三尺 石築塗灰 腰頂 俱有炬口 東準於府墩之烽而 臺下山腰 建四間庫舍 以儲軍物 又其下守直廳 (『華城城役儀軌』 卷首 圖說)

7) 尹張燮, 『韓國의 營造尺度』, 『篠愚尹張燮教授華甲紀念論文』, 1975, p.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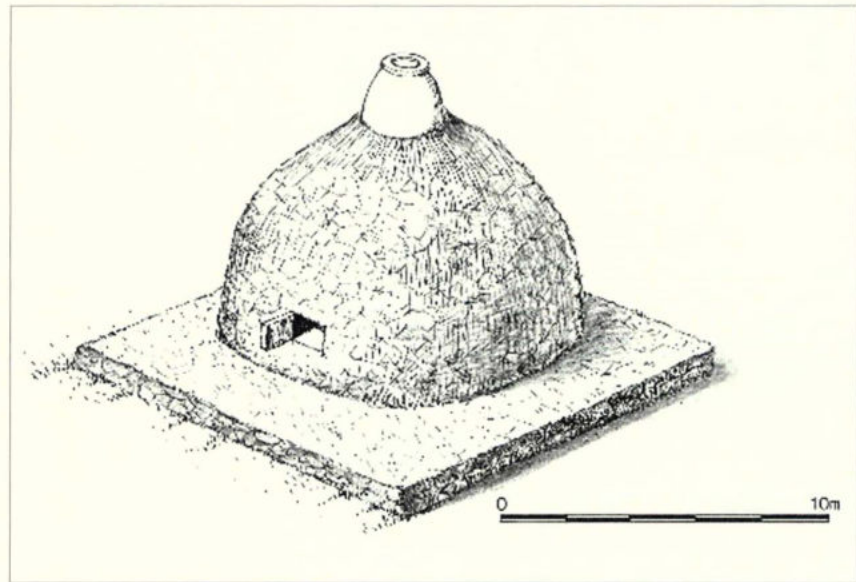
봉화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으니 하나는 봉(烽)이요 또 하나는 수(燧)다. 봉이라 한 것은 화(炬)에 불을 켜서 서로 알게 하는 것이니 밤에만 쓰는 것이요 수는 나무에 불을 피워서 그 煙氣를 서로 바라보게 하는 것이니 낮에 하는 것이다.

화는 普通으로 쓰는 화와 같이 대개 싸리나무로 만들고 그 속에 관솔(松明)을 넣지만 수는 썩나무를 싹고 그 우에다 狼糞(이리똥) 또는 馬糞(말똥)을 피운다. 여기에 特別히 마랑분을 쓰는 것은 랑분은 아모리 바람이 불어도 그 煙氣가 항상 一直線으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를 狼煙이라고 부르는 일도 있다. 그리고 봉화를 드는 方法은 우에도 잠간 말한바와 같이 不時에는 불을 하나를 들고 敵이 현형을 하면 불을 둘을 들고 國境에 가깝게 오면 또 셋을 들고 國境을 범하면 넷을 들고 또 敵軍과 서로 접전을 하게 되면 다섯을 드나니(經國大典 參照)金三淵昌翁의 烽火歎 이란 글에 「0常一炬報平安 其餘應讀惟所逢 二現 三近 四越江 五炬乃知寇乘墉 0상한 燄불은 平安을 報함이오 其外에는 만나는대로 따라서 변하는데 둘은 나타남이고 셋은 가깝고 넷은 江을 건너서고 다섯재는 그제서 도적이 담에 오른 것을 알겠노라」라 한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또 봉화를 설치하는 方法은 다개 中國兵書에 있는 그것을 그대로 채용한 듯하니 첫째 位置에 있어서는 每三十里마다 한 봉화를 두되 그곳에서 第一 높은 곳에다 두고 또 山이 서로 가리고 막혀서 自然히 不便할 때에는 里數에 불구하고 서로 바라 볼 만한 程度의 거리에 두고 萬一 國境까지 臨하게 될 때에는 烽火의 周圍에다 성첩을 쌓았다. 그 다음에 烽火를 설치하는 方法은 한 烽火台마다 흙으로 만든 통이 네 개가 있으되 통사이에는 火台 네 개가 있고 台上에는 말뚝을 박아서 화를 安全하게 하였다. 그리고 各통의 相距는 約 二十五步式으로 하나 山이 험하고 땅이 험착하여 二十五步의 거리로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만 불만 서로 상응하여 잘빛이게 하도록만 하고 그 遠近은 꼭 제한하지 않았다.

연통의 높이는 約 一丈五尺인데 절반以下부터는 四面의 各各 넓이가 約 一丈一尺이고 절반 以上부터는 위로 올라가면서 漸次 좁게 되었다. 또 통을 만드는데는 먼저 內面을 진흙으로 바른 다음에 表面 또한 진흙으로 쳐발러서 연기가 세나오지 못하게 하고 통우에는 밀이 없는 옹기동이를 만들어서 덮었으니 그것은 물론 연기를 잘 나가게 하느라고 그리한 것이었다. 그리고 또 아래에는 검은 화로에 부엌아궁이 있으니 땅에서 約 석자거리되게 만들고 上下左右가 各各 一尺五寸이 되어 네모 반듯하고 門을 해달아서 自由로 열었다 닫았다 하게 하고 그 화로의 아궁이문은 속에다 나무를 넣고 진흙으로 잘 싹발러서 불길에 타지 않도록 하였으며 또 烽筒밖에는 四方으로 모도 깊은 구덩이를 파서 다른 곳과 불이 타지 않도록 하였다. 烽所에 預備저장하는 물건은 대개 썩나무·벗집·材木 等인데 秋成하기 前에 特別히 썩대·썩잎·갈대·풀마디(草節)等을 베어 말려가지고 한데 섞어 묶어 볼쏘개에 쓰게하고 썩나무저립(麻莖)·狼糞·引火之物을 쌓어둔 곳에는 또한 구덩이를 四方으로 둘러파서 火災가 범하지 않도록 防備하였다.



는 내용이다. 위의 문헌기록에 근거하여 이철영은 도면2와 같은 내지봉수 추정도를 작성 하였다. 방형의 기단부 위에 마련된 연조는 무릎 위의 높이에 거화를 위해 네모난 火口와 연조 상부 용기를 이용한 연통시설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향후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내지봉수의 정비 및 복원과 관련하여 위의 도면1과 더불어 비교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도면2. 內地烽燧 推定圖 2(이철영 교수작성)

3. 內地烽燧 整備 · 復原事例

현재 남한내에 잔존하는 약 500개소의 봉수 중 內地烽燧로서 정비·복원이 이루어졌거나 추진중인 봉수는 약 20여개소 내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봉수에 대해 유형별로 정비·복원현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굴·발굴과 같은 학술조사 후 원형에 가깝게 복원이 추진중인 봉수로서 성남 天臨山·공주 月城山·청주 巨叱大山烽燧가 있다. 천림산봉수(경기도기념물 제179호)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산32번지 일대의 淸溪山 동쪽 기슭인 해발 170m 가량의 나지막한 구릉능선에 위치하고 있다. 초축시기는 조선전기이며 봉수노선과 성격상 제2거 직봉노선의 내지봉수이다. 봉수규모는 전체둘레가 85m 가량이며 동서길이 33.8m, 남북길이 12m이다. 토지박물관의 발굴조사를 통해 방호벽내에 외방내원형의 연조 5개소가 확인되었으며 향후의 정비·복원에 대비하여 원형보존이 이루어지고 있다. 월성산봉수(공주시 향토유적 제15호)는 충남 공주시 소학동의



사진1. 성남 천림산봉수(발굴조사 후)



사진2. 공주 월성산봉수(발굴조사 후)



사진3. 청주 거질대산봉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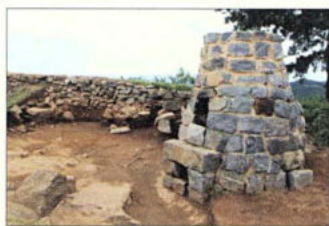


사진4. 청주 거질대산봉수 연조(복원)



사진5. 양산 위천봉수(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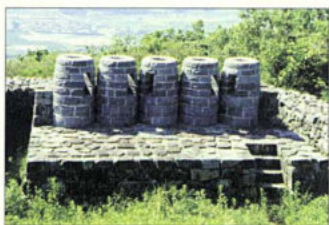


사진6. 양산 위천봉수 연조(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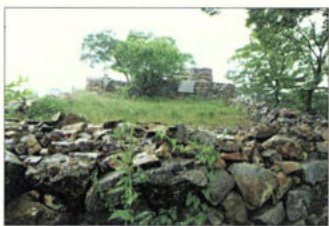


사진7. 진주 광제산봉수(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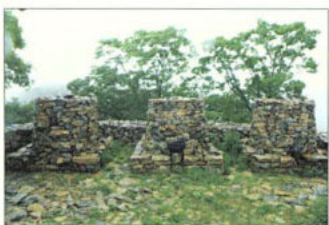


사진8. 진주 광제산봉수 연조(복원)

해발 312.6m인 월성산 북쪽 봉우리 정상에 위치하고 있다. 초축시기는 조선전기이며 봉수노선과 성격상 제5거 직봉노선의 내지봉수이다. 봉수규모는 전체둘레가 81.4m 가량이며 동서길이 12m, 남북길이 34.6m이다. 공주대학교 박물관의 발굴조사를 통해 내지봉수의 일반적인 규모와 형태임이 확인되었으며 향후의 문화재지정 및 정비·복원에 대비하여 원형보존이 이루어지고 있다. 거질대산봉수(충북 문화재자료 제26호)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의 해발 443.5m인 산봉우리에 위치하고 있다. 초축시기는 조선전기이며 봉수노선과 성격상 제2거 간봉노선의 내지봉수이다. 봉수규모는 전체둘레가 69.2m 가량이며 동서길이 24.3m, 남북길이 16.3m이다. 최근 중원문화재연구원에 의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방호벽내에는 발굴조사 전 행사를 위해 연조 1기를 복원하였다.

둘째, 과거 지표조사를 통해 방호벽과 5개소의 연조 및 창고지에 대한 복원이 이루어진 양산 渭川烽燧(경남 기념물 제118호)가 있다. 경남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의 해발 325m인 원적산에 위치하고 있다. 초축시기는 조선전기이며 봉수노선과 성격상 제2거 직봉노선의 내지봉수이다. 봉수형태는 직방형과 타원형의 방호석축이 연결된 복합식 내지봉수로서 현재 복원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부속시설로는 방호벽, 연조, 건물지, 창고지 등이 있다. 이중 수원 화성봉돈을 모방하여 복원한 연조는 그 규모가 소형인데다 너무 가깝게 인접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는 상태이다.

셋째, 최근 시굴·발굴조사 후 방호벽과 연조에 대한 복원이 이루어진 진주 광제산봉수가 있다. 경남 진주시 명석면 덕곡리(경남 기념물 제118호)의 광제산에 위치하고 있다. 초축시기는 조선전기이며 봉수노선과 성격상 제2거 직봉노선의 내지봉수이다. 봉수규모는 동서길이 30m, 남북길이 8~14m이다. 최근 경남발전연구원에 의한 시굴·발굴조사 후 방호벽과 방호벽 북쪽에 외방내원 형태로 3개소의 연조에 대한 복원이 이루어졌다.

넷째, 비록 봉수에 대한 학술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방호벽에 대한 부분 정비를 통해 거의 원형에 가까운 모습으로 복원된 청도 南山烽燧가 있다. 봉수는 경북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의 해발 804m인 봉우리에 위치하고 있다. 초축시기는 조선전기이며 봉수노선과 성격상 제2거 간봉(8)노선의 내지봉수이다. 봉수규모는 전체둘레가 50.3m 가량이며 동서길이 17.4m, 남북길이 11.8m이다. 봉수는 원래 기저부만 남아 있었으나, 20여년 전 청도군에 의해 기저부 위로 방호벽 석축을 올리고 계단식 출입시설을 마련하는 등 복원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다섯째, 위와 마찬가지로 비록 봉수에 대한 학술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방호벽과 계단식 출입시설에 대한 부분 정비 및 방호벽내에 5개소



연조 중 1개소에 대한 복원 및 4개소의 연조 하부를 마련한 아산 燕巖山烽燧가 있다. 봉수는 충남 아산시 음봉면 동암리와 소동리의 경계인 해발 276m인 연암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다. 초축시기는 조선중기이며 봉수노선과 성격상 제5거 직봉노선의 내지봉수이다. 평면형태는 장란형이며 2000년 아산시에 의해 복원이 이루어졌다.



사진9. 청도 남산봉수

마지막으로 정식적인 학술조사 없이 사실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복원되어 원형을 알 수 없는 사천 鞍岾山烽燧, 진주 望晉烽燧, 예천 飛龍山烽燧, 순천 城隍堂烽燧 등이 있다. 특히 망진봉수는 입지적으로 그 자체가 봉수성격상 內地烽燧임에도 연변봉수 형태로 복원이 이루어져 있다. 이를 통해 그나마 잔존유지의 보존상태가 양호한 봉수의 원형이 훼손되고, 사실과 다른 형태의 복원을 통해 봉수 본래의 모습을 왜곡하여 인식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위에서 소개한 이들 봉수의 정비·복원 주체는 대부분 시·군 지자체 혹은 민간단체로서 관광자원화 목적에서 임의로 복원되었다.



사진10. 아산 연암산봉수 연조군(복원)

이들 복원이 이루어진 봉수를 개별적으로 살펴 보면 안점산봉수(경남 기념물 제175호)는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신북리의 해발 310m인 안점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다. 초축시기는 조선전기이며 봉수노선과 성격상 제5거 간봉노선으로 연변·내지 접점에 위치하는 봉수이다. 1993년 9월 아무런 조사 없이 봉수 전체에 대한 복원이 이루어졌는데 원형의 석축연대 내부의 서북쪽에 5개소의 연조를 진주 망진봉수로 향하여 반구형으로 배치한 특이한 복원 형태이다. 복원 연조는 높이 150~160cm, 하부 둘레 440~450cm의 규모로 40×40cm의 방형 화구는 지표에 바로 인접하고 있다. 남동쪽에는 폭80cm의 출입시설이 1개소 마련되어 있다.



사진11. 사천 안점산봉수(복원)

망진봉수는 경남 진주시 망산동의 망진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다. 초축시기는 조선전기이며 봉수노선과 성격상 제2거 간봉(9)노선의 내지봉수이다. 과거 민간단체에 의해 연변봉수 형태로 원형의 연대 1기를 복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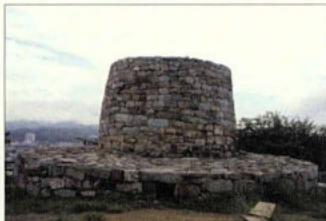


사진12. 진주 망진봉수(복원)

비룡산봉수는 경북 예천군 향석리 비룡산에 위치하고 있다. 직경 3.7m, 높이 2.7m의 정방형 규모로 2000년 12월 예천군에서 기 복원되어져 있던



사진13. 예천 비룡산봉수(1차 복원)



사진14. 예천 비룡산봉수(2차 복원)



사진15. 순천 성황당봉수



붕수를 사진처럼 사실과 다른 모습으로 2차에 걸쳐 다시 복원하였다. 원래의 위치 여부는 불확실하며 백색화강석을 이용하여 북쪽에 방형 화구를 한 개소 마련하였다.

성황당붕수는 전남 순천시의 해발 355.3m인 烽火山 남쪽 봉우리 정상에 위치하고 있다. 초축시기는 조선전기 이전으로 추정되며 붕수노선과 성격상 제5계 간봉(1)노선의 내지붕수이다. 1990년 11월 봉화산 남쪽봉우리에 3기의 연조를 '品' 자형으로 복원하였다. 비록 연조는 사실과 다른 모습이나 연조 주위 방호벽과 남·북에 출입시설이 각 한 개소씩 잔존하고 있다.

4. 맺는말

지금까지 용인 석성산붕수 지표조사와 관련하여 올바른 정비·복원방향을 모색하고자 국내에 소재하는 다수 붕수 중 내지붕수에 국한하여 정비·복원사례를 유형별로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2절 內地烽燧의 構造에서는 조선 세종 29년(1447) 국가에서 내지붕수의 구조와 운영을 위한 시설 규정을 제도화한 사실을 문헌기록에 의거하여 살펴보았다. 따라서 문헌기록에 근거하여 작성된 내지붕수 추정도와 일제강점기 발간된 자료를 근거로 두가지 유형의 내지붕수 추정도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내지붕수의 정비·복원과 관련하여 비록 상부구조가 남아 있지 않아 정확한 고증은 곤란하지만 과거 내지붕수의 구조·형태를 추정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 3절 內地烽燧 整備·復原事例에서는 현재 남한내에 잔존하는 약 500개소의 붕수 중 내지붕수로서 정비·복원이 이루어졌거나 추진중인 붕수 11개소를 대상으로 여섯가지 유형의 정비·복원사례를 소개하였다. 이를 통해 각 지역별로 붕수의 조사 후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정비·복원을 추진중인 사례도 있으나, 학술조사와 정확한 고증 없이 사실과 다른 형태로 복원된 사례의 소개를 통해 향후 올바른 방향으로의 정비·복원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향후 진행될 석성산붕수의 정비·복원방향은 이상 소개한 각종 사례를 참고하여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얻으려 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철저한 고증과 조사를 바탕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부 록 2

□ 烽燧略史

■ 三國

연 도	내 용
溫祚王10년(B.C.9)	10월 靺鞨의 국경침범시 왕이 精騎 100명을 이끌고 烽峴에 나아감
首露王7년(48)	7월 왕이 신하를 시켜 望山島에서 허황옥을 맞이하게 함
古爾王33년(266)	8월 병사를 보내어 신라의 烽山城을 공격함
烽上王8년(299)	9월 귀신이 烽山에서 음
烽上王9년(300)	왕을 烽山原에 장사하고 호를 烽上王이라 함

■ 高麗

연 도	내 용
仁宗원년(1123)	宋사신이 黑山島에 이르렀을시 봉화불을 밝히어 왕성까지 안내함
毅宗3년(1149)	8월 서북면병마사 曹旼若이 夜火晝烟에 의한 1급에서 4급의 烽燧式을 정함
원종13년(1272)	11월 三別抄가 合浦에 침입하여 蒙古 烽卒 4인을 잡아감
忠烈王7년(1281)	10월 印侯를 昭勇大將軍 鎮邊萬戶로, 張舜龍을 宣武將軍 鎮邊總管으로 삼고 합포·가덕·동래·울주·죽림·거제·각산·내례량 등 좁은 바다 어구와 탐라 등지에 경계를 구획하여 烽燧을 설치함
忠定王3년(1351)	8월 松嶽山에 烽燧所를 설치함
恭愍王5년(1356)	간신 蔡河中의 역적모의에 관련된 여러 사람들을 장형을 가하여 각 도의 烽卒로 배속시킴
恭愍王22년(1373)	7월 江華 萬戶 河乙訖·漢陽 尹辛廉 등이 倭를 防禦하지 못하였으므로 왕이 內府副令 李傑生을 體覆使로 파견하여 杖罰을 가하고 烽卒로 流配 10월 崔瑩이 楊光道 道巡問使 李成林이 倭를 防禦하지 못하였으므로 형장을 쳐서 烽卒로 流配
辛禡3년(1377)	5월 왜의 강화 침입시 烽火가 대낮에 계속 오름
辛禡14년(1388)	4월 왜적이 수도 개성과 가까운 인근의 椒島에 침입하였을 때 경성의 장정들은 모두 종군하고 오직 노약자만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밤마다 烽火가 여러번 오름
辛禡14년(1388)	간신 이인임의 아우 李仁敏을 鷄林으로 추방하여 烽卒로 함

■ 朝鮮前期

연 도	내 용
太宗6년(1406)	12월 慈州人 曹守를 거제현 烽卒로 장비하고 慈州戶長 金良義를 기장현 봉졸로 내려 보냄
世宗1년(1419)	5월 종전의 2거제를 5거제로 확정함 8월 烟臺를 높이 쌓고 주야로 적변을 간망토록 함
世宗4년(1422)	12월 烽燧制 제정
世宗5년(1423)	1월 봉화를 올리지 않은 泰日 烽火干 黃連에게 곤장80대를 칩 2월 南山에 烽火 5개소를 설치함
世宗9년(1427)	7월 전남 고흥의 馬北·愁德 두 산에 별도로 海望을 설치함
世宗12년(1430)	6월 私馬를 도살한 金寶를 유배소의 烽火干에 영속시킴
世宗14년(1432)	6월 慶源·石幕 이북과 龍城에 이르는 길목에 연대 17개소가 설치되고, 매 소마다 火燭習人 1명, 군인 3명이 배치되고 信砲 2,3개, 大發火 4,5자루, 白大旗 등이 비치됨
世宗18년(1436)	4품 이상의 조신들에게 制寇策을 마련토록 함 윤6월 평안도도절제사에게 전지를 내려 양계지방에 연대를 축조할 것을 명하다.
世宗19년(1437)	2월 각도의 極邊 初面으로서 봉화가 있는 곳은 煙臺를 높이 쌓고 인근 백성 10인을 烽卒로 정하여, 每番 3인이 모두 병기를 가지고 항상 그 위에서 주야로 정찰하여 5일 만에 교대하게 함 7월 평안도 所用怪·趙明干·於怪用의 煙臺에 중국식 제도를 모방하여 臺를 축조하고 대 밑에는 塹壕를 파서 적의 침입에 대비



연 도	내 용
世宗21년(1439)	4월 적변을 알리기 위해 信砲와 烽火를 사용하게 함
世宗24년(1442)	경상도 居叱多浦와 가까이 있는 防垣峴에 연대 설치 및 角聲이 서로 들릴 수 있도록 吹角軍을 배치토록 함
世宗28년(1446)	1월 김종서가 監考 제의 10월 연변·내지봉수에 각각 2명씩 배치되어 봉수군을 지휘감독하게 함 4월 도절제사 金自雍이 봉화를 삼가지 못하여 야인의 평안도 무창군 노략질을 방지함
世宗29년(1447)	3월 沿邊烟臺造築之式과 腹裏烽火排設之制를 마련함 4월 태안군 智靈山에 봉화대를 쌓고 信砲를 설치토록 함
世宗30년(1448)	10월 의정부의 건의로 노약한 烽卒이 직무를 불감당시 그 子孫, 弟姪, 동거하는 親屬 또는 奉足 중에서 대립을 원하는 자를 봉졸로 허용하고, 또한 京外 죄인으로 徒刑을 받은 자를 刑期 동안 供役케 함
文宗1년(1451)	4월 진도현 花山烽火를 館 근처로 옮기게 함
端宗2년(1454)	1월 남해현 望雲山·城峴 두 봉화를 혁파함 2월 경상도우도수군처치사가 봉화를 적변에 따라 일시에 아울러 들게 하니 그대로 따름
世祖1년(1455)	11월 平安道 敬差官 梁誠之의 건의로 狄踰嶺에 烟臺를 설치함
世祖2년(1456)	11월 藍浦 烽火軍 李德明이 승려 學修에게 의탁하여 삭발하고 중이 되어 봉화군 漢永과 도망하여 군역을 피함
世祖3년(1457)	8월 호조판서 朴元亨의 건의로 義州 統軍亭 남쪽 40리 거리 상에 있는 7개의 연대중 적로가 멀리 떨어져 있는 造山·也日浦·光城煙臺 등 3개소의 연대를 폐지함
世祖4년(1458)	12월 平安·黃海道 都體察使 申叔舟의 계본에 의해 좌우 거리가 멀지 않은 벽동군의 水落煙臺 등 14개소를 폐지함
世祖5년(1459)	4월 烽卒 5명 중 1명을 甲士로 보충함, 회령부 甫乙下煙臺 혁파 12월 연변의 중요 연대에 그 소재 진의 감사 1명을 한달 교대로 망보게 함
世祖6년(1460)	2월 연대에 銃筒과 神機箭을 비치토록 함 4월 平安·黃海道 都體察使 金·의 건의로 江界府의 山端과 乾背者介의 烟臺를 철폐함 11월 갑산진 鎮東堡를 이설 및 동인원에 東仁院堡 및 東仁院煙臺를 신축
世祖10년(1464)	2월 경상도의 창원부 峯山과 양산군 鷄鳴山의 烽燧가 모두 낮고 작아서 먼 곳과는 서로 통할수 없으므로 각각 舍山과 渭川驛 北山으로 옮김
世祖13년(1467)	3월 唐浦 彌勒山의 烽燧軍 吳仲山이 경상도 해변에 왜선의 출몰을 알림
成宗2년(1471)	經國大典의 반포로 인해 朝鮮의 烽燧制를 法制化 烽火軍과 伍長은 봉수 근처에 사는 사람으로써 差定케 함
成宗5년(1474)	6월 冬衣 129領을 영안북도에, 50領을 영안남도에 보내어 봉수와 척후 등의 군인에게 나누어 주게 함
成宗6년(1475)	2월 병조에서 사변을 보고하지 않은 북쪽지방의 봉수군을 국문하도록 아뢰 2월 전남 고흥의 馬北山과 榆朱山의 봉수를 예전대로 다시 세우게 함 5월 봉수가 있는 곳에는 모두 煙筒을 만들게 함 5월 봉수 부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만 差定케 함
成宗8년(1477)	4월 봉화를 들지 않은 唐浦의 烽燧軍 尹元壽·金元京에게 형을 내림
成宗9년(1478)	3월 병조에서 白也山烽燧監考 申明翕가 후망을 조심하지 않아 적선이 오는 것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한 처벌을 보고하다.
成宗23년(1492)	9월 衲衣를 만들어 煙臺에 척후하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게 함
燕山君1년(1495)	8월 성준이 남방의 연대가 허술함을 보고함. 11월 邊境의 烟臺候望人에게 衲衣를 하사하였는데, 평안도에 350벌, 영안북도에 500벌, 영안남도에 62벌이었다.



연 도	내 용
燕山君8년(1502)	7월 병조가 三千鎭에 烽火臺의 설치를 건의하다.
燕山君10년(1504)	8월 전교하여 평안·황해 2도의 봉수를 들이지 말도록 함 8월 승지 강징이 무악재와 아차산봉수를 제외한 각진의 봉수를 올려 변을 보고하기를 아뢰 8월 전교하여 함경도에서 보고하는 것을 아차산봉수에서는 올리지 못하게 함 10월 전교하여 下三道의 烽燧를 폐지시킴
中宗1년(1506)	10월 팔도관찰사에게 하교하여 烽燧의 복구를 거듭 촉구하다.
中宗5년(1510)	三浦倭亂시 봉수가 알려지 않음
中宗7년(1512)	7월 변방 경보가 자주 오는데 南山烽燧는 평안함을 보고하므로 살피게 함
中宗27년(1532)	9월 領事 鄭光弼이 '국초에 봉수가 경계를 늦출까 염려되어 남몰래 변방으로 하여금 시험삼아 봉화를 들게 하자 5~6일 만에 서울에 이르렀는데 지금은 한 달이 걸려도 결코 통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함
明宗1년(1546)	9월 왜노와의 접전을 알리지 않은 1路의 烽燧軍을 차례로 추고하도록 함
明宗11년(1556)	9월 전라도 南原의 烽燧軍 金世堅이 벼락에 맞아 죽음
明宗14년(1559)	2월 전라도 장흥 億佛山烽燧臺가 벼락에 부서지고 그 밑 地臺의 큰 돌이 뽑혀 간 곳이 없었다.
宣祖16년(1583)	8월 鍾城의 烽燧軍 韓揚이 오랑캐의 변으로 慶源이 함락될 때 적중으로 돌입하여 부친을 구해 돌아왔으므로 무명저고리 2벌, 甲·1벌, 활, 長片箭, 環刀 등을 하사함
宣祖30년(1597)	擺撥制度 실시

■ 朝鮮後期

연 도	내 용
宣祖32년(1599)	12월 北道兵使 李守一의 장계에 鎭浦의 烟臺烽燧軍 全坤이 지난 갑오년 3월에 胡賊에게 사로잡혀 갔음을 아뢰
宣祖33년(1600)	11월 通判 陶良性的의 국방 강화책 중 봉화와 돈대를 증축할 것을 아뢰다.
光海君1년(1609)	10월 북방 오랑캐에 대한 방비 철저를 전교하다.
仁祖2년(1624)	5월 義州 白馬山과 葛山에서 烽火5柄을 잘못 올린 자를 참수하다.
仁祖26년(1648)	8월 선전관 金繼得을 보내 北路의 烟臺를 순행하면서 살피보게 하다.
顯宗1년(1660)	7월 근무를 태만히 한 南所의 部將을 의금부에 하옥함
肅宗3년(1677)	備局이 장계를 통해 보령에 元山烽燧를 설치하고 봉군의 他處入番을 일체 혁파 및 水營 소관으로 하자는 건의를 올림
肅宗10년(1684)	8월 특별히 宣傳官 鄭翔周 등을 보내어 北路의 烽燧를 살피게 하다.
肅宗16년(1690)	4월 호조참판 이의징이 경기도 수원인 봉수가 허술함을 보고 및 禿城山城내 연대의 설치를 건의함
肅宗19년(1693)	11월 좌의정 睦來善이 아뢰어 함경, 강원, 경기의 각 읍 봉화와 연락이 안되어 남산의 봉화대에서 매양 네자루를 올리고 있음을 아뢰
肅宗20년(1694)	烽燧摘奸官을 재가함
肅宗27년(1701)	3월 靑山縣 騎兵 保人 徐日立과 崔余尙이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봉화를 들었다가 체포되다. 北兵使 李弘述이 아뢰어 六鎭부터 서울까지 길이 멀어서 初境의 봉화를 오후에 올리면 날이 저물어서야 비로소 峨嵯山에 도달한다고 아뢰
肅宗29년(1703)	3월 瑞興에서 도적이 干山烽燧에 들어가 軍器를 훔쳐감 5월 端川 烽臺軍이 關直하여 烽火를 끊었다 하여 곤장을 치고 극변에 충군하게 하다.
肅宗31년(1705)	4월 부호군 閔銓이 봉수가 육지와 연결된 곳에는 검해서 대포를 설치하도록 상소하다. 12월 利城의 무인 鄭斗根의 상소에 북로의 민폐 5조 중 烽燧別將을 가려서 정하도록 아뢰다.



연 도	내 용
肅宗37년(1711)	3월 제조 민진후가 아뢰기를 봉화대에는 의례히 성첩처럼 장벽을 쌓고 약간의 군기 등속을 보관하여야 하는데 畿甸에서는 烽軍이 원래 몸을 가릴 곳조차 없다고 하므로, 각 고을에 분부하여 빨리 장벽을 쌓게 하되 그 고을 물력이 미치지 못하면 조정에서 별도로 돌보아주도록 건의함
肅宗38년(1712)	12월 함경남도 병사 尹慤이 甲山府 伊叱忽烽燧를 옮길 것을 청하다.
肅宗39년(1713)	10월 충청도 해미현 봉화대의 庫直이 벼락에 맞아 죽고, 庫舍1칸이 불탐
英祖1년(1725)	동래부사 李重協의 건의로 石城烽燧를 龜峰으로 이설함
英祖5년(1729)	6월 근무를 태만히 한 목역산·안현의 봉수장과 봉수군을 치죄하라고 명하다.
英祖22년(1746)	12월 병조에서 봉수군을 선왕조의 수교에 따라 氷役に 동원하지 말도록 계청하다. 12월 寧海府使 李徵夏가 상소하여 영양·德峴은 예로부터 봉수의 길이 매우 순탄하였는데, 중간에 와서 본부 廣山으로 이설하면서 산세가 험준하고 외저서 지키는 자가 고생을 견디지 못하므로 廣山烽燧를 폐지하고 다시 덕현으로 이설할 것을 아뢰다.
英祖33년(1757)	좌의정 金尙魯의 건의로 향해도 德月山에 봉수대를 설치하게 하다.
英祖39년(1763)	掌令 韓必壽가 아뢰기를 '대개 六鎭 여러 고을에서는 巳時(9~11시)나 午時(11~1시)에 晝烟을 올려서 端川을 지나 磨雲嶺 이남에 이르러 비로소 夜烽으로 서로 응하게 된다' 고 함
英祖46년(1770)	5월 병조참의 申一淸이 상소하여 '북쪽 牛巖에서 峨嵯山까지 이르는 봉수대의 수는 120개인데 만약 加設한다면 그 수효는 더욱 늘어나게 되어 다른 도에 비하여 가장 많을 것이니 아침 일찍이 봉화를 들어야만 초저녁 어둡기 전에 아차산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우암에서 처음 봉화 드는 것을 보통 아침(平朝)을 기준으로 삼아 三南 및 兩西의 烽報보다 뒤지는 일이 없게 해야 합니다' 라고 하니, 임금이 소장을 備局에 내려 소상히 품처하도록 하였다.
正祖7년(1783)	12월 沃川人 鄭潤煥이 조부 鄭時雄의 무신년 군공이 있었음에도 상문한 길이 없자 木覓山烽燧 근처에서 방화하므로 병조에서 잡아다가 심문하다.
正祖10년(1786)	8월 延豐縣 麻骨烽火를 피우지 않은 원인을 보고하지 않은 절도사 具世勳을 처벌하다. 8월 봉수를 신중히 하지 않은 충청수사 李延弼를 파직하다.
正祖12년(1788)	9월 서북변방의 수졸과 봉수군에게 지급하는 유의와 紙衣의 점검을 도백이 직접하게 하다.
正祖17년(1793)	6월 영변부사 민태혁의 건의에 따라 영변부의 藥山東臺에 봉화대를 다시 설치하다.
正祖21년(1797)	6월 강화부 南山烽臺에 봉화를 올리지 못한 것 때문에 해당 유수를 파직하다.
正祖23년(1799)	7월 함경도병마절도사 崔景岳이 봉수대에 관해 장계하다.
純祖11년(1811)	3월 비국에서 하양의 匙山烽燧에 대해 회계하다.
高宗5년(1868)	4월 議政府에서 永宗·喬桐은 一小島로 備禦策이 어려운 데다가 近來에 外洋船의 去來가 잦으므로 마땅히 燧臺를 設置하여 江華府와 相應시키어 有難時에는 곧 赴援케 하자고 請하다. 그리고 그 經費는 營建都監 所在의 錢中에서 보내어 鎭撫使와 防禦使로 하여금 築臺시키자고 請하여 그에 따라 允許하다.
高宗7년(1870)	3월29일 병조에서 鞍峴의 烽幕에서 실화로 瓦家 6칸과 什物이 전소했음을 아림
高宗32년(1895)	5월9일 各處烽臺烽燧軍廢止
建陽1년(1896)	11월9일 蔚山 南木烽燧의 각종 備置物品 回收



□ 烽燧用語

- 가가(假家) : 임시로 지은 집
- 각성(角聲) : 봉수의 신호수단으로 물소뿔로 만든 나팔을 불어 소리를 냄
- 간봉(間烽) : 沿邊·內地烽燧 直烽 대응노선상의 봉수 사이에 연락두절을 우려하여 보조로 설치한 봉수. 이중 제2거 노선에 특히 간봉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특징이 있음
- 『萬機要覽』(1808) : 제1거60, 제2거123, 제3거22, 제4거35, 제5거34. 합 274개소
- 『增補文獻備考』(1908) : 제1거59, 제2거110, 제3거22, 제4거21, 제5거34 합246개소
- 거수(舉數) : 晝煙夜火로 변경의 정세를 그 완급에 따라 舉(炬)數로 차별하여 전하는 것-고려중엽 : 4炬· 고려말~조선초 : 2炬· 조선초기 이후 : 5炬
- 거화(炬火) : 햇불을 붙이는 것. 불을 일으키는 것
- 거화(舉火) : 햇불을 올리는 것
- 거화법(舉火法) : 위급에 따라 햇불을 올리도록 한 규정
- 겸자(鎌子) : 낫
- 경봉수(京烽燧) : “木覓山烽燧” 또는 “南山烽燧”라고 하며 조선시대에 전국의 모든 봉수가 집결하였던 중앙봉수
- 권설봉수(權設烽燧) : 조선후기 군사적으로 중요하였던 營鎮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하여 본읍으로만 연락하도록 운영한 봉수. 주로 해안 연변지역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沿邊烽燧와 같은 말로 통용. 『大東地志』의 各道烽燧條에서 확인(京畿道:7處· 忠淸道:4處· 慶尙道:10處· 全羅道:10處· 咸鏡道:5處)
- 고사(庫舍) : 창고
- 궁가(弓家) : 활쏘는 집
- 궁자(弓子) : 활
- 궁현(弓絃) : 활줄
- 기현(旗懸) : 賊變이 있을 때 큰 기(白旗 등)를 긴 장대에 달아서 적변을 알리는 것
- 나선형(螺旋形) 오름시설 : 전라· 경상지역의 남해연안 연변봉수에서 특징적으로 보이는 오름시설로서 파배기처럼 원형



혹은 반원형으로 돌아 연대 상부에 오르도록 되어 있음 ↔ 계단식

- 납의(納衣) : 솜으로 만든 덧옷. 봉수군에게 지급된 옷
- 낭분(狼糞) : 이리(狼)의 똥(糞). 봉수의 거화시 이리의 똥을 땔나무에 섞어서 불을 피우면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그 연기가 흐트러지지 않고 똑바로 올라간다고 하여 여러 가지 거화재료 중 최고로 간주되었으나, 실제 우리나라에서 활용된 예는 확인할 수 없음
- 낭화(狼火) :烽火(烽燧)를 달리 일컫는 말 = 狼煙
- 내지봉수(內地烽燧) : 연변봉수와 경봉수를 연결하는 육지내륙봉수로서 “腹裏烽火”와 같은 용어. 조선전기인 세종 29년(1447) 3월 의정부에서 병조의 모狀에 의거하여 올린 건의를 통해 沿邊烟臺造築之式과 腹裏烽火排設之制가 동시에 마련되어 시행되게 됨으로서 구체적인 내지봉수의 시설을 갖추게 됨 ↔ 沿邊烽燧
- 노구(爐口) : 돌과 흙으로 쌓은 부뚜막의 아궁이
- 능장(稜杖) : 봉수 문의 출입을 금하기 위해 어긋맞게 세운 둥근 나무 또는 밤에 순경을 둘 때에 쓰는 기구(길이 150cm 되는 장대 끝에 쇠 조각 등이 달려 있음)
- 단창(短槍) : 짧은 창
- 대(臺) : 흙을 높이 쌓아서 사방을 관망할 수 있게 만든 곳
- 대변량(待邊糧) : 비상식량
- 돈대(墩臺) : 약간 높직하고 평평한 곳에 흙을 높이 쌓아서 사방을 관망할 수 있게 만든 곳
- 동화주을(同花注乙) : 새끼줄
- 등(磴) : 계단식 통로. 봉수내부로의 출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 충주 周井山·고양 禿山烽燧 등에서 이러한 계단식 출입시설의 전형을 확인할 수 있음.
- 마뉴거(麻紐炬) : 거화재료의 일종인 삼해
- 마분(馬糞) : 거화재료의 일종인 말똥
- 마조(馬槽) : 말구유
- 망군(望軍) : → 요망군(瞭望軍)
- 망덕(望德) : 관망대
- 멸화기(滅火器) : 소화기
- 목부자(木斧子) : 나무망치



- 목익(木杙) : 봉수대에서 근무하는 봉수군을 외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봉수대 주변에 설치한 방어시설의 일종인 말뚝을 달리 일컫는 말
- 몽돌 : → 수마석(水磨石)
- 반(盤) : 대야
- 방화벽(放火壁) : → 방화석축
- 방화석축(防火石築) : “防火牆” · “防火壁” 혹은 “防護壁”(외곽석축)이라고도 하며 봉수대에 근무하는 봉수군이 나쁜 짐승으로부터 피해 입는 것을 방지하거나 연조의 불이 산 아래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어 · 방화용 시설
- 방화장(放火牆) : → 방화석축
- 법수목(法首木) : 난간의 귀퉁이에 세운 기둥 머리 나무
- 보인(保人) : 봉수군의 복무에 대한 대가로 급여된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 이들은 실제 근무를 서지 않는 대신 근무를 서는 봉수군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하였음
- 복리봉수(腹裏烽燧) : 내지봉수와 같은 말 → 내지봉수
- 봉(烽) : 봉화봉. 兵亂을 알리는 불. 轉하여 적에 대한 경계의 비유
- 봉대(烽臺) : 봉화를 올리는 樓臺. 烽燧臺의 약어 = 봉루(烽樓)
- 봉돈(烽墩) : 햇불과 연기로 대응봉수에 신호를 보내기 시설한 약간 높직하고 평평한 땅 또는 시설물
- 봉라(烽邏) : 봉화와 정찰
- 봉루(烽樓) : → 봉대(烽臺)
- 봉로(烽路) : 대응봉수노선간 봉수가 지나는 길로 烽燧路와 동일 용어
- 복리봉수(腹裏烽燧) : 內地烽燧와 같은 말 → 內地烽燧
- 봉보(烽堡) : 봉화를 올리는 데 쌓은 보루(堡壘)
- 봉수(烽戍) : 봉화를 올리는 수병(戍兵)
- 봉수(烽燧) : 봉(烽 · 햇불 · 炬 · 夜烽 · 夜火)과 수(燧?연기?煙?晝燧?晝煙)로 변방의 급보를 중앙에 전달하던 군사적 목적의 통신수단. 그러나 타 목적으로도 활용(왕비의 도래-駕洛國, 평화시 외국 사신의 길 안내-高麗)되거나 악용된 사실(총애하는 애첩의 옷는 모습을 보기위해-고대 중국의 周, 억울함의 호소수단-조선후기 숙종대)이 확인됨
- 봉수군(烽燧軍) : 봉수를 올리는 일을 맡아보는 군사. 烽卒 · 烽軍 · 烽火干 · 烽火軍 · 看望軍 · 看望人 · 望人 · 海望人 · 煙臺軍 · 守直軍 등과 같은 말



- 봉수대(烽燧臺) : 상호 연락이 편리한 고지에 봉수를 올리던 臺 → 봉대(烽臺)
- 봉수로(烽燧路) : → 烽路
- 봉연(烽煙) : 봉화의 연기
- 봉자(烽子) : 봉수대를 지키는 군사
- 봉조(烽竈) : 햇불과 연기로 대응봉수에 신호를 보내기 시설한 아궁이
- 봉탁(烽柝) : 봉화와 딱다기. 轉하여 변고를 경계하는 일
- 봉화(烽火) : 변란발생시 변경에서 서울까지 경보를 알리는 불. 烽燧·煙火·狼火·狼煙과 같음
- 봉화간(烽火干) : 조선초기에 봉수군을 달리 부른 말로 봉화간은 봉화를 드는 자로서 國俗에 身良役賤으로서 하는 일이 천하면 干 또는 尺이라 하였던 데서 유래
- 봉화독 : 봉화를 올릴 수 있게 만든 독
- 봉후(烽堠) : 봉보(烽堡)
- 부자(釜子) : 솥
- 부자(斧子) : 도끼
- 사발(沙鉢) : 사기로 만든 국그릇이나 밥그릇
- 삼혈총(三穴銃) : 삼발총
- 생송지(生松枝) : 산솔갱이 가지
- 세사(細沙) : 잔모래
- 세승(細繩) : 가는 세끼줄
- 소고(小鼓) : 작은 북
- 소정(小鼎) : 작은 솥
- 송거(松炬) : 솔갱이 다발
- 수(燧) : ①부싯돌수. 불을 일으키는 돌이나 나무 또는 금속.
②봉화수. 적의 침입을 경보하는 불
- 수강(水缸) : 물독
- 수마석(水磨石) : 경상, 전라 남해연안지역의 각 연변봉수마다 비치하였던 방어용 투석도구. 몽돌로도 통용
- 수봉(燧烽) : 봉화
- 수석(燧石) : 부싯돌
- 수연(燧煙) : 수봉(燧烽)
- 수옹(水瓮) : 물동이
- 수조(水槽) : 물통
- 수화(燧火) : 부싯돌로 일으킨 불
- 승자총(勝子銃) : 선조때에 만들어진 임진왜란(1592) 당시 사용한 소화기



- 시목(柴木) : 땔나무
- 시자(匙子) : 숟가락
- 식정(食鼎) : 취사를 위한 밥솥
- 신기전(神機箭) : 일명 走火. 화살에 화약통을 달아 불을 붙이면 그 추진력에 의해 화살의 속도가 배가되는 구조였음
- 야화(夜火) : 야간의 불빛
- 엄두(掩頭) : 머리를 가리는 무구
- 엄심(掩心) : 가슴을 가리는 갑옷
- 연굴(煙窟) : 연기가 빠지는 굴
- 연대(煙臺) : 해안 연변봉수에서 항시적으로 1炬 또는 비상시 炬火를 위해 설치한 높이 3m내외의 토축, 석축 또는 토·석 혼축의 인공적인 시설물. 연대 상부 중앙에는 원형 혹은 방형의 燃燒室이 마련되어 있음
- 연돌(煙突) : 굴뚝
- 연변봉수(沿邊烽燧) : 국경과 해변에 설치되어 “煙臺”라고도 불리운 해안 연변지역 최전방 변경봉수. 조선전기인 세종 29년(1447) 3월 의정부에서 병조의 모狀에 의거하여 올린 건의를 통해 沿邊煙臺造築之式과 腹裏烽火排設之制가 동시에 마련되어 시행되게 됨으로서 구체적인 연변봉수의 시설을 갖추게 됨 ↔ 內地烽燧
- 연소실(燃燒室) : 봉수가 거화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 煙臺 상부의 중앙부에 마련한 연료 소성방. 주로 沿邊烽燧에서 확인되며 울산 楸浦烽燧, 부산 기장 爾吉烽燧, 거제 江望山烽燧, 충남 보령 元山島烽燧에서 이러한 구조물이 뚜렷하게 확인됨
- 연조(煙竈) : 불을 피우는 시설. 내지봉수에 쓰이는 용어로 달리 아궁이·烽竈·煙窟로도 통용
- 연통(煙筒) : 연조 상부에 연기가 용이하게 배출되도록 설치한 시설. 朝鮮 成宗6年(1475)이후 王命으로 모든 봉수의 필수시설로 규정되게 됨
- 연화(煙火) : 봉화
- 연환(鉛丸) : 납 탄환
- 요망(瞭望) : 높다란 곳에서 적의 동정을 살펴 바라 봄. 조선후기 지방지도에 문헌에는 기록이 없는 다수 요망의 존재가 확인됨
- 요망대(瞭望臺) : 높다란 곳에서 적의 동정을 살펴 바라 보기 위해 흙 또는 석재를 높이 쌓아서 사방을 관망할 수 있게 만든 곳.



- 요망군(瞭望軍) : 지난날 요망하는 임무를 맡아하던 군사. = 망군(望軍)
- 우분(牛糞) : 거화재료의 일종인 소똥
- 유기(柳器) : 고리나 대오리로 엮어 상자같이 만든 기물
- 유의(襦衣) : 털옷. 세종대에 烟臺 備邊策으로서 고역이 컸던 연변봉수군에게 겨울용으로 지급 한 옷
- 와가(瓦家) : 기와집
- 원봉(元烽) : 直烽과 같은 말. 『大東地志』의 각 도 봉수 조 말미에 비로소 보임
- 장소(長所) : 긴 밧줄
- 장전(長箭) : 전투시 쓰는 긴 화살
- 장창(長槍) : 긴 창
- 조강(糟糠) : 거화재료의 일종인 겨
- 조총(鳥銃) : 火繩銃의 구칭
- 적시(積柴) : 땔감
- 전각(戰角) : 전투시 부는 동물의 뿔로 만든 호각
- 전제(前梯) : 사다리
- 주연(晝煙) : 낮의 연기
- 죽통(竹桶) : 대나무통
- 지갑주(紙甲冑) : 종이갑옷
- 직봉(直烽) : 조선시대 전체 5거노선상의 주요 봉수노선. 元烽과 같은 말 ↔ 間烽(『萬機要覽』(1808) : 제1거120, 제2거40, 제3거78, 제4거71, 제5거60. 습 369개소, 『增補文獻備考』(1908) : 제1거122, 제2거44, 제3거79, 제4거70, 제5거61 습376개소)
- 진회(眞灰) : 참회석
- 철갑주(鐵甲冑) : 철갑옷
- 철부자(鐵斧子) : 쇠망치
- 책(柵) : 봉수대에서 근무하는 봉수군을 외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봉수대 주변에 설치한 방어시설의 일종으로 나무를 둘러친 울타리
- 뉴거(紐炬) : 싸릿다발
- 초거(草炬) : 풀다발
- 초석(草席) : 짚 · 왕골 등으로 친 자리
- 취목(炊木) : 취사목
- 치고(馳告) : 대웅봉수노선상의 前烽에서 봉수가 오르지 않거나 비 · 바람 · 안개 등으로 햇불 · 연기가 보이지 않을 때 봉수군이 즉시 달려서 변보를 다음 봉수대에 전달하도록 한 규정



- 통아(桶兒) : 화살통
- 편전(片箭) : 총통에 넣어서 놓는 하나로 된 火箭. 짧고 작은 화살로 일명 '애기살'. 화살촉은 철촉이며 화살의 길이가 1척 2촌 이하로 다른 화살에 비해 짧았다. 화살의 길이가 짧았으므로 발사시에는 筒兒라 불리는 대롱에 넣어 발사함. 중량이 가벼운데 비해 가속도가 커서 관통력이 강한 장점이 있었음. 조선전기에는 조선의 중요한 무기의 하나로 간주되어 이 기술의 대외 유출, 특히 여진지역으로의 유출을 강력히 막기도 함. 무술 시험 때 130보 밖에서 쏘는데, 표적을 맞으면 15점, 과녁을 맞추면 100 점을 줌.
- 표자(瓢子) : 표주박
- 호(壕) : 해자 호. 성 또는 봉수 둘레에 방어목적에서 판 도랑
- 화뉴거(火紐炬) : 불사르개
- 화석(火石) : 부싷돌
- 화승(火繩) : 심지
- 화전(火箭) : 불화살
- 화철(火鐵) : 부쇠
- 환도(還刀) : 옛 군복에 갖추어 차던 軍刀
- 현표(縣瓢) : 표주박. 바가지
- 현표자(縣瓢子) : 거는 표주박
- 흑각궁(黑角弓) : 물소뿔 활.



참고문헌

- 『世宗實錄』地理志
- 『新增東國輿地勝覽』
- 『東國輿地志』
- 『輿地圖書』
- 『大東地志』

● 단행본

- 경기문화재단, 2003, 『京畿道の 城郭』.
- 경기문화재단, 2005, 『화성성역의궤증보판』.
- 國防軍史研究所, 1997, 『韓國의 烽燧制度』.
- 김주홍, 2007, 『韓國의 沿邊烽燧』.
- 白種伍 · 金炳熙 · 申泳文, 2004, 『韓國城郭研究論著總攬』.
- 水原市, 2000, 『水原의 옛 地圖』.
- 조병로 · 김주홍, 2003, 『韓國의 烽燧』.
- 한국보이스카웃연맹, 1990, 『韓國의 城郭과 烽燧』.

● 보고서

- 江陵大學校 博物館, 2001, 『東海 於達山 烽燧臺』.
- 경기도박물관, 2005, 『龍仁 할미산성』.
- 慶南考古學研究所, 2006, 『固城 曲山烽燧 試掘調査 報告書』.
- 慶南대학교박물관, 2007, 『統營 閑山島 望山 別望烽燧臺 精密地表調査 報告書』.
- 慶南文化財研究院, 2001, 『統營 彌勒山烽燧臺』.
- 畿甸文化財研究院, 2005, 『龍仁 寶亭里 소실遺蹟』.
- 畿甸文化財研究院, 2006, 『龍仁 淸德里 百濟 竪穴遺構』.
- 남해군, 1999, 『금산봉수대 지표조사보고서』.
- 남해군 창선면, 2000, 『대방산 봉수대 지표조사보고서』.
- 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2007, 『咸安 巴山 烽燧臺 文化遺蹟 發掘調査報告書』.
- 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2007, 『巨濟 江望山 烽燧臺 文化遺蹟 發掘調査報告書』.



- 東亞大學校 博物館, 1999, 『佐耳山烽燧臺 地表調査報告書』.
- 東亞大學校 博物館, 2002, 『巨濟 江望山烽燧臺 精密地表調査報告書』.
- 釜山博物館, 2004, 『機張郡 孝岩里 爾吉烽燧臺』.
- 성남문화원, 2006, 『城南 天臨山烽燧 復元 綜合報告書』.
- 울산과학대학 건설환경연구소, 2004, 『蔚山 川內烽燧臺 學術調査報告書』.
- 울산과학대학 건설환경연구소, 2004, 『울산지역 봉수체계와 천내봉수대의 보전방안』.
- 울산대학교 도시·건축연구소, 2003, 『우가산 유포봉수대』.
- 울산대학교 도시·건축연구소, 2004, 『서생 나사봉수대』.
- 인하대학교 박물관, 2004, 『仁川 柵串烽燧 정밀지표조사 보고서』.
- 전남대학교 박물관, 2006, 『강진 원포 봉수』.
- 濟州文化藝術財團 文化財研究所, 2004, 『兎山烽燧』.
-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1999, 『용인의 옛성터』.
- 忠淸文化財研究院, 2007, 『瑞山 主山烽燧』.
- 하동군, 2001, 『하동 금오산 봉수대 지표조사보고서』.
- 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05, 『龍仁 東栢里·中里遺蹟』.
-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2000, 『성남 천림산봉수 정밀지표조사보고서』.
-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2003, 『성남 천림산봉수 건물지 발굴조사보고서』.
-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2003, 『용인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 논문

- 金周洪, 2000, 『京畿地域의 烽燧 研究』, 祥明大 碩士論文.
- 金周洪, 2000, 『京畿地域의 烽燧位置考Ⅰ』, 『博物館誌』9, 忠淸大學 博物館.
- 金周洪, 2002, 『京畿地域의 烽燧位置考Ⅱ』, 『白山學報』62, 白山學會.
- 金周洪, 2003, 『朝鮮前期 京畿中部地域의 烽燧 考察』, 『祥明史學』8·9, 祥明史學會.
- 金周洪, 2003, 『韓國의 沿邊烽燧Ⅰ』, 『한국성곽연구회 정기학술대회』, 한국성곽학회.
- 金周洪, 2004, 『韓國의 沿邊烽燧Ⅱ』, 『울산지역 봉수체계와 천내봉수대의 보전방안』, 울산과학대학 건설환경연구소.
- 金周洪, 2004, 『韓國 沿邊烽燧의 形式分類考Ⅰ』, 『實學思想研究』27, 母岳實學會.
- 金周洪·玄男周, 2007, 『高麗~朝鮮時代 江華島의 烽燧··望』, 『江華外城』, 한국문화재보호재단.



- 나동욱, 2004, 「釜山 慶南地域 봉수대의 구조와 시설」, 『울산지역 봉수체계와 천내봉수대의 보전방안』, 울산과학대학 건설환경연구소.
- 백종오, 2006, 「신라 북진기 할미산성의 고고학적 검토」, 『신라사학보』6, 신라사학회.
- 백종오 · 김주홍 · 김병희, 2001, 「京畿 · 서울 · 仁川地域 關防遺蹟의 研究 現況」, 『학예지』8,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 이철영, 2004, 「천내봉수대의 현황과 보전방안」, 『울산지역 봉수체계와 천내봉수대의 보전방안』, 울산과학대학 건설환경연구소.
- 이철영, 2005, 「조선시대 봉수군의 주거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16-6, 한국주거학회.
- 이철영, 2006, 「조선시대 연변봉수의 배치형식 및 연대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49, 한국건축역사학회.
- 李喆永, 2006, 『朝鮮時代 沿邊烽燧에 관한 研究』, 大邱카톨릭大 博士論文.
- 車勇杰, 2004, 「한국 봉수의 성격 · 기능 · 특징」, 『한국성곽연구회 정기학술대회』, 한국성곽학회.

용인 석성산봉수

종합정비 기본계획

기획·발행 _ 용인문화원 www.ycc50.org
용인시 처인구 용인대로 735(삼가동 556번지)
충주대학교 www.cjnu.ac.kr
충청북도 충주시 대학로 72번지

저 자 _ 백종오 | 김주홍 | 신영문
오강석 | 오호석 | 강진주

발 행 일 _ 2009. 2

편집·제작 _ 주류성출판사(02,3481,1024)

ISBN 978-89-6246-014-8 93910

無樑之瓦南北各一間南則溫堞守卒所處北則鋪板
械所貯自墩身之入於城內者至此兩隅左右
尺因其磴背作一方城磴上亦設短墻三層下
面兩間甃垣長十八尺六寸當中設虹蜺小門垣高十二
尺與屋齊垣內磴下之地南北三十二尺東西二十一尺
每夕於南一竇舉一炬東應龍仁石城山陸烽西準本府
與天臺海烽外此四竇非有警急不可以火但與天海烽
遠難直傳故又於府西三十里棲鳳山上新置間烽以東
來準於此

棲鳳山間烽亦設五火竇於雜石臺上竇高十一尺下圍
十三尺石築塗灰腰頂俱有炬口東準於府墩之烽而豈
下山樓建四間庫舍以儲軍物又其下建守直廳



93910

9 788962 460148

ISBN 978-89-6246-014-8